KDI 북한경제리뷰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2015. 1

KDI

KDI
북한경제리뷰
편집진

편집위원
조병구 | 선임연구위원(편집위원장)
이　석 | 연구위원
이종규 | 부연구위원
위혜승 | 전문위원

명예편집위원
고일동 | 촉탁연구위원

편집
남진욱 | 연구원
김　옥 | 연구원
김슬기 | 연구원
전은경 | 연구행정원

KDI 북한경제리뷰는
북한경제의 실태, 남북한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분석·정리하여
정책당국자, 학계 및 업계 등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월별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44-550-4086
팩스번호 044-550-4090

본 자료는
KDI 홈페이지(http://www.kdi.re.kr)로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동향과 분석

3
총론: 2014년 북한경제 평가와 2015년 전망 | 이 석
2014년 북한 사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 | 김석진
2014년 북한실물과 산업동향 평가 및 전망 | 이석기
북한 농업 평가와 2015년 전망 | 김영훈
북한의 대외무역: 2014년 평가 및 2015년 전망 | 이종규

경제 자료

65
2014년 북한경제동향 관련 통계자료 | 남진욱

92
신년사 경제부문 비교(2010~15) 및 국내외 분석자료 | 김 옥

동향과 분석

총론: 2014년 북한경제 평가와 2015년 전망
이 석

2014년 북한 사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
김석진

2014년 북한실물과 산업동향 평가 및 전망
이석기

북한 농업 평가와 2015년 전망
김영훈

북한의 대외무역 : 2014년 평가 및 2015년 전망
이종규

총론: 2014년 북한경제 평가와 2015년 전망

이 석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suklee@kdi.re.kr

Ⅰ. 서 론

이 글의 목적은 2014년의 북한경제 동향과 관련하여 본 「동향과 분석」에 함께 게재되는 네 편의 분야별 논문을 총괄하는 데 있다. 실제로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북한경제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더불어 2014년 북한경제 동향을 분석하는 작업을 실시하여 왔고, 그 결과를 각각 산업생산과 농업, 시장(사경제), 무역 등 네 편의 분야별 동향 논문으로 정리하였다. 이 글은 이렇게 정리된 2014년 북한경제의 각 분야별 동향논문을 개관하고, 이에 대한 총괄적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총괄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동향논문의 내용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들 분야별 동향논문들을 하나로 엮는 총론적인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개발하여, 역으로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각 분야별 동향논문의 의미를 별도의 시각에서 조망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글에서 이러한 총론적인 프레임워크의 개발은 가급적 지양하며, 대신 각 분야별 동향논문의 내용을 단순히 개관하는 데 더욱 집중한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더불어 2014년 북한경제 동향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러한 작업에 참여하는 전문가들 모두가 2014년 북한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었다. 어떤 전문가는 2014년 북한경제가 여전히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자기가 집중하는 분야를 분석하는 반면, 다른 전문가는 2014년 북한경제는 예년에 비해 더욱 침체하였다는

판단 아래 사고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각의 차이가 매우 당연하고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2014년 북한경제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서로 다른 시각을 하나로 묶는 총론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들 시각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제각각의 논의가 더욱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이 글에서는 2014년 북한경제의 각 분야별 분석의 내용을 집약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의 북한경제에 대해 어떻게 서로 다른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는지를 드러내 보이는 데 논의를 집중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제2장에서는 2014년 북한경제의 각 분야별 분석의 내용을 산업생산, 농업, 시장, 대외무역의 순으로 개관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2014년 북한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2015년 북한경제에 대한 서로 다른 전망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II. 분석 – 2014년 북한경제 분야별 동향

2014년 북한경제는 분야별로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특정 분야에서의 경제활동은 매우 활발했던 반면, 다른 분야에서의 경제활동은 예년과 별반 차이가 없었거나 심지어는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는 뜻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2014년 북한경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기에 앞서 이들 각 분야별 움직임을 먼저 각각 살펴보도록 한다.

1. 예년 수준의 산업생산

우선 2014년 북한의 산업생산은 예년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동의되는 관찰 결과이다.[1] 지난해에도 북한의 산업생산이 전반적인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지난해의 산업생산이 예년보다 더욱 악화되었다는 증거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2014년 북한당국은 산업생산에 대해 별달리 많은 강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2015년 발표된 신년사에서도 산업생산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부문이나 수산업과 같이 주로 군대의 활동과 관련 있는 분야만을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1) 이에 대해서는 이 글과 함께 발표될 이석기, 「2014년 북한실물과 산업동향 평가 및 전망」을 참조하라.

그치고 있으며, 북한당국의 산업정책에 있어서도 과거처럼 대규모 토목공사 등을 강조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매우 구체적이고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몇몇 사업 아이템만을 소개하는 것에 국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지난해 북한의 산업생산이 오히려 예년보다 후퇴한 것은 아닌가라는 추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2년 새롭게 등장한 김정은 정권은 경제부문에서 실제로 달성이 불가능한 무리한 생산증대정책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산업생산과 관련한 북한당국의 선전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실제 북한의 산업생산 침체를 의미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뜻이다. 더욱이 지난해 북한에는 산업생산에 긍정적인 두 가지 요인이 존재하였다.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하나는 무연탄과 철광석 같은 전략적 자원의 대중수출 침체로 이들 자원 가운데 북한 내부경제로 돌려지는 몫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비공식 경제부문으로부터 공식경제로 투입되는 자원의 양 또한 꾸준히 증대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이 지난해 북한의 산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요인들은 지난해 북한의 산업생산이 예년보다 더욱 침체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일종의 안전판과 같은 역할만은 충분히 수행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2. 2013년과 거의 동일한 농업생산

또한 지난해 북한의 농업생산 역시 2013년과 거의 대동소이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찰 결과이다.[2] 물론 지난해에는 FAO와 WFP 같은 국제기구가 북한 현지에서 직접 농업생산 결과를 실사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의 정확한 북한 농업생산 실적은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북한당국의 관계자가 언급한 수치를 살펴보면, 지난해 북한의 농업생산은 2013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한국의 농촌진흥청 등이 추정한 지난해 북한의 식량생산 규모 역시 2013년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비록 현재 정확한 수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2014년 북한의 농업생산 규모는 2013년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2013년 북한의 식량과 같은 농업생산은 연간 500만MT을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2014년 북한의 농업생산 실적이 2013년과 유사하다는 의미는 지난해에도 그 절대적인 수준에 있어 북한의 농업생산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2) 이에 대해서는 이 글과 함께 발표될 김영훈, 「북한 농업 평가와 2015년 전망」을 참조하라.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둘째, 그런데 2010년 이후 북한의 농업생산은 매년 꾸준히 증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농업생산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양(+)의 수치를 기록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2014년 북한의 농업생산 실적이 2013년과 유사하다는 의미는 그 증가율의 측면에서는 지난해 북한의 농업생산이 정체를 보였음을 시사한다. 즉, 북한의 농업생산이 절대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았으나, 경제성장률과 같은 거시경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증가율에 있어서는 정체를 보였다는 뜻이다.

〈표 1〉 북한의 식량생산 추이 - FAO/WFP의 현지 실사 결과

(단위: 천M/T)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쌀	1,099	1,339	1,421	2,244	2,370	–	2,336	2,426	2,477	2,681	2,901
옥수수	1,041	1,482	1,651	1,725	1,727	–	1,705	1,683	1,857	2,040	2,002
그 외 곡물	–	–	379	415	378	–	311	331	416	310	364
계	–	–	3,451	4,384	4,475	–	4,352	4,440	4,750	5,031	5,267

자료: FAO/WFP, 「북한의 작황과 식량공급상황에 대한 FAO/WFP 공동조사단 특별보고서」, 각년호.

3. 활발하고 확대되는 시장경제활동

한편, 북한의 비공식 경제 또는 사경제 부문은 지난해에도 꾸준히 증대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3] 특히 지난해에는 북한의 시장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특징적인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 첫째, 그간 급격히 상승하던 북한의 시장물가와 환율 같은 가격변수들이 지난해 일년 내내 대체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시장환율은 지난해 1달러당 7,000 ~ 8,000원(북한)의 수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시장 쌀가격 역시 지난해 kg당 6,000 ~ 7,000원 수준에서 연말에는 4,000 ~ 5,000원 수준으로까지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운수 및 수송, 유통과 같은 서비스업은 물론 건축과 같은 각종 생산활동에 있어서도 시장경제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무엇보다 시장경제에서 축적된 자본이 사회주의 공식부문으로 투입되어 시장경제와 공식경제가 혼합되어 운영되는 이른바 '회색경제지대' 역시 꾸준히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시장경제의 성장과 이를 토대로 한 회색경제지대의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북한당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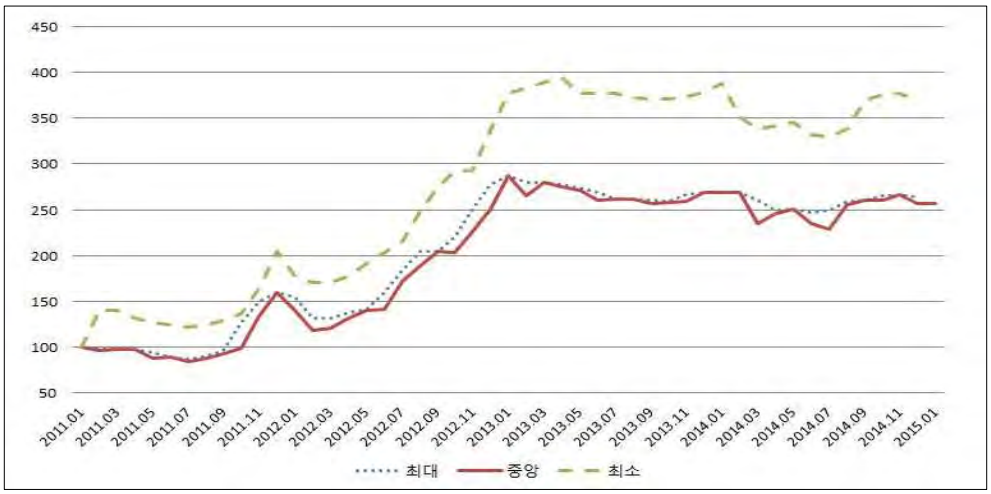
3) 이에 대해서는 이 글과 함께 발표될 김석진, 「2014년 북한 사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을 참조하라.

경제정책 역시 시장을 확대하는 '개혁정책'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았다. 물론 아직 그 정확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여전히 실체조차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과거의 이른바 '6·28방침'에 이은 소위 '5·30조치'와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의 실시 가능성이 지난해 내내 외부 관찰자들의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든 것이다.

[그림 1] 북한의 시장환율 및 쌀가격 추이(2011년 1월 = 100)

시장환율

(단위: %)



쌀가격

(단위: %)

주: 『데일리 NK』의 시장환율 및 쌀값 동향을 KDI가 재구성한 값.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의 특징적인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지난해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 또는 사경제 활동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아니 예년보다 더욱 활발했다는 것이 대체로 동의되는 관찰결과이다. 2000년대 중・후반 잠시 주춤했던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이 김정은 정권의 등장 이후 다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2014년에도 더욱 강화되어 이제 북한경제에서 사적인 경제활동은 비단 시장과 같은 비공식 부문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식 부문에까지 확대되어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가 점차 혼합・운영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4. 북중무역의 감소로 침체에 빠진 대외교역

그런데 이처럼 활발한 비공식 부문과는 대조적으로 지난해 북한의 대외경제 활동은 눈에 띌 정도로 침체한 것으로 나타난다.[4] 특히 그간의 북한 대외무역을 이끌고 온 북한의 대중국 무역이 2014년 초반부터 침체되면서 전체 북한의 대외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행사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북중무역은 2013년에 비해 약 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 이후 2013년까지 북중무역이 연간 5~40%의 신장세를 이어온 점을 감안하면, 2014년의 이러한 북중무역 감소 현상은 보기에 따라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북중무역의 감소는 그간 북한의 대중수출을 주도해 온 무연탄과 철광석 같은 전략물자의 수출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2014년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및 철광석의 수출은 2013년에 비해 각각 18%와 2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무연탄 및 철광석의 수요처인 중국의 철광산업 등이 전반적인 중국경제의 성장률 하락과 공해 산업 등에 대한 감시 강화 등으로 인해 북한산 원료에 대한 수요를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이들 자원의 국제가격마저 크게 하락하는 등 전반적 수출환경이 악화되면서 이들의 대중수출 규모가 줄고, 이것이 다시 전반적인 북중무역 규모를 줄임으로써 북한의 대외무역은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규모 면에서 심각한 침체를 경험한 것이다.

4) 이에 대해서는 이 글과 함께 발표될 이종규, 「북한의 대외무역: 2014년 평가 및 2015년 전망」을 참조하라.

〈표 2〉 북중무역 추이(201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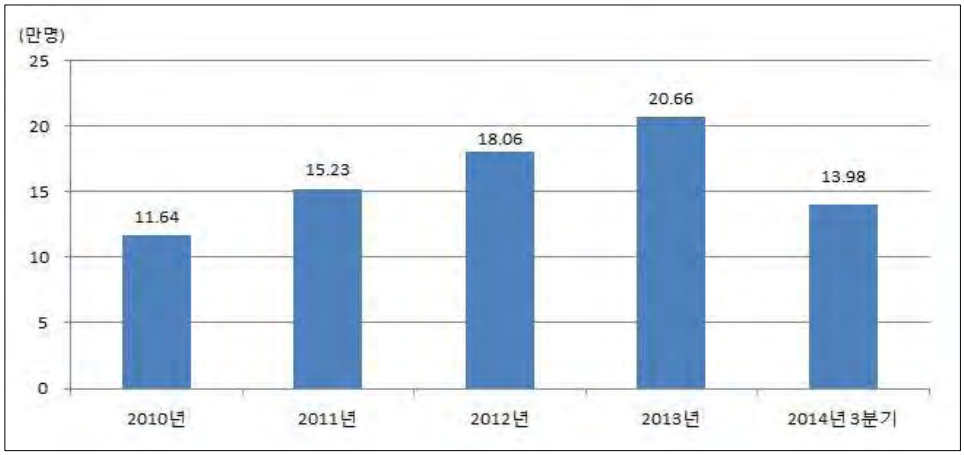
(단위: 천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	1,187,862	2,464,186	2,484,699	2,911,544	2,841,476
수입	2,277,816	3,165,006	3,445,843	3,633,150	3,522,515
계	3,465,678	5,629,192	5,930,542	6,544,694	6,363,991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5. 1. 27.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북중무역의 감소가 전반적인 북중관계의 악화라는 대외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실제로 2014년 들어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전통적인 우방이라는 용어가 무색할 만큼 경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북한 정치권에서 상대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 핵문제와 국경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국의 이견이 심심치 않게 노출되거나, 양국 간 무역과 관련한 현안에 있어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불거져 온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당국이 제공하는 2014년 북중교역 관련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두 가지의 특기할 만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하나는 그간 중국이 매년 북한에 제공하던 50만MT 정도의 원유 수출이 2014년 무역통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2010년 이후 매년 크게 증가하던 북한의 대중국 방문자 수가 2014년에는 2013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의견들이 존재한다. 비록 통계상으로는 2014년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이 존재하지 않지만, 북한 현지에서 석유 부족에 따른 에너지 문제가 아직 불거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 여전히 통계상에는 기록되지 않는 원유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표적이다. 또한 설사 2014년에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인의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북중관계의 악화나 북중무역의 침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들을 현재의 시점에서 무조건 옳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두 가지 현상은 2010년 이후 북중관계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현상임이 분명하다. 비록 현재의 수준에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2014년 북한의 대외무역이 침체한 또 다른 원인이 바로 전통적 우방인 북한과 중국 사이의 전반적 관계 악화 때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림 2] 북한의 대중국 방문자 수 추이(2010~2014년 3사분기)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China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http://www.cnta.gov.cn/).

Ⅲ. 평가와 전망 - 2014년 vs. 2015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4년 북한의 거시경제 동향은 크게 네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2013년과 비교해 볼 때 2014년 북한의 산업생산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둘째, 북한의 농업생산 역시 2013년과 비교하여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북한의 시장 또는 비공식 부문에서의 경제활동은 2014년에 들어 더욱 활발했던 것으로 관찰된다. 넷째, 그러나 북한의 대외무역은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정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그간의 북한 대외무역을 이끌고 온 북중무역 규모는 2014년에 들어 전년 대비 3% 가까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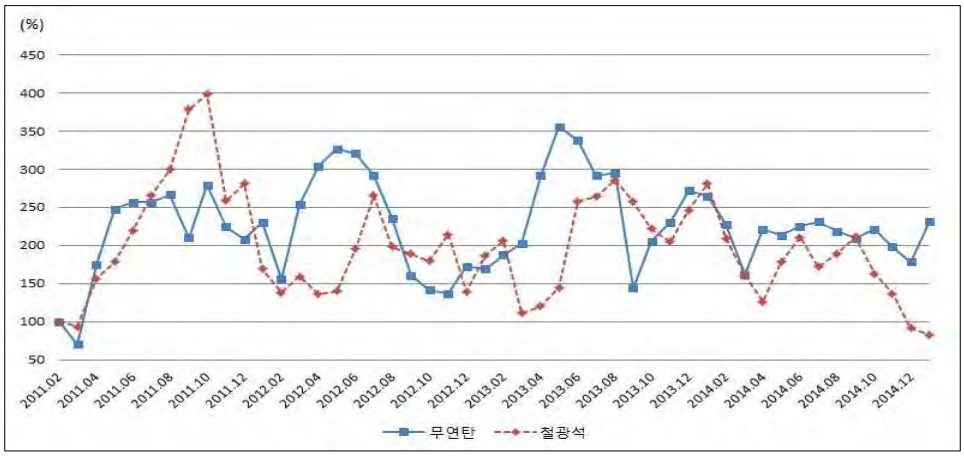
1. 2014년 북한경제 평가에 대한 두 가지 시각

그런데 2014년의 이러한 네 가지의 경제동향을 서로 어떻게 연결하는가에 따라 지난해 북한경제에 대한 판단은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의 차이는 북한의 시장과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각각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실제로 김정은 정권의 등장 이후 북한경제는 크게 두 가지의 요인을 축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하나는 북한

내부의 시장 또는 비공식 경제활동이며, 다른 하나는 대외무역 특히 북중무역이 바로 그것이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미 형해화된 공식 부문의 경제활동을 비공식 부문의 경제활동이 점진적으로 대체하여 왔으며, 북한 외부에서는 북·중 간 무역을 통해 획득한 경제적 편익이 전체 북한경제를 떠받치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대내적으로 시장활동이 활발해지고 대외적으로 북중무역이 확대되는 경우 북한경제 전반이 과거보다 더욱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인 반면, 반대로 대내적인 시장활동이 통제되고 북중무역마저 침체되는 경우 북한경제는 과거보다 더욱 후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014년 북한경제에서는 이 두 가지 중심축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중심축 가운데 과연 어떤 부문에 더 큰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 2014년 북한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북한경제는 주로 북한 내부의 비공식 경제활동에 의해 움직인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2014년 북한경제는 2013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호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2014년에는 북한의 시장가격 변수들이 모두 안정되고, 시장경제 활동이 더욱 촉진되어 이제는 공식 부문으로까지 확장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북한당국 역시 시장 메커니즘을 인정하는 각종 경제개혁조치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반적인 북한경제에 활력이 넘칠 수밖에 없다. 비록 공식 부문의 산업생산이 여전히 부진하고 대외무역에서 일정 정도 부정적 영향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들 변수가 시장을 통한 경제활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림 3]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및 철광석 수출가격 추이(2011년 1월 = 100)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5. 1. 27.

그러나 정반대로 만일 현재의 북한경제가 주로 대외무역, 특히 북중무역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2014년 북한경제는 부정적으로 묘사될 수밖에 없다. 2014년에는 예년과는 반대로 북중무역 규모가 감소하고, 북한의 전략적 자원수출이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전반적인 북중관계의 경색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양국 간 인적교류 역시 줄어드는 등 2000년대 이후 처음으로 대외무역에서의 부정적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2014년 북한 내부의 시장경제활동은 어느 때보다 활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경우의 시장경제활동은 대외무역에서의 충격을 주민들 차원에서 완화하여 주민들의 경제생활 자체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지, 결코 북한의 거시경제 전반이 침체를 보이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 결과 2014년 북한경제는 2010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침체의 가능성이 높은 한 해를 맞이했을 것이다.

2. 2015년 북한경제 전망에 대한 두 가지 시각

흥미로운 사실은 현재 외부 관찰자들 사이에서는 2014년 북한경제와 관련하여 이처럼 다른 판단과 시각이 서로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2014년의 전반적인 북한경제에 대해 서로 다른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 우리의 주위를 조금만 살펴보면 북한의 경제상태가 상대적으로 '좋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또한 동시에 이와는 반대로 북한의 경제상태가 '어렵다'고 말하는 전문가들 역시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현실에 더욱 근접한 것일까? 매우 아쉽게도 현재 우리의 수준으로는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내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답변에 필요한 북한의 객관적 거시경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2014년 북한경제에 대해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가 모두 가능하다고 말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2014년 북한경제에 대해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가 모두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2015년 올해의 북한경제에 대해서도 아마 부정적 전망과 긍정적 전망이 모두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우선 올해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경우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욱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3]은 2010년 이후 북한의 대중 무연탄 및 철광석의 수출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들 자원의 수출가격은 2013년 중·후반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그렇지만 뚜렷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올해는 과연 어떨까?

아마도 이러한 하락 추세는 올해에도 지속되어 쉽게 반전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국제적인 석유가격의 움직임에서 볼 수 있듯이 2015년에는 국제시장에서 전반적인 자원가격의 하락세가 어느 정도 지속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에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에 비해 더욱 떨어지리라는 예상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상은 북한 자원에 대한 중국의 수요도 앞으로 당분간은 더욱 침체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명심해야 할 점은 올해 우리가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이러한 '대중국 자원 수출가격 및 수출 수요의 하락 → 이에 따른 자원 수출규모의 하락 → 전반적 북중교역 규모의 감소'라는 현상을 매우 뚜렷이 목격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에서 우리가 언급한 올해 국제시장에서의 부정적 자원가격 움직임과 중국경제의 성장률 정체 전망은 곧 지난해 우리가 북중무역에서 보았던 부정적 현상이 올해에는 더욱 증폭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누군가가 대외무역에서의 움직임을 토대로 올해 북한경제를 전망한다면 그 결과는 북한경제에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반면, 올해 북한의 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앞에서 우리는 2014년 북한의 시장경제활동이 더욱 활발해져 심지어는 공식부문으로까지 침투하고 있으며, 북한당국 역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제정책을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응당 이러한 현상은 올해에도 더욱 증폭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자원 및 경제 운영상의 이념에 있어 일정한 제약요인들을 북한당국이 주도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 내는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의 호주머니 속에 이러한 경제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 각종 자원들을 이미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올해의 북한경제 전망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이미 탄력이 붙은 북한 주민들의 시장경제 활동이 더욱 확대되고, 이들이 침체에 빠진 공식 부문에까지 진출하여 이를 새롭게 운영하는 현상이 확산될 것이고, 북한당국 역시 이러한 현상을 승인하고 부추기는 모습을 더욱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북한경제의 기존 추세가 2014년에 이어 올해에도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2014년에 이어 2015년 올해 북한경제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그 무게중심을 대외무역에 두는가, 아니면 시장활동에 두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전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응당 이러한 전망 가운데 어느 것이 더욱 현실적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로서는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설적으로 올해 북한경제가 과연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관찰하는 경우 그 결과는 비단 앞서의 전망들에 대한 판가름은 물론 2014년 북한경제를

둘러싼 현재의 엇갈리는 시각들 자체를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이 글에서 우리는 2014년 북한경제에 대한 각 분야별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의 북한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을 대비하여 보았다.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2015년 북한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 역시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글에서 도달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북한경제의 움직임은 크게 네 가지로 집약된다. ① 우선 산업부문 생산은 예년과 유사하게 상대적으로 크게 활발하거나 침체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② 농업생산 역시 2013년과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③ 시장 또는 비공식 경제활동은 매우 활발하여, 공식 부문에까지 일부 침투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전반적인 시장가격 변수 역시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당국 역시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을 용인하고, 부추기며, 또한 일부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④ 북한의 대외무역은 북중무역을 중심으로 침체 또는 하락세를 보였다. 북중무역 규모가 2000년대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무연탄과 철광석 같은 전략물자의 대중 수출환경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통계상으로 중국의 원유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0년 이후 줄곧 상승세를 보이던 북한의 대중국 방문자 수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4년 북한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모두 가능하다. 긍정적 평가는 시장 또는 비공식 경제활동에 중점을 두고 2014년에도 북한경제는 여전히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대외무역에서의 침체에 강조점을 두고, 2014년 북한경제는 2010년 이후 최초로 북중무역 및 이에 따른 대외무역의 감소라는 충격을 경험하는 등 예년에 비해 더욱 침체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셋째, 2015년 북한경제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모두 가능하다. 우선 부정적 평가는 2014년에 나타난 북한 대외무역의 부정적 요인들이 2015년에는 더욱 증폭되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북한경제가 올해에는 한층 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반면, 긍정적 평가는 북한 주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추진하는 시장경제활동이 올해에는 더욱 확산되고, 여기에 북한당국이 이를 제도화하는 정책적 시도가 더해질 경우 북한경제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장활동을 중심으로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중국여유국(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 통계데이터베이스(2015. 1. 27 검색).
한국무역협회(KITA), 통계데이터베이스(2015. 1. 27 검색).

FAO/WFP,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각년호.

2014년 북한 사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

김석진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kimsj@kinu.or.kr

Ⅰ. 머리말

오늘의 북한경제는 국영경제(공식경제)와 사경제(비공식경제)가 공존하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전통적 사회주의 시대에도 사경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비중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1990년대 초중반 국영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 후에는 많은 주민들이 개인장사나 개인농사 등 사경제 활동을 통해 생계를 해결해야 했다. 최근의 여러 연구에 의하면, 사경제 활동은 적어도 절반 이상의 북한 주민에게 주된 소득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1] 즉, 사경제 동향은 일반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년 가까이 북한의 사경제는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2014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2] 북한당국도 사경제를 일방적으로 억압하기보다는 적정 한도 내에서 허용하며 활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이 사경제에 대해 비교적 유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사경제가 중요한 재정 수입원이 되고 있고, 국영경제와 사경제 사이에 공생 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북한의 사경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병연・양문수, 『북한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참조.
2) 북한 사경제 및 시장의 장기 추세에 대해서는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구조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6월호; 김석진・양문수,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통일연구원, 2014 참조.

Ⅱ. 2014년 북한의 사경제 동향

이 절에서는 북한의 사경제가 2014년에 어떤 동향을 보였는지,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3] 사경제 동향은 주로 『데일리NK』, 『자유아시아방송』 등 대북 소식지가 전한 뉴스를 활용해 정리한다.

1. 소비재시장

오늘날 많은 북한주민들은 국영상점이 아니라 시장에서 개인 상인들로부터 각종 소비재(식품, 생필품 및 기타 소비재)를 구매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재의 시장 유통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2010년 이후 북한의 소비재시장은 큰 문제없이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북 소식지들이 전한 바에 의하면, 2014년에도 이런 사정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월에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최근 북한 보안서에서 장마당 통제를 느슨하게 하고 물건을 빼앗는 가혹행위가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4] 7월에도 평양의 한 소식통은 "최근엔 시장 관련해선 이렇다 할 '포치'(지시)가 내려온 게 없어 장사꾼들이 편하게 물건을 팔고 있다"고 말했다.[5]

소비재시장이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식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시장에서 쌀 판매가 늘어나면서 가격과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북한 쌀이 과거와 달리 상당히 고급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6] 깨끗한 종이봉투나 다양한 디자인의 쇼핑백 등 과거보다 좋은 포장용기에 상품을 넣어 파는 관행이 생겼다는 소식과 평양시 당국이 매장, 매대들을 점검해 내·외부 장식을 지시했다는 소식도 유통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보로 해석할 만하다.[7] 샘물을 사고파는 물 시장이 생겨나고 있고, 음식을 주문받아 배달해 주는 신종 사업이 등장했으며, 과거에는 장마당에서 볼 수 없었던 쇠고기도 살 수

3) 2014년 상반기 동향은 이미 양문수가 보고한 바 있지만, 여기에서는 일부 내용 중복이 있더라도 2014년 전체 동향을 함께 정리해 본다. 양문수, 「2014년 상반기 북한의 시장 동향과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7월호 참조.
4) 「북, 민심 얻으려 장마당 완화」, 『자유아시아방송』, 2014. 2. 19.
5) 「북, 쌀값 등 물가 안정에도 돼지고기 한 달 새 3000원↑」, 『데일리NK』, 2014. 7. 18.
6) 「북한, 상점과 장마당서 쌀 가격·서비스 경쟁 시작돼」, 『데일리NK』, 2014. 7. 18; 「북한 쌀이 묵은 때를 벗은 이유」, 『자유아시아방송』, 2014. 10. 7.
7) 「북 장마당, 포장재 사용 경쟁력 강화」, 『자유아시아방송』, 2014. 8. 8; 「북, 매대 리모델링 지시… 일부 폐쇄」, 『자유아시아방송』, 2014. 10. 13.

있게 되는 등 판매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식도 전해졌다.[8)]

부정적인 소식도 없지는 않았다. 7월에 양강도와 함경북도 등 국경지방 소식통은 장사꾼들이 크게 줄어 일부 장마당이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9)] 그런데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그 이유를 당국이 시장을 더 강하게 단속하거나 경제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식량사정이 나아지면서 쌀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마당에 대한 다른 소식들과 비교해 보면, 장사꾼이 줄거나 장마당이 문을 닫은 것은 북한의 전반적 현상이 아니라 국지적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이 '장세(장마당 세금)'를 올렸다는 소식도 주목할 만하다. 여러 현지 소식통은 북한당국이 4월 26일부터 장세를 일제히 올렸다고 전했다.[10)] 이 기사에 의하면, 장사 품목에 따라 장세가 다른데, 천이나 기성복, 쌀 장사꾼이 내야 하는 장세는 하루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랐고, 두부나 비지, 잡화류의 장세는 150원에서 350원으로 올랐다고 한다.[11)] 또 이렇게 200원씩 올린 장세는 임시적인 인상 조치이고 정확한 장세는 9월이 되어야 확정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장세 인상 폭이 확정되었다는 추가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고, 북한당국의 공식 발표도 없어 실제 장세 징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장세가 인상되었다면, 그 의미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긍정적인 해석은 이제는 장세를 인상해도 될 만큼 시장 상인들의 수입이 그동안 제법 올랐다는 것이다. 반면 북한당국이 무리하게 장세를 인상한 결과, 개인 상인들의 장사가 위축되고 장사로 먹고사는 많은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나빠질 것이라고 해석해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구할 수 없어 어느 쪽 해석이 옳은지를 판별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두 가지 성격이 공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즉, 어느 정도 상인들의 수입이 올라서 장세 인상이 가능해졌지만, 장세 인상 조치 자체는 시장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장세 인상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그 후 시장활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후속 뉴스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상황을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

8) 「북한 시장서 샘물 거래돼…, 시장화 바람 확산」, 『데일리NK』, 2014. 9. 26; 「북, 음식 배달하는 신종업체 등장」, 『자유아시아방송』, 2014. 4. 8; 「북 장마당서 쇠고기 구매 가능」, 『자유아시아방송』, 2014. 9. 11.
9) 「북, 장마당 '깨비' 장사만 늘어」, 『자유아시아방송』, 2014. 7. 18.
10) 「북, '장마당 세금' 일제히 대폭 올려」, 『자유아시아방송』, 2014. 5. 9.
11) 북한 장마당의 장세는 지역과 상품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2009~12년 시기 회령시장의 품목별 장세를 상세하게 조사 보고한 다음 연구가 좋은 참고가 된다. 곽인옥, 「북한시장의 실태분석 및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2013 북한 및 통일 관련 신진연구 논문집』, 통일부, 2013, pp.113~114.

2. 개인 사업가와 '8·3 노동자'

사경제의 확대는 많은 북한 주민이 개인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개인 사업가라 해도 대부분의 주민은 영세한 장사꾼에 불과하며 그들이 얻는 소득은 간신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유능한 사람들은 꽤 많은 돈을 벌어 상당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사업형 기업가'들을 북한에서 '돈주'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에 관해 2014년 북에서 전해진 중요한 소식 중 하나는 부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평성과 순천의 돈주들은 이미 50~60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쌓아둔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벌써부터 돈을 굴리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전했다.[12] 국영 무역회사들이 개인 사업가들과 동업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흥미롭다. 한 소식통은 "과거 김정일 시대부터 음성적으로 행해지던 이 같은 불법 개별 무역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 대폭 증가했으며, 당국의 단속 또한 느슨해졌다"고 전했다.[13] 돈을 많이 번 사업가 중 일부는 고리대 사채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4년에도 이런 사채업이 계속 성행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14] 『자유아시아방송』은 여러 소식을 종합해 "지난 3년간 김정은 체제가 내건 새로운 경제관리조치에 힘입어 북한 돈주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상당히 제고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15]

많은 북한 주민들이 사경제 활동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국영기업·국가기관의 근로자(노동자 및 사무원) 통제체계가 상당히 느슨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16] 전통적 사회주의 제도에 의하면, 대다수 성인들은 국가가 지정하는 직장에 배치되어 일해야 하며, 텃밭 가꾸기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사경제·사기업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북한의 국영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면서 주민들의 생계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사경제 활동에 뛰어들게 되었다.

국영기업·국가기관 소속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고 장사를 하러 다니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오래전부터 '8·3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 합법화되었다. '8·3 노동'이란 1984년 8월 3일 김정일의 주도로 시작된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래는

---

12) 「북 장마당도 부익부 빈익빈 고착」, 『자유아시아방송』, 2014. 5. 2.
13) 「북 무역회사-개인자본가 '동업' 급증」, 『자유아시아방송』, 2014. 5. 14.
14) 「북 사채업자, 연 60% 고리대 장사」, 『자유아시아방송』, 2014. 11. 20. 북한의 사금융 실태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은 임을출,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양태, 함의 및 과제」, 『제1회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 10. 참조.
15) 「북한 돈주, 경제 좌지우지」, 『자유아시아방송』, 2014. 12. 15.
16) 이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공용철, 「북한의 노동시장 형성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참조.

공장・기업소의 부업 생산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뭔가 비공식적인 성격을 일컫는 일반 형용사처럼 쓰이게 되었다. 이런 용례에 따라 경제난 이후 국영 직장에 적을 두고 있긴 하지만 해당 직장에 일정 금액의 돈('8・3 돈')을 납부하는 대신 돈벌이를 하러 다녀도 좋도록 허락받은 노동자들을 '8・3 노동자'라고 부르게 되었다.

최근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이런 8・3 문화는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기관・기업소 간부들은 상부에서 떨어진 '충성의 외화자금' 상납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출근하지 말고 밖에 나가 돈을 벌어 '8・3 돈'을 납부할 것을 권고하고"[17] 있으며, 이런 8・3 문화는 사회 곳곳으로 스며들어 8・3 계층이 일반화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18]

3. 운수업과 통신업

교통과 통신은 경제활동을 매개하는 필수적 수단이며, 사경제 역시 교통과 통신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최근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을 보면, 북한에서도 교통・통신 수단이 점점 발전해 사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19]

먼저 교통 측면에서는 '벌이 버스'에 대한 소식이 흥미롭다. 벌이 버스란 개인들이 운영하는 장거리 시외버스를 가리킨다. 북한에서 장거리 시외버스는 10여 년 전부터 다니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으로부터의 버스 수입 추세를 볼 때 최근 몇 년 사이에 시외버스의 수가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국영철도의 운영이 부실해진 후로 사경제 활동에 필요한 사람과 화물의 운송에 흔히 '서비차'(또는 '써비차')로 불리는 기업・기관 소속 트럭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에 버스까지 가세한 셈이다. 벌이 버스는 국가기관 명의로 등록하되 실제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서비차도 그런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개인들이 운영하는 '벌이 버스'들이 열차보다 3배 이상 빠르게 다녀 교통난을 풀어주고 있다"고 한다.[20] 벌이 버스는 사람과 화물의 단순 운송만이 아니라 소포 운송업까지 해준다고 한다. 소포 운송업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짐을 부치려는 사람이 벌이 버스 운전사를 찾아가 짐을 맡기는 동시에 운전사의 손전화 번호를 받아 수취인,

17) 「북 간부들, '충성의 외화자금' 확보 위해 노동자 닦달」, 『데일리NK』, 2014. 7. 2.
18) 「북한서 8・3 문화 시장 확산으로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다」, 『데일리NK』, 2014. 8. 4.
19)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이 저소득 개발도상국과 북한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은 김석진・양문수,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통일연구원, 2014, pp.151~169 참조.
20) 「개인 운영 '벌이 버스' 북한 만성 교통난 해소」, 『자유아시아방송』, 2014. 6. 2.

즉 받을 사람에게 알려준다. … 물건 전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송비용은 받는 사람이 지불한다. … 짐을 떼먹었다고 소문이 나쁘게 나면 버스업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적으로 전달해 준다."[21]

오토바이 이용도 늘고 있다고 한다. 신의주의 한 소식통은 "오토바이가 시장 유통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품이 됐다"고 전했다.[22] 북한에서 개인용 교통수단으로는 대개 자전거가 이용되고 있으며, 자전거 보급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자전거 이용은 소득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득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자전거에서 오토바이로, 오토바이에서 승용차로 개인용 교통수단의 중심이 바뀌게 된다. 또 버스, 전철 같은 대중교통이 발전함에 따라 자전거 이용이 감소하게 된다. 이런 일반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북한에서 최근 오토바이 이용이 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북한에서 오토바이 이용은 평양이나 신의주처럼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현상으로 보이며, 오토바이 보급이 일반화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택시 영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평양과 나진·선봉에서는 오래전부터 택시가 있었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그 수가 꽤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2014년에는 평성과 순천, 해주 같은 지방도시에도 택시가 등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24] 택시는 대개 국가기관인 운수사업소에 등록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투자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방도시의 택시는 이제 막 등장했고 숫자도 많지 않지만, 개인 운수업의 범위와 활동지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로 간주할 만하다.

이동전화의 보급도 사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북한에서 이동전화 서비스는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Orascom)과 북한 체신성 산하 조선체신회사가 함께 설립한 국영합작회사 '고려링크'가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는 국영경제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동전화는 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각종 개인 사업가들에게 매우 편리한 통신수단이어서 이동전화 보급에 따라 사경제의 생산성 향상 및 규모 확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25]

오라스콤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표 1〉에서 보듯이 2010년부터

---

21) 「북, '벌이 버스' 통한 개인 운송업 활발」, 『자유아시아방송』, 2014. 4. 25.
22) 「북 남성들 사이에서 오토바이 인기 … 시장유통 수단 이용」, 『데일리NK』, 2014. 5. 29.
23) 채순, 「개인소유의 수위는 어디까지 올라왔나?」, 『임진강』, 제9호, 2010.
24) 「북한 지방도시서 개인택시 영업 … 하루 수입 100달러」, 『데일리NK』, 2014. 9. 11; 「북한 지방도시에도 택시 등장」, 『자유아시아방송』, 2014. 11. 5.
25) 북한의 이동전화 도입 경위 및 보급 실태에 대해서는 김연호,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 실태: 북한의 통신혁명은 시작되었는가?」,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미국의 소리(VOA) 특별보고서, 2014; 류현정, 「북한의 이중 휴대전화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참조.

급격히 늘기 시작해 2014년 2사분기에 240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러한 숫자는 중국무역통계에서 확인되는 북한의 대중국 휴대폰 수입대수 추이에 비춰볼 때 대체로 믿을 만해 보인다. 북한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013년에는 많이 늘지 않아 시장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4년에 휴대폰 수입대수가 다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아 가입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구입대금과 통신요금이 적지 않은 부담인데도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이동전화의 유용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표 1〉 북한의 휴대폰 수입대수 및 이동전화 가입자 수 추이

(단위: 대, 명)

대중국 휴대폰 수입대수		이동전화 가입자 수	
2008년	28,586	2008년 4사분기	1,694
2009년	68,885	2009년 4사분기	91,704
2010년	432,878	2010년 4사분기	431,919
2011년	687,938	2011년 3사분기	809,000
2012년	949,029	2012년 1사분기	1,000,000
2013년	586,044	2013년 2사분기	2,000,000
2014년	1,051,734	2014년 2사분기	2,400,000

주: 가입자 수는 각 분기 말 기준(단, 100만명 돌파는 2012년 2월, 200만명 돌파는 2013년 5월).

자료: 1) 휴대폰(HS 851712) 수입대수: UN Comtrade database(2008~2013) 및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2014).

2) 이동전화 가입자 수: Orascom Telecom, 2008~2011 Earnings Press Release; OTMT Press Releases(류현정, 「북한의 이중 휴대전화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p.50; 김연호,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 실태: 북한의 통신혁명은 시작되었는가?」,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미국의 소리(VOA) 특별 보고서, 2014, p.12; North Korea Tech, "Koryolink Subscriptions Hit 2.4 Million," September 8, 2014에서 재인용).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평양 등 대도시만이 아니라 전국 대부분 도시 및 일부 농촌 지역에까지 설치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라스콤의 발표에 의하면 이미 2011년 3사분기에 고려링크 이동통신 서비스가 북한 영토의 14%를 커버했으며, 해당 지역에는 북한 총인구의 94%가 살고 있다고 한다.[26] 이동전화의 전국적 보급은 북한 사경제의 성장이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 현상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이다.

26) 김연호, 앞의 글, p.11.

4. 주택시장

북한 사경제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는 주택시장 동향에서도 잘 드러난다. 본래 북한의 주택은 개인소유가 아니라 주택공급제도에 따라 국가로부터 배정받아 주택 사용료를 내며 사용하는 공공주택이다.[27] 그런데 경제난 이후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음성적으로 주택시장이 생겨났고, 개인 사업자들이 주택을 건설해 파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2014년에 전해진 몇몇 소식을 보면, 음성적인 주택 매매와 건설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연초에는 평양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2013년 가을부터 집값(외화 기준)이 크게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28] 그러나 봄이 되자 다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쌀값이 안정되니 집 사겠다는 주민들이 많아졌다"고 전했으며, 양강도의 소식통도 혜산의 아파트가격(중국 위안화 기준)이 올랐다고 전했다.[29] 전체 주택 수에 비해 매매 주택 수가 적은 편이고 주택 매매 자체가 음성적이다 보니 단기적 가격변동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추세에 대한 소식도 나왔다.[30] 한 소식통은 평안남도 개천시에도 1만달러가 넘는 아파트가 적지 않고 지난 10년 새 주택가격이 5배나 뛰었다고 전했다. 또 같은 기사에서 다른 소식통은 "평양이나 신의주에서는 예전부터 달러로 집이 매매되기 시작했는데, 뒤따라 평성과 순천 등 도매상권이 발달한 지방에서도 달러로 집이 거래되기 시작했다"고 전하면서 북한의 부동산가격은 여전히 상승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주택 여러 채를 가지고 월세 임대업을 하는 신흥부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도 주목할 만하다.[31] 이런 현상은 북한의 비공식적 사유화 현상이 더 자본주의적인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최근에는 음성적으로 행해지던 주택 거래를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나왔다. 평양에 국가가 운영하는 주택거래소가 문을 열었고 여기를 통해 일정 수수료를 내면 공식적으로 주택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32] 같은 기사에서는 북한당국이 평양 10만 가구 살림집 건설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개인 사업가들에게 투자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당국이 주택 매매와 건설의 사경제화 현상을 공식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 된다. 아직은 전해진 소식이 충분치 않아 주택시장의 공식화가

---

27)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2』, 자료원, 1995, pp.250~263 참조.
28) 「북, 집값 폭락으로 물가도 하락」, 『자유아시아방송』, 2014. 1. 7.
29) 「북, 쌀값 안정에 집값 올라… 역 부근 아파트 2만달러」, 『데일리NK』, 2014. 4. 11.
30) 「북 지방 도시도 집값 10년 새 5배 올라」, 『자유아시아방송』, 2014. 8. 11.
31) 「북한의 알짜 부자는 월세업자들」, 『자유아시아방송』, 2014. 10. 28.
32) 「평양에 생긴 주택거래소, 사적 소유 인정 신호탄인가」(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 사이), 『동아일보』, 2014. 12. 16.

북한당국의 확실한 정책방향인지 알 수 없으나, 주택의 시장화·사유화 현상을 당국이 대체로 묵인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Ⅲ. 사경제에 대한 북한당국의 정책

1. 재정 수입원으로서 사경제의 역할

북한당국은 왜 사경제를 강력히 억압하지 않고 대체로 묵인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일까? 기본적 이유는 전통적 사회주의 체제, 즉 국영 계획경제를 복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많은 주민들이 사경제 활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므로, 먼저 국영경제를 복원해 주민들의 생계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사경제 단속도 가능해진다. 북한당국은 2000년대 초부터 국영 산업부문을 재건하려고 나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북한의 전통적 자력갱생형 제조업은 기술과 설비가 낙후하고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오랜 체제위기를 거치면서 일반주민뿐만 아니라 엘리트 집단의 사회정치적 기강이 많이 해이해진 점도 국영 계획경제의 재건과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사경제에 대한 정책은 북한정권의 경제적 통치기반인 국가재정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래 사회주의 국가의 재정수입은 주로 국영기업을 통해(북한의 경우 '국가기업 이익금' 및 '거래수입금'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국영경제의 위기는 곧 국가재정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지난 10여 년간 북한당국과 국영기업·국가기관은 사경제를 활용하여 재정 사정을 조금씩 개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사경제로부터 공식적 및 비공식적으로 재정수입을 징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을 개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장세(시장 사용료)'가 있다. 북한당국은 2003년에 '종합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시장 허용 정책을 실시한 이후로 시장에 고정된 매점과 매대를 가지고 장사하는 상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장세 인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 절에서 언급한 '8·3 노동자'도 중요한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다. 소속 노동자들로부터 국영기업·국가기관이 상납받은 '8·3 돈' 중 적어도 일부는 국가재정으로 들어갈 것이다. 또 개인 사업가들 중 상당수가 국영기업·국가기관 명의와 건물 등을 빌려 사업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해당 기업・기관에 상납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 부분도 국가재정으로 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최근에 활발해진 이동전화 사업도 중요한 재정 수입원일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의 사경제는 대체로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국가재정의 사경제 의존도는 상당히 높아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따라서 북한당국 입장에서는 사경제를 억압하기보다는 적정 수준에서 허용하며 활용하는 것이 자신들의 경제적 통치기반을 다지는 데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일 것이다.

2.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사경제에 미칠 영향

지난 몇 년 동안 북한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개혁 정책, 즉 '우리식 경제관리방법'도 사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제까지 알려진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국영기업, 국가기관, 협동농장 등 국영경제의 관리제도 개혁을 의미하며, 주된 내용은 각 조직의 자율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관리자 및 근로자들에게 물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33] 2014년에는 김정은의 '5・30 담화'를 계기로 더 과감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34]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세부 내용이 무엇인지, 이 정책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얼마나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개혁 정책의 효과가 어떨지를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상당수의 국영기업・국가기관이 이미 사경제 및 개인 사업가들과 협력・공생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35]을 감안할 때, 개혁 정책은 새로운 조치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기존 현실에 대한 사후적 추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하지만 당국이 국영기업・국가기관의 자율권을 확실히 인정하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집행한다면, 이미 벌어지고 있는 사경제화 현상, 그리고 국영경제와 사경제의 공생관계가 더욱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33)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은 박형중, 「북한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6・28 방침)의 내용과 실행 실태」,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10월호; 양문수,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혁과 시장화」, 양문수 편, 『김정은 시대의 경제와 사회: 국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 한울, 2014; 김석진, 「북한의 경제관리방법 개혁 동향과 전망」, 『통일경제』, 2013년 겨울호; 김석진,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 실태와 전망」, 『국가안보전략』, 2014년 7월호 참조.

34) 진징이,「북한의 조용한 변화와 남북관계」, 『한겨레신문』, 2014. 9. 22; 「'5・30 문건'과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정창현의 김정은 시대 북한 읽기), 『통일뉴스』, 2014. 12. 8; 「김정은 '5・30 담화'와 내각 상무조」, 『통일뉴스』, 2015. 1. 6.

35) 김석진・양문수,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통일연구원, 2014, pp.56~68, pp.117~118, pp.147~148 참조.

Ⅳ. 맺음말

북에서 전해진 여러 소식을 종합해 볼 때, 2014년에도 북한의 사경제는 점진적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판매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고 제품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소식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많은 주민들이 사실상 소속 직장을 떠나 사경제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단속하기보다 오히려 권고하는 경우도 많으며, 국영기업・국가기관과 연계하여 개인 사업을 벌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개인 사업가들에 의한 비공식 운수업이 확산되고 있고 이동통신 이용자 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보적이나마 주택시장이 생겨났고 개인 사업가들이 주택을 건설해 파는 사례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사경제에 대해 대체로 유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는 사경제가 중요한 재정 수입원이 되고 있고 국영경제와 사경제 사이에 공생관계가 성립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북한당국은 앞으로도 사경제를 크게 억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사경제의 자생적인 성장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사경제가 전면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북한의 공식 제도와 이념은 여전히 사회주의의 틀 내에 머물러 있으며, 사경제는 대체로 비공식적이고 자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론 북한당국이 사경제에 대해 유화적이어서 이제는 대부분의 사경제 활동이 불법이라기보다는 반(半)합법적인 지위를 갖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사유재산권의 인정과 보호, 경제활동의 자유와 계약 이행에 대한 보장 등 시장경제체제를 뒷받침하는 법률과 제도는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북한의 사경제는 대체로 영세한 생계형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기업형 사경제는 국영기업・기관과의 연계 하에 '붉은 모자'를 쓴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사경제・사기업 활동은 신변 위협, 재산권 박탈, 부패한 관료 및 정권의 수탈 등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고도 경제성장에 필요한 적극적 투자와 혁신 활동이 일어나기 어렵다. 최근 북한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사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경제의 전면적 발전을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공개적인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공용철, 「북한의 노동시장 형성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곽인옥, 「북한시장의 실태분석 및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2013 북한 및 통일 관련 신진연구 논문집』, 통일부, 2013.
김병연・양문수, 『북한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김석진,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 실태와 전망」, 『국가안보전략』, 2014년 7월호.
김석진, 「북한의 경제관리방법 개혁 동향과 전망」, 『통일경제』, 2013년 겨울호.
김석진・양문수,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통일연구원, 2014.
김연호,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 실태: 북한의 통신혁명은 시작되었는가?」,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미국의 소리(VOA) 특별보고서, 2014.
류현정, 「북한의 이중 휴대전화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박형중, 「북한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6・28 방침)의 내용과 실행 실태」,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10월호.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2』, 자료원, 1995.
양문수, 「2014년 상반기 북한의 시장 동향과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7월호.
양문수,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혁과 시장화」, 양문수 편, 『김정은 시대의 경제와 사회: 국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 한울, 2014.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구조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6월호.
임을출,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양태, 함의 및 과제」, 『제1회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 10.
채순, 「개인소유의 수위는 어디까지 올라왔나?」, 『임진강』, 제9호, 2010.

『동아일보』, 2014. 12. 16.
『데일리NK』, 2014. 4. 11; 2014. 5. 29; 2014. 7. 2; 2014. 7. 18; 2014. 8. 4; 2014. 9. 11; 2014. 9. 26.
『자유아시아방송』, 2014. 1. 7; 2014. 2. 19; 2014. 4. 8; 2014. 4. 25; 2014. 5. 2; 2014. 5. 9; 2014. 5. 14; 2014. 6. 2; 2014. 7. 18; 2014. 8. 8; 2014. 9. 11; 2014. 8. 11;

2014. 10. 7; 2014. 10. 13; 2014. 10. 28; 2014. 11. 5; 2014. 11. 20; 2014. 12. 15.
『통일뉴스』, 2015. 1. 6; 2014. 12. 8.
『한겨레신문』, 2014. 9. 22.

2014년 북한실물과 산업동향 평가 및 전망

이석기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sklee@kiet.re.kr

Ⅰ. 개 관

2014년 북한경제는 신년사에서 밝힌 농업・건설・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자체적인 노력을 통하여 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는 유기질 비료의 생산 및 공급 확대 등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이며, 화학비료 부문의 생산성과도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년에 비해 수산업이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 일부 성과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1].

농업과 함께 강조된 건설부문에서는 특이한 동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간석지 개발 및 수로 건설, 세포등판개간 및 고산과수농장 확장 등 기존의 대형 토목 및 건설 사업들이 지속되었으며, 신규로 추진되는 건설사업은 위성과학자거리 사업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들이다. 위성과학자거리 등 새로 추진된 건설사업의 상당수는 과학기술부문 인력을 위한 것인데, 이는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부문에서는 신규 투자를 수반하는 새로운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기보다는 '혁신'을 통하여 기존 설비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의 산업현장 적용에 대한 기사가 크게 늘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 강조되고 있는 '혁신'은 기술적인 측면과 함께 사상적인 성격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성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투입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문인 농업・건설・경공업에 자원을 집중하고, 중화학공업에는 대규모 설비투자보다

1) 군의 관할영역인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수산업은 군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추정되는데, 『노동신문』 등 공식매체에서의 수산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는 당 및 내각과 군의 경제부문에서의 관계변화 가능성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존 설비의 효율성 증대와 농업 및 경공업 부문에 대한 공급능력 확충을 위한 제한적인 투자만을 하는 김정은 정권의 산업정책 기조가 2014년에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2014년『노동신문』에서는 발전소나 광산이 아닌 제조업 부문에 대한 설비투자 기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김정일 시대에 시작된 대규모 설비투자사업이 지속된 김정은 집권 첫해인 2012년뿐만 아니라 제철소와 화학공장에 대한 투자가 지속된 2013년과도 대비되는 것이다. 철강, 화학 등 소재산업 부문에서는 설비투자와 관련된 동향보도는 거의 없었으며, 생산성과나 기술개발과 관련된 동향들이 주로 보도되었다. 즉, 김책제철소의 선철 생산 증가나 남흥청년화학 및 흥남비료의 비료 생산 증가에 대한 보도가 대표적이다. 제철이나 화학 부문 모두 2013년에 주요 설비에 대한 투자사업이 일단락되었으며, 2014년 상반기에는 추가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기존 설비의 가동률을 제고시켜 소재공급을 증가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경공업 부문의 설비투자 동향 보도 역시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경공업 부문은 김정은 집권 이후 중화학공업에 비해 설비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2014년에는 투자 관련 동향에 대한 보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2] 심지어는 농업・과학기술과 함께 신년사에서 주력 부문으로 제시된 건설부문에서조차 대규모 신규 사업의 추진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14년에 농업・건설・과학기술 이외에 자원이 집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문은 화력발전 및 이에 연료탄을 공급하는 석탄광업 부문이다. 연초부터 석탄 생산성과에 대한 보도가 집중되었으며, 9월 이후에는 화력발전소 공급용 석탄의 증산 성과가 상당한 구체성을 띠면서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따라 전력 및 석탄광업 부문에서는 다소 생산증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타 광업은 특별한 동향을 보이지 않는다.

제조업 부문에서의 신규 투자는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마무리된 설비투자의 영향 등으로 생산부문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화학공업 부문에서 화학비료 및 농업・경공업용 원・부자재 공급이 어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금속부문도 김책제철소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2) 2013년에도 경공업 부문의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보도는 전년에 비해 다소 줄었다.

Ⅱ. 산업별 동향

1. 선행부문 및 기초공업

북한은 전력・석탄・금속・철도운수 등 소위 '4대 선행부문'과 화학 등 기초공업, 그리고 경공업 부문에 전년대비 5.2%에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건설부문은 전년대비 4.3% 증액하였다. 두 부문의 예산 증가율은 2013년의 7.2%와 5.8%에 비하면 하락한 수치이다.

수력발전소 건설부문에서는 2013년에 시작된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 건설이 핵심 사업이며, 백두산 선군발전소, 어랑천 4호 및 5호 발전소,[3] 예성강 청년 4호 발전소 등 중대형 발전소의 건설이 계속되고 있다.[4] 전년에 이어 중소형 발전소의 건설 보도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자강도에서 향후 2년 내에 10여 개의 중소형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여 수만 kW의 발전능력을 능력을 증가시킬 계획이며, 2014년부터 흥주 3호, 초산 2호 발전소, 자성군 귀인발전소, 중간군 중간발전소, 전철발전소의 건설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하였다.[5] 양강도에서도 최근 2년 남짓한 기간에 10여 개의 중소형 발전소가 건설되었으며,[6] 운총강 4호 발전소, 신장발전소 등을 건설 중이라고 한다.[7] 이 밖에 함주추상 1호 발전소가 준공되었으며, 금야강 2호 발전소도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8]

전력 증산은 매년 요구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2014년에는 특히 화력발전부문이 강조되었으며, 석탄광업, 금속, 기계 등의 산업부문에서 화력발전의 증대를 위한 노력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신문』 등은 "화력발전에 의한 전력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한 전 국가적, 전 사회적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관련 동향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화력발전부문의 증산 및 이와 관련된 화력탄 공급 성과에 관한 동향은 2014년 9월 이후에 집중되고 있다. 순천화력발전소, 청천강 화력발전소, 평양화력발전소, 동평양화력발전소 등의 성과가 집중적으로 보도되었으며, 이들 화력발전소에 대한 '화력탄' 공급의 성과도 구체적으로 보도되었다. 수력발전부문의 성과보도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인데, 서두수발전소, 태천발전소, 수풍발전소, 강계청년, 안변청년 2호 발전소 등의 성과가 보도되었다. 전체적으로 2014년 전력생산은 화력발전을 중심으로 다소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

3) 어랑천 2호 발전소는 1월 초에 조업 준비 중이라고 보도된 것으로 보아 건설이 완료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 2014. 1. 12.
4) 예성강 청년 4호발전소는 11월 28일 준공되었다. 『노동신문』, 2014. 11. 28.
5) 『중앙방송』, 2014. 5. 15, 『노동신문』, 2014. 8. 29.
6) 『평양・중앙방송』, 2014. 5. 15.
7) 『노동신문』, 2014. 11. 2; 2014. 11. 30.
8) 『노동신문』, 2014. 12. 11; 2014. 12. 27.

화력발전과 함께 석탄부문도 동향 및 성과보도가 상당히 늘어났다. 북한은 서부지구 및 북부지구의 주요 탄광들에서 300만t의 능력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며, 10개의 주요 대상공사가 완공되었다고 보도하였다.[9] 그리고 남양탄광, 제남광산 등 일부 탄광에서 새로운 갱의 개발이나 컨베이어 벨트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석탄공업성이 1월 생산계획을 8% 초과달성하였다는 보도[10]를 비롯하여 거의 매달 전체 석탄생산계획의 초과달성이 보도되었다.[11] 그리고 거의 모든 탄광연합기업소에 대해서도 생산계획 달성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중소형 탄광의 성과도 비중 있게 보도되었다.[12] 특이한 점은 석탄 증산 보도가 구체적인 수치를 수반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6월에는 전년 동기보다 백수십만톤의 석탄을 증산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상반기 전체로는 계획보다 40여 만톤의 석탄을 추가 생산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5.3% 증산하였다고 보도하였다.[13] 수치를 동반한 증산 보도는 9월 이후 화력발전소용 석탄 생산에 관한 보도에서도 이어지는데, 10월에는 9월에 비해 수만톤의 화력탄을 증산하였으며,[14] 1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0만톤의 석탄을 더 화력발전소에 공급하였다고 한다.[15] 이러한 석탄 증산 캠페인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석탄 생산은 어느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화력발전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철광석 등 여타 광업부문에서는 검덕광업연합기업소의 신규 수직갱 준공 및 13 수직갱 대보수,[16] 무산광산연합기업소 3호 대형 원추형 파쇄장 건설 및 2선광직당의 PLC 장치에 의한 공정조정체계 확립,[17] 3월 5일 광산 몰리브덴공장 건설 및 조업,[18] 자강도 우시광산 선광장 완공 및 조업[19] 등 제한적인 투자성과가 보도되었다. 생산실적은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은율 및 재령 광산 등 철광산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으로 보도되었다.

중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설비투자 보도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생산은 최근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마무리된 설비를 중심으로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철·제강 부문은 2013년에는 핵심 설비에 대한 투자동향이 다수 보도[20]된 것과 대조적으로 핵심 설비에 대한 대규모 설비투자 동향은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청진제강소의 3호, 4호 회전로 현대화 공사,[21] 성진제강의 3호 회전로의 기술개건, 1호 산호용융로의 수냉화,

---

9) 『노동신문』, 2014. 10. 15.
10) 『노동신문』, 2014. 1. 31.
11) 예를 들면, 8월 생산계획을 9.3% 초과달성, 1월 생산계획 19% 초과달성 등. 『노동신문』, 2014. 9. 1; 2014. 12. 7.
12) 중소형 탄광들은 연간 생산계획을 12% 초과달성하였으며, 중소 탄광국은 150여 개의 탄광을 개발 중이라고 한다. 『중앙통신』, 2014. 12. 5.
13) 『노동신문』, 2014. 6. 18; 2014. 9. 1.
14)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두 배에 해당한다고 한다. 『노동신문』, 2014. 11. 4.
15) 『노동신문』, 2014. 12. 7.
16) 『중앙방송』, 『평양방송』, 2014. 5. 22; 『노동신문』 2014. 12. 3.
17) 『노동신문』, 2014. 5. 13.
18) 『노동신문』, 2014. 8. 5.
19) 『중앙통신』, 『평양방송』, 2014. 5. 29.
20) 2013년에는 김책제철소 3호 용광로의 대보수와 주요 제철소에 대한 고온공기연소기술 도입 등 굵직한 투자동향이 보도되었다.
21) 『노동신문』, 2014. 3. 31.

연속조괴공정 건설 추진[22] 등이 설비투자와 관련된 동향의 전부이다. 반면, 성과보도는 2013년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13년에 3호 용광로 보수를 완료한 김책제철소의 선철 및 강재 생산성과와 청진강재공장의 철강재 생산성과가 반복적으로 보도되었다. 이 밖에 성진제강소, 황해제철소 등의 주체철 생산성과가 비중 있게 보도되었다. 철강재 사정이 여전히 원활하지 않은 것을 반영하여 천리마제강 등에 대한 파철공급 기사가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철분야 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단천제련소의 설비확충 동향이 주요하게 보도되었다.[23]

화학공업에서도 금속공업과 마찬가지로 설비투자 동향은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24] 대신 최근에 대대적인 설비투자가 완료된 대형 설비들의 생산성과가 비중 있게 보도되었다. 북한 매체들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석탄가스화 비료공정이 조업 이래 월 최고 비료생산 기록을 여러 번 갱신하였으며,[25] 흥남비료연합기업소도 20일간의 설비집중 대보수와 함께 7월 30일까지 시비년도 화학비료 생산계획 완료 등 비료생산에 성과가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다.[26] 따라서 이들 대형 석탄가스화 비료 생산설비의 생산고정이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2012년에 2단계 개건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2·8 비날론연합기업소의 비날론 및 기초 화학물질의 생산 역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설비에 대한 투자가 실제로 둔화되고 있다면 기계공업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중대형 수력발전소의 건설이 지속되고, 혁신이 강조되고 그 일환으로 설비의 CNC화가 지속적으로 추구되고 있어 기계공업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경공업 및 농수산

전년과 달리 경공업 부문에서도 신규 공장의 건설이나 설비 현대화 등에 대한 보도가 크게 줄었다. 신규로 조업한 경공업 공장은 운하대성식료공장과 갈마식료공장[27] 정도다. 경공업 부문의 생산성과는 식품가공부문을 중심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 평양공산공장, 평양밀가루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등이 소속되어 있는 평양식료연합기업소의 비중이 증가하였다.[28] 이 밖에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함흥편직공장, 잠업비단관리국 등 섬유부문과

---

22) 『노동신문』, 2014. 1. 17.
23) 단천제련소에서는 연 생산공정, 유리섬유수지 생산공정 건설과 조액직장 2단계 현대화 등이 추진되었다고 한다. 『노동신문』, 2014. 5. 7.
24)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가스화 공정 및 물전해 공정 등의 설비집중 대보수는 보도가 유일한 투자 관련 동향이다. 『노동신문』, 2014. 11. 10.
25) 『노동신문』, 2014. 4. 19; 2014. 6. 15; 2014. 11. 9.
26) 『노동신문』, 2014. 11. 10.
27) 『중앙통신』, 2014. 6. 19; 『노동신문』, 2014. 6. 29.

신발, 화장품 등에서 일부 성과가 보도되었는데, 보도비중은 전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3년에 여러 곳에서 동시에 추진되던 버섯공장 건설이나 도시 근교의 온실 건설에 대한 보도도 줄어들었다. 각지의 건설 동향이 다수 보도되는 대신에 평양 등 대도시에서의 설비 건설 및 생산 동향이 집약 되어 보도되고 있다. 전년에 이어 지속되는 사업인 고원과수농장 건설사업은 여전히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투자동향이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고 생산실적 보도도 늘어나지 않았지만 화학공업에서 경공업 부문에 대한 원·부자재 공급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이들 부문과 상대적으로 관계가 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산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농업과 축산업이 전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문의 성과보도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동안 민물 양식 등 내수면 수산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던 것과 대조적이다. 수산업의 강조는 농업, 축산업과 함께 식량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보이는데, 농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식품공급을 곡물 중심에서 육류 및 해산물 등으로 다양화 및 고급화하려는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인민군 1월 8일 수산사업소 등 해양수산 거점이나 갈마식료공장 등 수산물 가공공장 건설이나 양식장 신규 조성 등 수산부문에 대한 투자동향이 보도되었으며, 평안북도수산관리국 산하 수산사업소, 리원수산사업소, 신창수산협동조합 등 등 각지의 어로 및 수산물 생산실적 등이 매우 큰 비중으로 보도되었다. 그런데 수산업 기지를 주로 군부대가 건설하고 운영하는 상황에서[29] 해양수산부문의 강조는 군인을 동원한 세포등판개간사업 등 군대를 경제 건설에 적극 활용한다는 김정은 정권의 정책방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30] 특히 수산업이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나이고 당과 군이 이 부문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군부대를 동원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양수산 기지를 건설하고 그 성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산부문의 외화 수입 및 사용에 대한 통제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건설

건설부문은 김정은 정권의 핵심 투자부문이며, 2014년 신년사에서는 농업, 과학기술과

28) 『노동신문』, 2014. 1. 12; 2014. 2. 27; 2014. 4. 1; 2014. 7. 2 등.
29) 『노동신문』, 2014. 2. 21; 2014. 3. 24 참조.
30) 해양수산부문의 성과를 선전하는 보도 중 상당수는 해당 성과가 군부대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함께 주력 부문으로 규정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대규모 수력발전소, 간석지 및 물길 건설 등 계속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2014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건설사업의 규모는 2012년이나 2013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12년에는 평양 주택 10만호 및 대형 유희장 건설이, 2013년에는 각지의 체육시설이 주로 건설되었다면, 2014년에는 신년사에서 제시된 살림집, 합숙소, 교육시설 건설사업이 주로 추진되었다. 위성과학자거리,[31]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합숙소,[32]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33] 평양 육아원 및 애육원,[34] 연풍과학자휴양소 등이 완공되었으며, 함경북도 청진시 살림집,[35] 동평양지구 상업거리,[36] 평양시 미래과학자거리[37] 등이 추진 중이다[38].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개별 사업의 규모도 평균적으로 이전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신규사업의 제한적인 추진과 함께 기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건설부문에서의 혁신이라는 구호하에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문의 생산활동은 전반적으로 전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위성과학자거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소, 미래과학자거리 등 주택을 비롯한 건설사업의 상당수가 과학기술인력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과학기술부문의 강조가 건설부문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Ⅲ. 2014년 평가 및 2015년 전망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부문에 자원을 집중하는 '김정은식 실용주의'가 2014년에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수력발전소 건설이나 간석지 개간사업 등 지속사업과 함께 농업과 화력발전 부문에 자원투입이 집중된 가운데, 제조업 부문에서는 새로운 설비투자가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설부문에서도 대규모 신규 사업의 추진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근에 완료된 설비투자의 성과가 금속 및 화학 등 소재부문을

---

31) 위성과학자거리는 평양시 은정지구에 건설되었는데, 24동, 천수백 세대의 살림집 및 공공건물로 구성되며, 2014년 10월에 준공되었다. 또한 은정과학지구에 지구환경정보연구소 등 9개의 연구소를 추가로 설립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신문』, 2014. 3. 26; 2014. 5. 30; 2014. 10. 18 참조.
32) 이 합숙소는 준공 이후 김정은이 방문하는 등 주요 성과로 선전되고 있다.
33) 대동강변에 건설된 2개동 46층 주택단지로 2014년 10월에 완공되었다. 『노동신문』, 2014. 5. 21; 2014. 10. 17.
34) 2014년 10월 27일에 준공되었다. 김정은은 이 시설들을 건설 중 및 완공 이후에도 여러 번 방문하였다. 『노동신문』 2014. 8. 13, 2014. 10. 28.
35) 2,000여 세대의 다층 및 고층 살림집을 건설 중이라고 한다. 『평양방송』, 2014. 1. 17. 해주시에서도 수백 세대의 주택건설이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 2014. 7. 19.
36) 1월 16일 착공식을 진행하였다. 『중앙통신』, 2014. 1. 16.
37) 500여 세대의 고층, 초고층 주택과 탁아소, 유치원, 편의봉사망을 비롯한 공공 및 봉사 건물들로 구성된다고 한다. 『중앙통신』, 2014. 9 10.
38) 이 밖에 평양국제비행장 건설, 중앙동물원 개보수, 순천부두 준공, 5월1일경기장 개보수, 러시아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철도 현대와 사업의 일환인 재동역-강동역-남포역 구간 철도 개건 공사 착공 및 북부 철길 현대화 사업 등이 비중있게 보도되었다.

중심으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농업 및 경공업 부문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2014년 북한경제는 화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발전부문과 석탄을 중심으로 한 광업, 화학과 금속 등에서 소폭이지만 성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화의 진전 등으로 경공업도 식품가공부문을 중심으로 전년에 비해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기계부문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상업 및 서비스 부문은 전년에 비해 생산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건설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에 목격되었던 환율과 물가의 안정세는 2014년에도 지속되고 있는데, 어쩌면 환율과 물가의 안정이야말로 2013년에 이어 2014년 북한경제의 가장 큰 성과 하나일 수도 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투자정책이 이러한 환율과 물가의 안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5년에도 이러한 경제정책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제한된 재정역량만으로도 의미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농업을 중심으로 농축수산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과학기술과 건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2015년 신년사의 경제분야 내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여전히 투자가 필요한 전력과 석탄 산업 등이 강조되는 가운데, 제조업 특히 중화학공업 부문은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보다는 기존 설비를 잘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강조하였던 경공업도 전반적인 투자와 공급 증가보다는 식료품과 학용품 등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런 점에서 2015년 신년사의 경제정책 기조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나름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경제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분명 존재하지만 경제성과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변화가 2015년에 이루어질 것인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다. 경제관리제도와 대외경제관계에 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2015년 북한경제는 큰 변화는 기대할 수 없지만 최근의 미약한 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부문에서도 대규모의 투자는 추진되지 않겠지만, 최근 완료된 투자의 성과나 물가의 안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시장의 활성화 및 시장화의 진전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노동신문』, 2014. 1. 12; 2014. 1. 17; 2014. 1. 31; 2014. 2. 21; 2014. 2. 27; 2014. 3. 24; 2014. 3. 26; 2014. 3. 31; 2014. 4. 1; 2014. 4. 19; 2014. 5. 7; 2014. 5. 13; 2014. 5. 15; 2014. 5. 21; 2014. 5. 30; 2014. 6. 15; 2014. 6. 18; 2014. 6. 29; 2014. 7. 2; 2014. 7. 19; 2014. 8. 5; 2014. 8. 13; 2014. 8. 29; 2014. 9. 1; 2014. 9. 1; 2014. 10. 15; 2014. 10. 17; 2014. 10. 18; 2014. 10. 28; 2014. 11. 2; 2014. 11. 9; 2014. 11. 10; 2014. 11. 30; 2014. 12. 3; 2014. 12. 7; 2014. 12. 11; 2014. 12. 27.

『중앙통신』, 2014. 1. 16; 2014. 6. 19; 2014. 9 10.

『중앙방송』, 『평양방송』, 2014. 5. 15; 2014. 5. 22; 2014. 5. 29.

북한 농업 평가와 2015년 전망

김영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kyhoon@krei.re.kr

Ⅰ. 머리말

2012년 6월 북한은 '우리식 새로운 경제관리방침(이하 6・28방침)'[1]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배포했다. 이 문건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간간이 알려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 북한 농업생산부문의 새로운 개혁조치에 대한 관심과 해석이 뒤따랐다. 문건에 나타난 개혁조치의 진위와 실체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그 내용을 분석하고 개혁적 조치에 따른 기대효과도 거론되었다.

2014년 초 북한으로부터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다. 2014년 2월 6일 북한 정권 수립 후 최초로 '전국 농업 분조장대회'가 열렸는데, 이 대회를 격려하기 위해 김정은이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이었다.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서한 속에는 이전의 농업개혁조치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서신을 통해 2012년 이래 꾸준히 제기되어 온 북한 농업의 개혁적 조치가 생산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에게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 5월에는 한 걸음 더 나간 개혁조치가 예고되었다. 김정은의 '5・30노작'이라고 알려진 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그 문건 속에서 구체적인 개혁조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중국의 북한 소식통에 의하면, 2015년부터 농업부문에서 새롭고 획기적인 경영관리 및 분배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라는 내용이 예고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 개혁조치의 내용과 생산현장에서의 실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1) '6・28방침'은 '7・1조치(2002)', '5・30조치(2014)' 등과 같은 북한의 표현이 아니지만 편의상 사용하기로 한다.

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 대한 검토 작업도 불필요한 일이라 할 수는 없다. 북한의 폐쇄적 태도에 기인한 불명확성은 불가피하며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추론과 판단 및 전망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김정은 집권 후 여러 차례에 걸친 개혁조치(혹은 방침)가 과연 '개혁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 성과가 '농업생산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가속화될 것인지 등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판단해 보고자 한다. 그 판단 과정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 있다면 북한 농업에 대한 짧은 전망도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Ⅱ. 김정은 집권 후 농업개혁조치

1. 새로운 경제관리방침(2012. 6. 28)

김정은 정권 출범 후 북한 경제 및 농업 부문에서 가장 큰 변화 요인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이 2012년 6월 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문건에서 밝힌 개혁조치(이하 6・28방침)이다.

당시 국내외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진 바에 따르면,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협동농장과 공장의 생산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국가가 보장한다. 둘째, 국가와 협동농장(공장)이 일정비율로 생산물을 분배한다. 셋째, 가격은 시장가격으로 한다. 넷째, 개인 소유몫의 처분은 자유로 한다. 다섯째, 협동농장 내 작업분조의 규모를 4~6명으로 줄인다.

'6・28방침'은 여러 매체를 통해 개혁적인 조치로 소개된 바 있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혁'으로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우선 생산비용의 국가 조달과 생산물의 국가 수매는 사회주의 경제관리체제의 전형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포기한 적이 없는 북한에서 국가가 생산비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국가가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그것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국가가 보장하는 공급에 비해 국가의 몫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토지・노동・자본 등 농업생산의 3요소 중 노동력과 토지는 협동농장이 보유하고 있고, 국가가 협동농장에 공급하는 것은 자본재뿐이다. 이 상황에서 국가의 몫이 크다면 적절한

분배라 할 수 없다.

셋째, 북한 산업부문(비농업부문)의 가동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농업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인 화학비료의 국내 생산과 총공급량도 필요량을 크게 밑돌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국가가 농업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물자가 아닌 현금(시장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국가 조달의 책임을 시장으로 떠넘기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당시 북한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현금(시장가격)으로 농자재를 보장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었다.

넷째, 개인 소유분의 처분을 자유화한다는 것은 곡물의 시장거래를 공식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사실상 시장에서 이미 거래되고 있는 것을 공식화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이 조치가 현실화되면 시장으로 유출되는 곡물의 양은 증가할 것이다. 그 경우 곡물의 국가 수매와 식량배급이 위축될 개연성이 있다.

마지막 개혁조치는 협동농장 작업분조의 규모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농업부문의 집단적 생산구조를 개별적 생산구조로 근접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작업분조 규모의 축소는 1996년의 '새로운 분조관리제'와 2002년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서도 제시된 바 있으나, 그 후 실제로 작업분조의 규모가 축소되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6・28방침의 핵심 내용과 평가〉

〈핵심 내용〉
① 농장의 비용을 현금으로 보장하며 국가와 농장이 농산물을 일정률로 분배
② 작업분조 규모 축소와 포전책임담당제 시범 실시

〈평가〉
① 사회주의 체제 고수와 생산자재 국가 조달 사실상 방기
② 1996년 이래 협동농장 작업분조 규모 축소 시도는 무의미하게 반복
시범단위의 생산성 증대 – 특혜에 따른 성과 가능성

이와 같이 '6・28방침'을 개혁적인 조치로 해석하기에는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이 방침은 약화된 국가 수매・조달・배급 체계를 보완해 국가가 농장과 공장기업소의 생산물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보인다. '6・28방침'의 숨은 목적대로 단기적으로 재정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생산자재의 현금 보장을 위해서는 통화증발이 불가피하며, 그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전국 분조장대회'의 김정은 서한(2014. 2)

2014년 2월 북한은 정권 수립 후 최초로 '전국 분조장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2013년 농업생산에서의 성과를 회고하면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이 대회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라는 표제의 서한을 공표했다. 북한은 이 서한에 포함된 내용을 '사회주의 농촌테제' 선포 50주년을 맞아 이에 버금가는 김정은 시대의 '농업대강'으로 다룰 만큼 중시한 바 있다.

이 서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기존의 농업강령과 농정시책을 따르는 부분으로서 '사회주의 농촌테제'와 김정일 시대 농업정책('선군시대의 농사혁명')의 계승이 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농정시책으로서 개혁적 조치, 즉 협동농장의 '포전담당책임제'와 '전형단위(시범)'를 강조하면서 국가와 농업지도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서한은 '사회주의 농촌테제'가 지금도 여전히 북한 농정의 기본 강령임을 강조하고 있다. 농촌의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꾸준히 추진하는 가운데, 선진 영농기술을 배우고 현대적 기술수단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농촌마을을 보다 문화적으로 꾸리며 현대적 관수방법을 받아들여 관개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농촌테제'의 계승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과거로부터 이어온 북한 농정의 지향점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농업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 공업화, 현대화, 정보화'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과학농법과 집약농법을 실시함으로써 '주체농법'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선군시대 농사혁명'으로 요약되는 김정일 시대의 농업정책도 계승한다고 서한에서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 시대 농정은 당면한 문제의 해소를 위한 '식량생산 증대'라는 실천적 과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서한에서도 종자혁명, 비료 확보, 유기농업의 장려, 알곡생산면적의 확대, 농업과학기술의 발전, 현대적 축산기지 구축,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내각·농업지도기관·당의 역할 수행 등 김정일 시대 북한 농정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농정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김정은 서한: ① 김정일 농정시책의 계승〉

○ 종자혁명
– 비료 요구량이 작고 생육기일이 짧으며 가뭄과 비바람, 병충해를 비롯한 여러가지 피해에 대응력이 강한 품종 개발
– 채종사업 개선, 현대적인 종자가공공장 건설

○ 비료 확보
– 질소, 인, 칼리, 규소 비료와 여러 가지 미량 원소비료를 적절하게 공급

○ 유기농업 장려
– 협동농장에서 여러 가지 거름원천을 찾아 이용
–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를 확립

○ 알곡생산면적 확대
– 조림, 하천 정리, 구조물 보수 및 관리를 통해 자연피해로부터 농경지 보호
– 자연재해 농경지 원상 복구
– 새 땅을 얻기 위한 간석지 건설

○ 농업과학기술의 발전
– 농업과학기술 연구사업을 목표지향적으로 추진

○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
– 농업생산에 필요한 비료 적시 공급(보장)
–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 전력과 석탄 우선 공급
– 인, 칼리, 규소 비료와 다양한 미량 원소비료의 생산 보장

○ 현대적 축산기지 구축과 정상화
–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
– 기존에 건설한 축산기지 정상 가동을 위한 노력 경주

○ 내각, 농업지도기관, 당의 역할 강조
– 생산현장에서 문제를 찾아내 적극적인 대책 수립
– 농업전선의 담당자로서 농업지도기관의 농사지도 책임
– 농업부문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

○ 기타 사항
– 온실남새, 버섯, 과수(고산과수농장 건설), 공예작물, 잠업 확대
– 자연흐름식 물길 건설 강조(황해남도)

자료: 김정은,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2014.

2014년의 '김정은 서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농업생산의 책임제를 명시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부터 '6・28방침', '작업분조 축소', '포전담당책임제' 등 북한 농업에서 일련의 개혁적 조치가 취해졌다고 알려졌으나, 그 사실이 공표된 문건으로 뒷받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서한은 새로운 내용과 함께 북한 농정의 동향을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우선 협동농장의 자력 경영과 작업분조의 역할을 제고시키는 데 농정의 중점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발견된다. 그것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분조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 농장원들의 책임성과 창조적 열의를 발양"하고 "포전담당책임제를 협동농장들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적용해 실시"하며 "알곡 의무수매 과제를 합리적으로 정해주는 방식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에서 읽을 수 있다. 이를 관철하는 방안으로서 분조장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 것도 강조하고 있다.

농촌에서 전형단위를 창조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도 중요하다. 농업부문에서 "자체의 힘으로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협동농장에서도 전형작업반, 전형분조를 창조하고 작업반과 분조들이 그 단위를 따라잡기 위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은 서한: ② '개혁조치'의 주요 내용〉

○ 협동농장의 자력 농사 강조
  – 농업부문에서 자체로 농사짓는 운동을 힘있게 추진

○ 분조의 역할 제고
  –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분조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 농장원들의 책임성과 창조적 열의를 발양
  – 포전담당책임제를 협동농장들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적용해 실시
  – 국가 수매를 우선하나 알곡 의무수매 과제를 합리적으로 정해 주는 방식으로 완화
  – 분조장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임

○ 농촌에서 시범사업(전형단위 창조) 실시
  – 자체의 힘으로 전형단위 창조
  – 모든 단위들이 전형단위를 따라 앞서기 위한 경쟁
  – 협동농장에서도 전형작업반, 전형분조를 창조하고 작업반과 분조들이 그 단위를 따라잡기 위한 경쟁

○ 곡물 생산면적 확대
  – 림농복합경영방법 도입
  – 농업생산구조를 알곡 위주의 생산구조로 개선

자료: 김정은,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2014.

김정은의 서한에 명시된 메시지는 협동농장의 자력 경영, 작업분조의 역할 제고와 포전담당책임제를 통한 구성원 책임의 강화, 전형단위별 시범사업의 실시, 경쟁의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북한의 농업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 다만, 그 변화가 현실 경제상황을 수용한 수동적인 대안이었는지 적극적인 개혁조치에 해당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3. 5·30조치와 중국 농업개혁 사례

2014년 들어 북한은 농업부문에서 한걸음 더 나간 중요한 개혁조치를 취했다고 알려졌다. 2014년 5월 30일에 발표했다고 하는 '5·30조치'이다. 중국의 북한 전문가에 의하면, '5·30조치'는 2015년부터 모든 협동농장과 기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율경영제를 도입하며 협동농장의

작업분조를 폐지하고 가족 단위의 영농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농장의 노동력에게 각각 농지 1,000평을 할당하여 영농하게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생산물은 국가와 개인이 각각 40%와 60%로 나누는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2)]

이와 같은 구체적인 농업개혁조치의 진위를 아직 확인할 수는 없으나, '5・30조치' 자체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 매체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일본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김정은 원수께서 작년(2014년) 5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확립에 관한 역사적인 노작을 발표하시었다"고 밝히면서, '5・30조치'가 김정은의 노작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3)]

이 조치가 포함하고 있는 개혁적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다면, '5・30조치'는 1978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중국 농업부문에서 급속히 추진된 '생산책임제' 개혁에 비견될 수 있다. 중국의 생산책임제는 1978년 '포산도호(包産到戶)'로 시작되었다. 이는 개별 농가에 책임농지를 배분하고 목표치(정부수매)를 초과하는 산출물에 대해 농가에 추가적인 배분을 실시하는 형태였다. 이 생산・분배 체제는 불과 4년 만에 크게 변화하게 된다. 1982년 들어 생산책임제는 개별 경영의 형태에 가까워진 '포간도호(包幹到戶)'로 발전했는데, 이는 목표치(정부수매)를 초과하는 생산분에 대해 농가의 자유로운 처분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었다(표 1). 불과 2년 후 중국의 농업생산부문은 사실상 개인농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이 시기 중국의 농업생산은 급속하게 성장했다. 그 양상은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산책임제가 본격화되어 개별농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던 1980~85년의 5년 동안 농업생산액이 48.2%나 상승한 것이다. 이 시기의 농업생산 성장을 그 전후 시기 5년의 16.9% 및 26.1%와 비교하면 얼마나 높은 수준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의 농업생산책임제 개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후 취해진 일련의 농정개혁조치가 농업생산 현장의 경영개선과 농업구조개선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면, 북한의 농업생산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며 식량 수급사정 역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식량수급 추이를 통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인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현대경제연구원, 「북한 농업개혁이 북한 GDP에 미치는 영향」, 현안과 과제 14-36호, 2014. 9. 24; 『조선비즈』, 2015. 1. 27.
3) 『조선신보』, 2015. 1. 8; 『연합뉴스』, 2015. 1. 9; 김정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데 대하여」, 2014. 5. 30., 『통일뉴스』, 2015. 1. 6. 재인용.

〈표 1〉 중국의 농업생산책임제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포산도호 (包産到戶)	– 개별 농가에 책임농지 배분 – 목표치(정부수매) 초과 생산분에 대한 추가적인 배분	1978~
포간도호 (包幹到戶)	– 개별 농가에 책임농지 배분 – 목표치(정부수매) 초과 생산분 자유 처분	1982~

〈표 2〉 중국의 개혁기 농업생산액 변화

(단위: %)

연 도	경종작물	임 업	축산업	부업 생산	계
1975~80	13.0	36.1	31.9	26.2	16.9
1980~85	36.2	54.9	65.5	170.8	48.2
1985~90	17.3	1.8	38.5	71.5	26.1

자료: 이일영, 『중국의 농촌개혁과 경제발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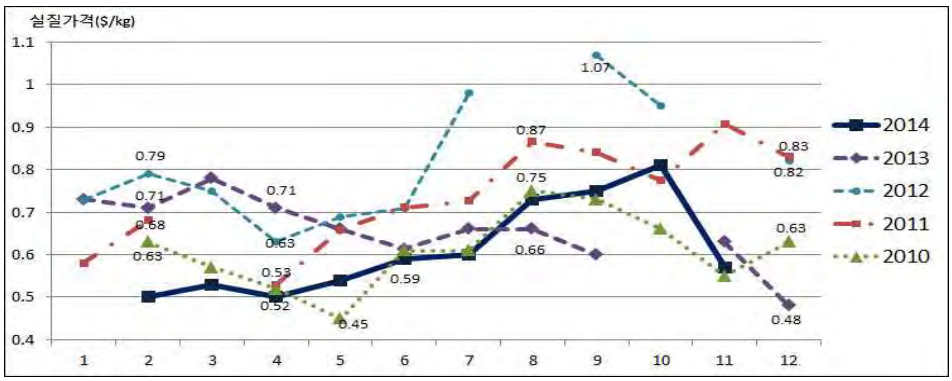
Ⅲ. 최근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

1. 식량의 시장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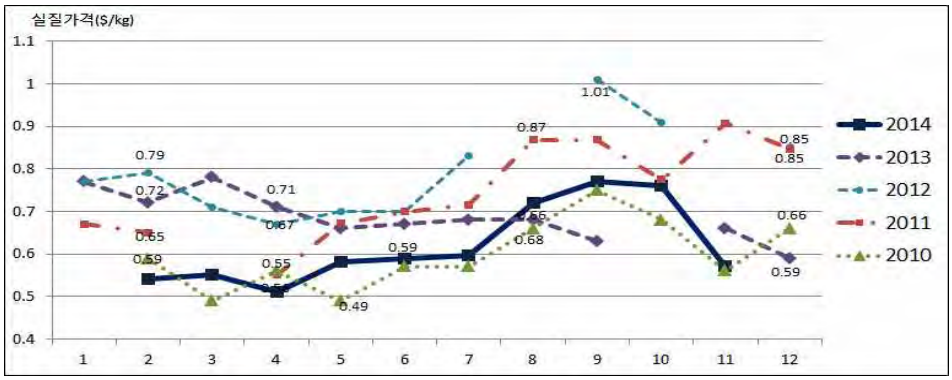
올해 현시점까지 북한의 식량수급 사정은 당초 전망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시장의 쌀가격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림 1]은 평양 지역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쌀 가격을 달러화로 환산해 연도별로 비교・제시한 것이다. 이 그림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모든 경우 같은 연도 내 식량가격의 계절 등락이 매우 심하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식량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이다. 둘째,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쌀 시장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동 기간 동안 쌀 수급사정이 나빠졌음을 의미한다. 반면, 2013년과 2014년의 가격은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전년에 비해 점차 나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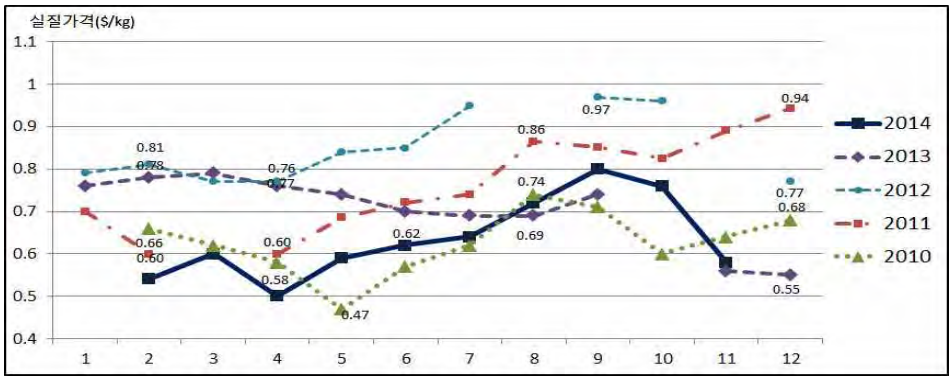
[그림 1] 평양의 쌀 실질가격 추이(2010. 1～2014. 11)



[그림 2] 신의주의 쌀 실질가격 추이(2010. 1～2014. 11)



[그림 3] 혜산의 쌀 실질가격 추이(2010. 1～2014. 11)



주: 환율과 시장가격은 관찰기간에 따라 가중평균한 월평균 값임.
자료: 『데일리NK』, http://www.dailynk.com.

요컨대 식량부족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은 호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현상은 북한의 다른 지역(신의주, 혜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식량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총공급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식량 공급의 증가가 해외 도입이 아니라 국내 생산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면, 2012년 이후 북한의 농업생산에서 개혁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2. 식량수급 추이

2010년대 들어 북한의 식량생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표 3〉을 통해 볼 수 있다. FAO 통계와 FAO/WFP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450만톤에 불과하던 북한의 식량생산이 2014년에는 503만톤으로 늘어 최근 4년간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 특히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식량생산 상승폭이 크다. 불과 2년 동안 14%나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것은 2012년 이후의 여러 농업개혁조치의 성과라 할 수 없다.

2012년의 생산량은 전 해 생산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12년의 생산 감소는 기상 변화와 지도자 교체기의 사회적 해이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최근 식량생산 증가는 이전부터 이어져 온 농업생산의 회복 현상이며, 이러한 흐름이 완만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3〉 최근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

(단위: 만톤)

	2010	2011	2012	2013	2014
국내 생산량 (양곡연도 기준)	450	469	441	492	503
도 입 량	41	42	33	(30)	(30)
소 요 량	531	534	536	539	542
공 급 량	491	512	473	522	533
부 족 량	40	22	63	16	9

주: ( )는 예상치.
자료: FAO; FAO/WFP

4) 국내 생산량은 양곡연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정확히 표현한다면 해당 연도의 국내산 공급분으로 해석해야 한다.

한편,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북한의 2014년도 곡물 생산량이 2013년에 비해 0.2% 감소해 480만톤 수준에 머물렀다고 추정·발표했다(표 4). FAO와 WFP의 2014/15년 북한 작황 추정치가 올해는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의 국제기구 추정치와 올해의 농촌진흥청 추정치를 직접 비교해 식량생산이 크게 감소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농촌진흥청이 그간 발표해 온 북한 작황 추이만을 고려한다면,[5] 최근 북한의 식량생산 증가는 지속적이거나 획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4〉 2014년 북한의 곡물생산량

구 분		계	쌀	옥수수	서류	맥류	두류	잡곡
재배면적(천ha)		1,862	571	711	336	85	131	28
수 량(㎏/10a)		–	377	250	166	195	130	76
2014년 생산량(만톤) (A)		480	216	172	56	17	17	2
2013년 생산량(만톤) (B)		481	210	176	58	18	17	2
2013년 대비	증감량(만톤) (A–B)	△1	6	△4	△2	△1	0	0
	증감비율(%)	△0.2	3	△2	△4	1	0	0

자료: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14. 12. 22.

2010년대 들어 북한의 식량생산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커다란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간 꾸준히 강조해 온 증산정책의 효과가 농업생산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생산 증가가 농업부문의 개혁과 생산구조 개선의 성과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2012년 이래 여러 차례의 개혁적 조치가 있었다고 하지만, 농업생산 증대가 '개혁'에 상응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할 만큼 획기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개혁조치들이 상응하는 법·제도 구축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으며, 생산현장에 접목되어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사례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최근 북한 농업생산의 증가는 근본적 농업개혁보다는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농업부문에 투입하려는 정책적 노력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5) 농촌진흥청은 북한이 2012년에는 468만톤, 2013년에는 481만톤, 2014년에는 480만톤을 생산한 것으로 발표했다(농촌진흥청, 보도자료, 각년도).

Ⅳ. 2015년 전망과 북한농업의 과제

1. 전망

시장가격의 추이와 농촌진흥청의 추산에 따르면, 2015년 북한의 식량수급은 2014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아직 시기가 이르고 자료도 부족하지만 북한의 2015년 농업생산도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다. 현 상황에서는 부정적 요소와 긍정적 요소가 함께 존재한다. 부정적 요소는 기상의 변동에 따른 작황저조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과 화학비료의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지난 2년간 북한에서는 봄과 초여름에 걸쳐 가뭄 현상이 발생해 봄 작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산림 황폐화와 열악한 농업기반시설 때문에 북한은 작은 기상의 변화에도 작황의 등락이 심하며 그 상황은 단기간에 크게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화학비료를 충분히 조달하는 것도 북한의 현 경제상황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 2014년 1~10월 기간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화학비료의 총량은 11만 9,000톤으로서 2013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가량 감소했다(권태진[2014]).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2015년의 농업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올해 농업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는 '포전담당책임제'의 확대와 '작업분조'의 규모 축소에 따른 동기유발효과를 들 수 있다. 농업생산에서 개혁조치가 시범단위의 실험을 넘어 전국의 협동농장으로 확산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불명확하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향후 농업생산성 증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책적 실험임에는 틀림없다. 이에 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과제

북한 국내에서 조달 가능한 자본(농자재, 농업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며 저생산은 불가피하다.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 농업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농업생산부문의 개혁이다. 그러나 북한은 농업생산부문에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에 착수하기가 어렵다. 생산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 강력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농업개혁을

추진하면 단기적으로 분배의 불균형이 수반될 것이다. 이는 국가가 수매해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단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의 수매 부족은 배급물량 부족으로 이어져, 배급에 의존하는 주민에게 어려움이 집중될 우려가 있고, 이는 다시 북한 정권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농업개혁의 본격 착수와 지속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상업적 수입이나 원조 등 대규모 식량 도입을 통해 정부의 조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현 경제사정에서 식량의 수입 여력은 매우 낮다. 최근 연간 30만~40만톤에 불과한 물량을 수입함으로써 부족분 중 일부만을 충당할 수 있을 뿐이다.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도 충분치 않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국면으로 식량 지원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장·단기적인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농업개혁을 꾸준히 실험하고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유인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참고문헌

권태진, 「2015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GS&J 북한·동북아 동향』, 제8호, 2014. 12. 24.

김정은,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2014. 2.

김정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데 대하여」, 전국 농업 분조장 대회 서한, 2014. 5. 30.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14. 12. 22.

이일영, 『중국의 농촌개혁과 경제발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현대경제연구원, 『북한 농업개혁이 북한 GDP에 미치는 영향, 현안과 과제』, 14-36호, 2014. 9. 24.

『데일리NK』, http://www.dailynk.com

『연합뉴스』, 2015. 1. 9.

『조선비즈』, 2015. 1. 27.

『조선신보』, 2015. 1. 8.

『통일뉴스』, 2015. 1. 6.

FAO, FAO Statistics

FAO/WFP.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3. 11.

북한의 대외무역 : 2014년 평가 및 2015년 전망

이종규 |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jklee@kdi.re.kr

Ⅰ. 머리말

2013년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혼란을 겪는 가운데 역대 최대의 무역량을 달성했다. 이는 전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1] 하지만 2014년 북한의 대외무역 흐름은 2013년에 약간 못 미치는 무역량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북중무역이 2014년에 감소했기 때문이다. 북한경제의 기본구조 자체가 식량, 원유, 생필품 등을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고 이를 충당하는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 지하자원(무연탄, 철광석)을 수출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당국으로서는 작년 북중무역의 감소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북한의 사회과학원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는 대외무역의 다각화 및 다양화는 "일부 나라들에서 정치경제 정세가 변하여 그 나라들과의 상품거래가 축소되어도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함으로써 필요한 상품들을 제때에 수입하지 못하거나 수출하지 못하여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이 엄중한 지장을 받는 것과 같은 위험성을 막고 적들의 반공화국 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2] 실제로 북한당국도 대외무역 구조의 변화를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기 어려웠으며, 그 성과도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북한은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개선을 통해 대중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했다. 양국은

1)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KOTRA 기준): 83.0%(2010년), 89.1%(2011년), 88.3%(2012년), 89.1%(2013년).
2) 김상학, 「현 시기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 실현에 나서는 몇 가지 문제」, 『사회과학원 학보』, 제82권, 제1호, 2014. pp.23~24.

2013년 1.12억달러에 불과한 교역액을 2020년 10억달러까지 확대하는 데 합의했으며, 북한의 구소련 부채를 90% 탕감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작년 7월에는 북한의 나진항 3호 부두가 러시아와의 합작으로 완공되었으며, 10월부터는 북・러 간 무역대금이 루블화로 결제되고 있다.[3] 무역 다각화를 시도하는 북한의 이해와 극동 진출을 모색하는 러시아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이다. 양국은 경제협력에 대해 2014년에 본격적인 준비를 했으며, 2015년에는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의 대외무역 다각화 시도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제개발구, 중계무역, 관광산업, 기술무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외화획득을 강조했다. 2013년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이 처음으로 채택 및 공포된 이래 2013년 11월 6일에는 경제개발구 창설규정, 경제개발구 기업창설운영규정, 경제개발구 관리기관 운영규정 등이 발표되었으며, 2013년 11월 21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각 도들에 특색 있는 경제개발구들을 창설한다는 결정이 채택되었다.[4] 그리고 2014년 6월에는 무역성, 합영투자위원회,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통합하여 대외경제성을 신설했다. 특히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통한 중계무역 및 서비스업 발전을 강조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했다. 전장석(2014)[5]은 "중계무역은 중개무역에 비하여 위험도가 높지만 리윤이 더 많다"면서 "라선경제무역지대를 비롯한 특수경제지대들에서 지대의 자연지리적 조건의 유리성과 경제토대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중계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춘명(2004)[6]은 관광업의 발전을 강조하였는데, "관광봉사무역을 활발히 진행해 나가는 것은 최단 기간 내에 나라의 대외무역을 확대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 나가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2014년 북한 대외무역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던 한 해였다. 또한 러시아와의 무역은 북중무역을 대체할 수 있는 규모도 아니며 주목할 만한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도 않았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무역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2014년 북중무역에 일어난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작년 북중무역은 왜 감소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와 같은 추세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향후 북한의 대외무역 상황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2014년 북중무역을 중심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을 평가해 보고 2015년 대외무역 상황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

3) 「북-러 新협력시대, 어디까지 발전했나?」, 『연합뉴스』, 2014. 10. 26.
4) 리명숙, 「경제개발구에 대한 일반적 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0권 제2호, 2014. pp.109~112.
5) 전장석, 「중계무역의 특징과 형태」, 『경제연구』, 제3호, 2014., pp.45~46
6) 김춘명, 「관광봉사무역에 대한 일반적 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0권, 제3호, 2014. pp.104~107.

II. 2014년 북중무역 동향(1~12월)

2014년 북중무역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2.8%).[7] 2013년 북중무역액이 약 65.8억달러였던 데 비해 2014년에는 약 63.6억달러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는 원유 수입 통계가 없는 것으로 잡힌 북한의 대중수입(−3.0%)에서뿐만 아니라 수출(−2.4%)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특히 2013년의 경우 핵실험과 UN의 제재[8]가 이루어졌던 상황 속에서도 대중 수출과 수입이 각각 17.2%, 5.4% 증가했던 반면, 작년에 비해 큰 정치적 악재가 없었던 2014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해 다소 소원해진 양국의 정치적 관계가 교역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몇 년간의 상황과 비교하여 2014년 북중무역은 세 가지 특징 눈에 띈다. 첫째, 전통적인 주력 품목인 무연탄과 철광석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둘째, 의류에 대한 수출이 급증함으로써 전체 대중수출의 급격한 감소세는 막았다는 점이다. 셋째,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 기록은 없었으나,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남으로써 처음으로 대중수입 1위 품목이 되었다는 점이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수출과 수입 품목으로 구분하여 보자.

〈표 1〉 북한의 대중무역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수 출	수 입	합 계	무역 적자
2013년 전체	2,912 (17.2)	3,663 (5.4)	6,575 (10.4)	751
2013년 상반기 (1~6월)	1,364 (5.8)	1,592 (−9.7)	2,956 (−3.1)	228
2013년 하반기 (7~12월)	1,547 (29.4)	2,041 (21.3)	3,589 (24.7)	493
2014년 전체	2,842 (−2.4)	3,523 (−3.0)	6,364 (−2.8)	681
2014년 상반기 (1~6월)	1,311 (−3.9)	1,582 (−0.6)	2,893 (−2.1)	271
2014년 하반기 (7~12월)	1,531 (−1.1)	1,940 (−4.9)	3,471 (−3.3)	409

주 : (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 2015. 1. 27.

7) 1998년 이후 북중무역액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해 왔으나(연평균 20.48%), 세 차례에 걸쳐 전년에 비해 무역액이 감소한 사례가 있다. 1999년(−9.20%), 2002년(−0.02%), 2009년(−4.29%).
8) UN 안보리 결의 제2094호.

석탄과 철광석은 여전히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으로서 수출액이 약 13.6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북한의 전체 대중수출에서 47.8%(HS4 기준)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석탄 및 철광석 수출이 전년 대비 각각 17.7%, 25.7% 감소했다는 점이다. 특히 석탄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연탄 수출은 2013년에 가격이 월평균 톤당 82.4달러에서 2014년 73.6달러로 떨어짐으로써 수출총액도 줄어드는 '가격효과'가 있었다.[9] 하지만 가격효과뿐 아니라 중국 내 수요가 감소되는 '물량효과'도 나타났는데,[10] 2013년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량은 1,649만톤이었으나, 2014년에는 1,543만톤으로 줄어들었다. 즉, 수출가격, 수출총액, 수출물량이 동시에 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종규(2014, pp.48~49)에서 지적했듯이 "중국의 경기둔화, 전 세계적인 철강산업 공급과잉, 중국의 환경에 대한 규제 강화[11] 등 경제적 환경이 다소 불리하게 조성된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 내 수요 감소가 북한 석탄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한 석탄과 철광석을 제외한다면 다른 수출은 의류(남성 재킷, 여성 재킷, 여성 코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2014년 수출액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4년 재킷, 코트 등 의류(HS62) 제품의 수출은 총 6.2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21.9%를 차지했다. 그 밖에 조개 등 수산물(HS0307), 기타 견과류(HS0802) 등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품목(2014년)

(단위 : 백만달러, %)

순 위	HS 코드	품 목 명	2013년		2014년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2701	석탄	1,380	15.1	1,136	-17.7
2	2601	철광석	299	20.1	222	-25.7
3	6201	남성 코트	127	42.6	157	24.2
4	6203	여성 재킷	122	28.4	153	25.1
5	6202	여성 코트	117	32.3	137	17.6
북한의 전체 대중수출			2,912	17.2	2,842	-2.4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5. 1. 27.

9) 같은 기간 동안 국제시세(Index Mindi)는 2013년 86.4달러/톤(월평균), 2014년 78.5달러/톤(월평균)이었다.
10) 이석 편(2013, pp.114)에 의하면 1998~2012년 동안 "북한의 수출은 연평균 47.96% 증가했는데 이 중 물량의 증대로 인한 부분이 39.82%, 가격의 변화로 인한 부분이 8.14%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대중수출의 경우 전체 변화율의 약 5/6가 물량의 변화에 의해 초래된 것이며, 이 중 가격의 변화로 인한 부분은 1/6."이라고 추정했다.
11) 중국정부의 '수입석탄 유황 함유량 제한 규정',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air pollution action plan)'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대중수입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던 원유 수입액이 통계상으로 아예 잡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참고로 2013년의 경우 원유 수입액은 약 6억달러, 수입량은 약 57만톤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몇 년간 원유가 50만톤 이상의 수입량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2014년의 통계는 다소 의외이다. 북한 내부의 유류 사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 현재의 통계를 그대로 해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12] 2014년 북중 간 무역협상이 열리지 않아 수출가격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통계상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13] 물론 이 또한 하나의 가설이다. 원유 수입에 대한 판단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북한은 정제유(휘발유, 경유 등) 수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난다(1.55억달러). 하지만 이 또한 2013년에 비해 늘어난 것일 뿐 이미 2012년(1.61억달러)과 2011년(1.92억달러)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이다. 따라서 원유를 정제유 수입으로 대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외에 의류 수출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의 수입이 늘었으며, 휴대전화기(HS851712)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TV수신용 기기(100.6%), 고무타이어(13.7%), 전동기와 발전기(509.6%) 등의 수입이 2013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표 3〉 북한의 주요 대중 수입품목(2014년)

(단위: 백만달러, %)

순 위	HS 코드	품 목 명	2013년		2014년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2710	석유제품	104	-35.5	155	48.2
2	5407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	137	14.0	153	11.6
3	8517	전화기	75	-19.9	112	50.4
4	1507	대두유	85	21.4	112	32.0
5	8704	화물자동차	143	1.5	109	-24.2
북한의 전체 대중수입			3,633	5.4	3,523	-3.0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5. 1. 27.

12) 예를 들면, 2009년의 경우 8~11월간 북중무역에 통계적 단절이 존재한 사례가 있다. 즉, 8~11월간 북한과의 무역은 통계상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하지만 2009년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기타 아시아국'이라는 별도 항목이 있었는데, 이는 대북 무역이 이 기간 동안 새로운 항목으로 분류되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2009년 북한 데이터(1~7월, 12월)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기타 아시아국'(8~11월) 항목을 합하여 이 수치를 다시 UN Comtrade의 연간 데이터와 비교해 보면 대체로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2014년 데이터에서는 그와 같은 별도 항목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원유 수입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13) 『조선일보』, (2015. 1. 19.). 「중국, 대북 원유 수출 '제로'?」: "중국 세관 통계는 교역이 이루어진 날짜가 아니라 결제일을 기준으로 집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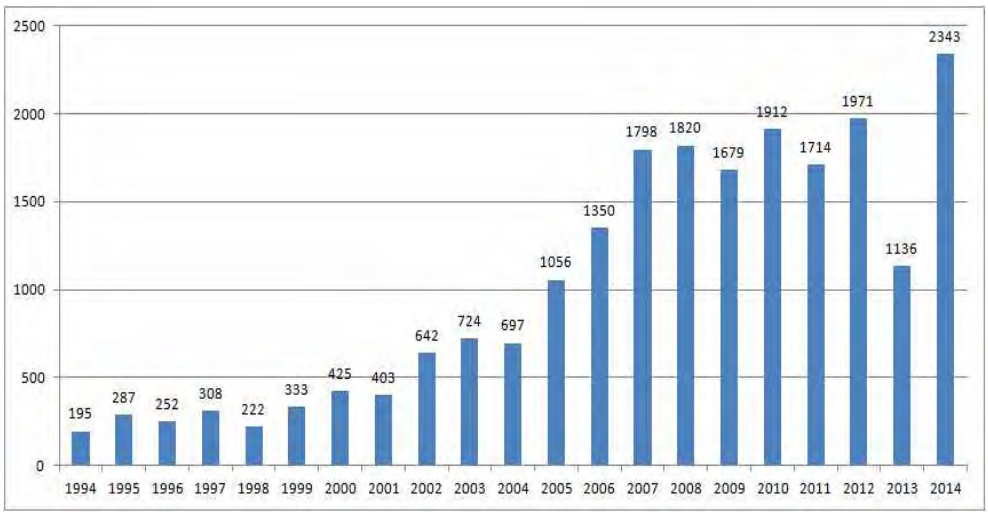
Ⅲ. 2014년 남북교역 동향(1~12월)

2010년 이후 남북교역은 개성공단이 99%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개성공단에만 교역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2014년에도 이와 같은 추세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다만, 2013년 잠정 폐쇄되었던 개성공단이 2014년에 완전히 정상화되면서 역대 최대 남북교역액을 달성한 것이 큰 특징으로 꼽힌다(약 23.4억달러). 반출(대북수출)은 약 11.4억달러, 반입(대북수입)은 12.1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주로 전기・전자제품, 섬유류, 생활용품,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순으로 교역이 이루어졌다.

작년에 10주년을 맞은 개성공단은 2014년 11월을 기준으로 125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전체 근로자 수 54,579명(북한 근로자 53,763명), 연간 생산액 4.3억달러에 이를 만큼 양적인 팽창을 거듭해 왔다.[14] 또한 한중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한국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최근 북한당국이 신설한 '개성공업지구법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에서 기업인 재산몰수 및 억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불확실성이 돌발적으로 확대된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림 1] 남북교역 추이

(단위: 백만달러)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호.

14) 통일부 홈페이지 통계자료(개성공단사업), 2015. 1. 27. 접속.

Ⅳ. 종합평가 및 전망

2014년 북한 대외무역은 여전히 북중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북중무역의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더 이상의 발전에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통계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중수입뿐 아니라 그러한 요소가 없는 대중수출까지도 감소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제한적인 몇 개의 품목에 의존하는 수출 패턴과 전략물자, 생필품, 자본재 등 중요 물품을 해외로부터 조달하는 수입 패턴을 고려해볼 때 무역구조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러시아와 경협이 활발해지기는 했으나, 교역 자체가 갑자기 늘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15] 북중무역의 감소분을 북러무역의 증가분으로 대체하기도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4년 남북교역이 20억달러, 누적 교역액이 2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상징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했으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개성공단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형태의 경협이 북한경제 전반에 있어 커다란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2015년 북한의 신년사를 분석해 보면 급격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년사에서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과거에 볼 수 있었던 '새로운 투자와 대규모 건설사업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 '사회주의 대진군' 등 동원성 구호는 나타나지 않았다.[16] 또한 '농산,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주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강조하는 등 내부지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국 2015년 북한의 경제정책은 2014년보다 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지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화가 예상된다. 즉, 기존의 전통적인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대외경제 관계 회복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두 축으로 삼으려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2015년 북한의 대외무역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 지하자원 수출의 감소세 지속 여부이다. 만약 석탄을 중심으로 한 수출 감소가 중국 내 수요 측면에서 촉발된 것이라면 이러한 추세는 2015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의 석탄이 주로 중국 내 중소 철강업체, 도자기업체 등으로 수출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중국 내 철강 수요 감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는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air

15) 아시아경제(2014. 12. 4.): 북러경협 확대했지만 교역은 오히려 10%나 줄어: "한국의 코트라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이 발표한 '2014년 1~9월 러시아의 북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러시아의 대북 수출액은 이 기간 중 5,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12% 감소했다."
16)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2015. 1. 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대내외 정책 전망. Online Series

pollution action plan)'을 통해 환경파괴와 연관된 소비감소 정책을 지역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계획인데, 공교롭게도 북한이 석탄을 수출하는 지역들에서 이러한 정책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17] 종합적으로 수요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은 2013년 약 13.8억달러, 2014년에는 11.4억달러에 이른다. 다른 외화확보 채널인 노동력 송출, 비공식부문으로부터의 달러 흡수, 해외 관광객 유치, 개성공단 등과 비교해서도 훨씬 높은 수치이다.[18] 북한은 이렇게 확보된 경화를 바탕으로 내부경제에 안정적인 물자를 공급해 왔는데, 만약 이러한 주요 채널에 문제가 생긴다면 대외무역 구조에 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둘째, 다소 소원해진 것으로 알려진 북・중 간 경제협력관계가 어떠한 식으로 회복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신종호(2015, pp.6)가 분석했듯이 "양국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구도 역시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다시 한 번 관계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중국은 2014년 11월 UN 총회에서 북한 인권문제 회부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했으며, 중국 외교부는 2015년 1월 8일 김정은 생일에 축전을 보내면서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라는 16자 방침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2015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경제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2014년에 나타나지 않았던 원유수입에 대한 통계가 2015년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즉, 2014년과 2015년의 원유수입량이 합쳐져서 큰 액수로 통계가 기록[19]되어 나올 수도 있고, 2015년 원유수입만 재개되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으며, 아니면 2015년에도 원유수입 기록이 없을 수도 있다. 이 통계 기록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2014년의 북중무역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2015년 북・중 간 경제협력 방향을 제대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러시아와의 무역이 얼마만큼 큰 폭으로 확대되는지 봐야 할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본격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2014년에 착실히 준비를 해왔고, 2015년에는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구나 올해 5월 김정은과 푸틴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경제적 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극동부 장관은 "2015년은 과거 양국 간에 도출한 합의를 실제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한

17)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은 석탄소비 감축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했다(2012~17년): 산동성 5%, 하북성 13%, 천진시 19% 감축. Greenpeace, *The End of China's Coal Boom*, 2014).

18) Greitens(2014)에 의하면 노동력 송출을 통한 외화획득은 매년 약 1.5~2.3억달러, 휴대전화사업을 통한 수익은 4~6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김지연 외(2013)에 의하면 북중 관광으로 인한 북한 측의 수입은 약 2,170~3,460만달러, 개성공단으로 인한 수입은 약 8,600만 달러로 추정했다. 이러한 추정이 통계상 제약으로 인해 한계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단일 품목인 석탄 수출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암시해 준다.

19) 만약 통과일이 기준이 아니고 결제일이 기준이라면, 그리고 북・중 간 원유가격 결정이 뒤늦게 정해져서 결제가 늦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러한 통계 표시도 가능하다.

해"라고 언급했으며, 2020년까지 교역량을 10억달러까지 증대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물론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역이 북중무역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는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올해 북한의 2번째 교역국(한국 제외)으로서 그 증가폭이 얼마나 되고, 어떠한 품목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북한은 대외경제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를 모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전통적 우호 국가인 중국과의 관계 회복과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2015년 북한의 대외무역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중 지하자원 수출 감소세가 2015년에도 지속되는지 봐야 할 것이고, 북·중 간 정치적 관계 회복이 경제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주목해야 할 것이며, 2014년의 통계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원유 수입에 대한 기록이 2015년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도 봐야 할 것이다. 끝으로 2014년에 기틀을 마련했던 북한–러시아 경제협력이 얼마만큼 큰 폭으로 발전하는지 주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상학, 「현 시기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 실현에 나서는 몇 가지 문제」, 『사회과학원 학보』, 2014년 제1호, pp.23~24.

김지연 · 최필수 · 임민경 · 나승권, 『북중 관광협력의 현황과 시사점』, 연구자료 2013-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김춘명, 「관광봉사무역에 대한 리해」,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철학, 경제학)』, 2014년 제3호, pp.104~107.

리명숙, 「경제개발구에 대한 일반적 리해」,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철학, 경제학)』, 2014년 제2호, pp.109~112.

신종호, 『최근 북중관계 분석 및 2015년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15년.

이석 편,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무역통계와 서베이 데이터의 분석』, 연구보고서 2013-05, 한국개발연구원, 2013.

이종규, 「2014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7월호, pp.46~53.

전장석, 「중계무역의 특징과 형태」, 『경제연구』, 2014년 제3호, pp.45~46.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대내외 정책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15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각호.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호.

한국무역협회(KITA), 통계데이터베이스(2015. 1. 27 검색).

『연합뉴스』, 2014. 10. 26.

『조선일보』, 2015. 1. 19.

『아시아경제』, 2014. 12. 4.

Greenpeace, *The End of China's Coal Boom: 6 Facts You Should Know*, Greenpeace East Asia, 2014.

Greitens, Sheena. C., *Illicit: North Korea's Evolving Operations to Earn Hard Currency*, Washington D.C.: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

경제 자료

2014년 북한경제동향 관련 통계자료

남진욱

신년사 경제부문 비교(2010~15) 및 국내외 분석자료

김 옥

2014년 북한경제동향 관련 통계자료

남진욱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 namjw@kdi.re.kr

본 자료에서는 2014년 북한경제동향 평가를 위한 제반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물론 북한은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외부에 발표하고 있지 않다. 또한 북한경제를 평가하는 외부기관의 추정 통계는 그 출처에 따라 성격이 상이하며, 동일 항목에 대한 통계 수치 역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자료에서는 2014년 북한경제동향 평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외부기관의 추정통계들 가운데 가장 널리 이용되는 대표적인 통계 항목들만을 선정하여, 가능한 한 이들 항목의 통계 수치들을 복수의 출처로부터 서로 대비시켜 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본 자료에서 제공하는 통계항목 및 그것의 출처들은 다음과 같다.

1. GDP 및 성장률: 한국은행 및 UN 통계국
2. 무역: 통일부, 한국무역협회(KITA) 및 중국 해관
3. 환율 및 시장가격: 데일리NK
4. 식량: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및 통계청
5. 북한의 중국 방문자 수 추이: 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

본 자료에서 제공하는 통계들의 구체적인 특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제시되는 통계표에 각주를 달아 설명하였다.

Ⅰ. GDP 및 성장률

1. GDP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GDP와 1인당 GDP는 2013년에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UN 통계국에 따르면 북한의 GDP와 1인당 GDP는 2013년에 전년도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UN 통계국은 매년 중간에 북한의 GDP 관련 통계를 수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수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표 1-1〉 GDP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한국은행 (원화 기준)	GDP (10억원)	18,928	20,223	21,277	21,887	23,707	24,735	24,358	24,758	27,241	28,484	29,880	32,228	33,211	33,614
	1인당 GDP (만원)	83	88	92	94	101	105	103	104	114	118	124	133	136	137
한국은행 (달러 기준)	GDP (억달러)	167	157	170	184	207	241	255	266	247	223	258	291	295	307
	1인당 GDP (달러)	737	684	737	790	885	1,025	1,075	1,117	1,032	927	1,068	1,196	1,207	1,251
UN (달러 기준)	GDP (억달러)	106	110	109	111	112	130	138	144	133	120	140	157	159	155
	1인당 GDP (달러)	462	476	468	471	473	548	575	597	551	494	570	638	643	621

주: 한국은행 자료는 본래 한국 원화 기준으로만 되어있으나, 편의상 이를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환율을 이용하여 달러로 전환한 수치 역시 제공함.
자료: 한국은행(http://ecos.bok.or.kr/), UN(http://unstats.un.org/unsd/nationalaccount/), 검색일: 2015. 1. 7.

2. GDP 성장률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의 GDP 성장률은 2013년에도 1.1% 소폭 상승하며 양(+)의 성장세를 이어갔다.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가스・수도업 부문에서 1.5%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고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0.3% 성장했다. 반면 건설업 부문에서는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음(-)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UN 통계국은 북한의 2013년도 GDP 성장률을 한국은행의 1.1%보다 낮은 0.8%로 기록하였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UN 통계국은 GDP 성장률의 경우 이러한 초기 수치를 후에 수정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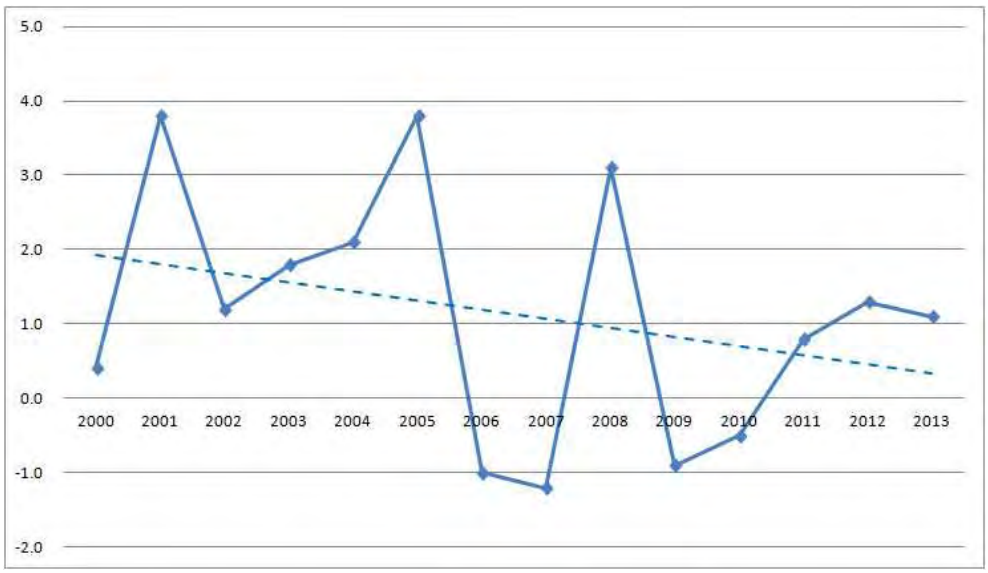
〈표 1-2〉 GDP 성장률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종 합		0.4	3.8	1.2	1.8	2.1	3.8	-1.0	-1.2	3.1	-0.9	-0.5	0.8	1.3	1.1
부문	농림·어업	-5.1	7.3	4.2	1.7	4.1	5.3	-2.6	-9.1	8.0	-1.0	-2.1	5.3	3.9	1.9
	광공업	2.7	3.7	-2.2	2.9	1.0	4.3	0.9	1.0	2.5	-2.3	-0.3	-1.4	1.3	1.5
	전기·가스·수도업	3.1	3.9	-4.0	4.3	4.7	4.4	2.7	4.8	6.0	0.0	-0.8	-4.7	1.6	2.3
	건설업	13.5	7.1	10.5	2.1	0.4	6.1	-11.5	-1.5	1.1	0.8	0.3	3.9	-1.6	-1.0
	서비스업	1.1	-0.3	-0.2	0.6	1.3	1.3	1.1	1.7	0.7	0.1	0.2	0.3	0.1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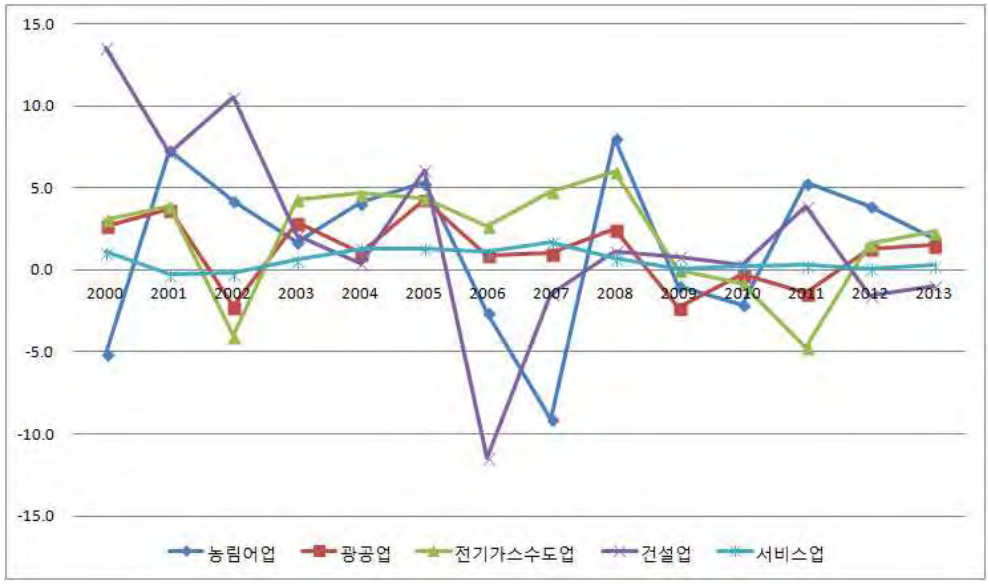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검색일: 2015. 1. 5.

〈그림 1-1〉 GDP 성장률 추이



주: 점선은 2000~13년 북한의 GDP 성장률 추세를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검색일: 2015. 1. 5.

〈그림 1-2〉 산업별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검색일: 2015. 1. 5.

II. 무역

1. 남북교역

2014년 남북교역은 총 21.3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2014년 11월 기준) 2010년 5·24 조치 시행 후 남북교역은 사실상 개성공단만을 의미하고 있는데, 2014년에도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반교역·위탁가공 및 비상업적 거래는 11월까지 약 400만달러만이 기록됐다.

〈표 2-1〉 남북교역

(단위: 백만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11
반입	152	176	272	289	258	340	520	765	932	934	1,044	914	1,074	615	1,093
반출	273	227	370	435	439	715	830	1,033	888	745	868	800	897	521	1,035
계	425	403	642	724	697	1,056	1,350	1,798	1,820	1,679	1,912	1,714	1,971	1,136	2,128

주: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거래를 민족간 내부거래로 보고 관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수입·수출이라는 용어 대신 반입·반출이라는 용어를 씀.

자료: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2014년 11월호.

〈표 2-2〉 형태별 남북교역

(단위: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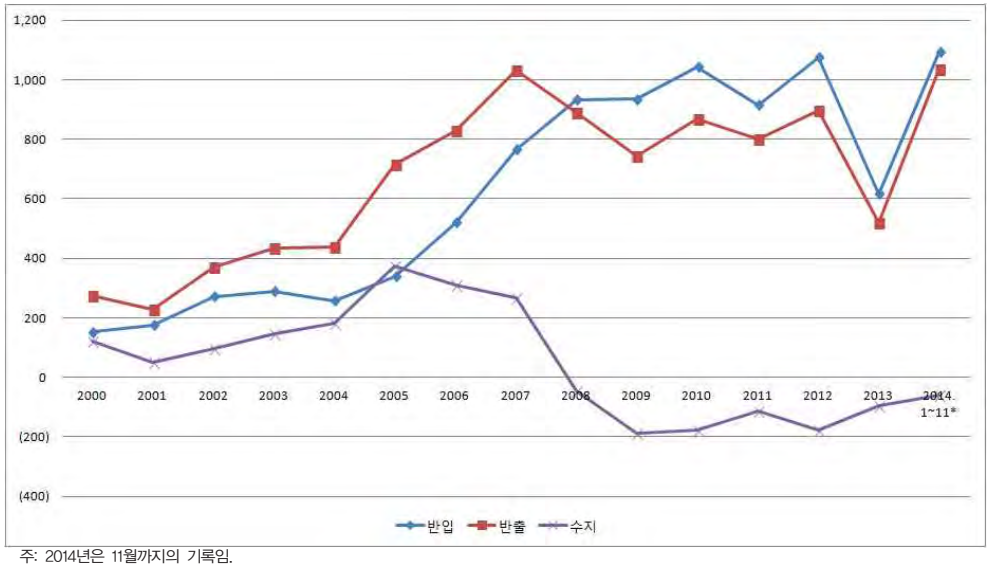
구분	남북교역 유형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11
반입	**일반교역·위탁가공**	258	320	441	645	624	499	334	4	1	1	0
	경제협력	–	20	77	120	308	435	710	909	1,073	615	1,093
	비상업적 거래	–	–	1	–	–	–	–	1	–	–	0
	반입 합계	258	340	520	765	932	934	1,044	914	1,074	615	1,093
반출	**일반교역·위탁가공**	89	100	116	146	184	167	101	–	–	–	–
	경제협력	89	250	294	520	596	541	744	789	888	518	1,030
	비상업적 거래	261	366	421	367	108	37	23	11	9	3	4
	반출 합계	439	715	830	1,033	888	745	868	800	897	521	1,035

주: 경제협력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및 기타경제협력을 의미함.

자료: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2014년 11월호.

[그림 2-1] 연도별 남북교역 추이

(단위: 백만달러)



주: 2014년은 11월까지의 기록임.
자료: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월호.

[그림 2-2] 월별 남북교역 추이

(단위: 천달러)

자료: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월호.

2. 북중무역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여 왔던 북중무역은 2014년에 교역량이 전년도에 비해 소폭 줄어들며 한풀 꺾인 모습을 보였다. 2014년 북중무역은 2013년에 비해 수출이 2.4%, 수입이 3.0% 줄어들며 총 63.6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몇 년간 북한 대외무역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북중무역이 음(−)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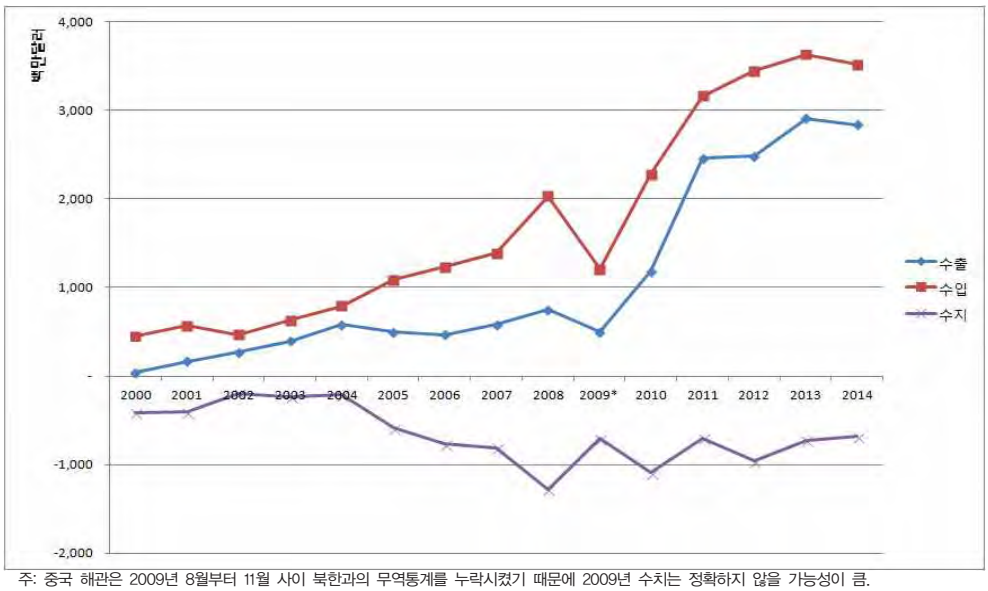
〈표 2-3〉 북중무역 – 연간

(단위: 백만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	37	167	271	396	582	497	468	582	754	501	1,188	2,464	2,485	2,912	2,842
수입	451	571	467	628	795	1,085	1,232	1,393	2,033	1,210	2,278	3,165	3,446	3,633	3,523
계	488	738	738	1,024	1,377	1,581	1,700	1,974	2,787	1,710	3,466	5,629	5,931	6,545	6,364

주: 중국 해관은 2009년 8월부터 11월 사이 북한과의 무역통계를 누락시켰기 때문에 2009년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5. 1. 27.

[그림 2-3] 연도별 북중무역 추이



주: 중국 해관은 2009년 8월부터 11월 사이 북한과의 무역통계를 누락시켰기 때문에 2009년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5. 1. 27.

〈표 2-4〉 북중무역 – 월간

(단위: 백만달러, %)

	수출액 (전년동월대비증가율)		수입액 (전년동월대비증가율)	
2012.01	139.2	(7.8)	278.4	(24.3)
2012.02	196.8	(123.2)	162.5	(109.6)
2012.03	230.6	(25.3)	359.3	(33.2)
2012.04	227.0	(16.2)	305.9	(16.8)
2012.05	255.9	(17.8)	353.4	(12.2)
2012.06	239.5	(–1.3)	303.3	(–0.2)
2012.07	220.8	(–12.6)	275.6	(–16.8)
2012.08	205.0	(–16.7)	268.1	(–8.5)
2012.09	198.0	(–25.2)	270.3	(–9.2)
2012.10	187.0	(–16.6)	282.9	(14.5)
2012.11	193.1	(–9.5)	295.8	(–0.8)
2012.12	191.9	(–7.2)	290.3	(18.4)
2013.01	188.8	(35.7)	281.6	(1.1)
2013.02	170.2	(–13.5)	125.4	(–22.8)
2013.03	229.1	(–0.6)	314.1	(–12.6)
2013.04	253.4	(11.6)	288.9	(–5.6)
2013.05	276.2	(8.0)	325.1	(–8.0)
2013.06	245.9	(2.7)	257.0	(–15.3)
2013.07	285.7	(29.4)	279.5	(1.4)
2013.08	202.1	(–1.4)	375.3	(40.0)
2013.09	240.3	(21.4)	351.4	(30.0)
2013.10	259.3	(38.7)	311.9	(10.2)
2013.11	272.1	(40.9)	337.0	(13.9)
2013.12	288.4	(50.3)	386.0	(33.0)
2014.01	222.5	(17.8)	323.3	(14.8)
2014.02	155.9	(–8.4)	98.8	(–21.2)
2014.03	226.4	(–1.2)	245.3	(–21.9)
2014.04	225.9	(–10.8)	301.1	(4.2)
2014.05	233.6	(–15.4)	302.5	(–6.9)
2014.06	246.2	(0.1)	311.1	(21.1)
2014.07	267.8	(–6.3)	322.9	(15.6)
2014.08	258.7	(28.0)	313.2	(–16.6)
2014.09	300.2	(25.0)	333.2	(–5.2)
2014.10	252.2	(–2.7)	332.3	(6.5)
2014.11	208.1	(–23.5)	278.3	(–17.4)
2014.12	243.9	(–15.5)	360.5	(–6.6)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5. 1. 27.

[그림 2-4] 월간 대중국 수출 및 수입

주: 점선은 수출액과 수입액의 12개월 이동평균임.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5. 1. 27.

북한의 만성적인 대중국 무역 적자는 2014년에도 해결되지 않았다. 2월에 한 번 무역 흑자를 기록하긴 했으나, 2014년 전체를 보면 2013년의 7.51억달러보다는 줄어들었지만 6.81억달러의 무역 적자를 냈다.

〈표 2-5〉 북한의 대중국 무역 적자 추이 – 월간

(단위: 백만달러, %)

	적자액 (전년동월대비증가율)	6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증가율)	12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증가율)
2012.01	139.2 (46.8)	61.0 (19.8)	62.1 (6.3)
2012.02	–34.3 (222.1)	47.4 (–22.3)	60.1 (–3.2)
2012.03	128.7 (50.2)	63.3 (33.6)	63.7 (6.0)
2012.04	78.9 (18.5)	72.6 (14.7)	64.7 (1.6)
2012.05	97.5 (–0.3)	74.7 (2.9)	64.7 (0.0)
2012.06	63.8 (4.3)	79.0 (5.6)	64.9 (0.3)
2012.07	54.8 (–30.5)	64.9 (–17.8)	62.9 (–3.1)
2012.08	63.1 (33.8)	81.1 (25.0)	64.3 (2.1)
2012.09	72.3 (118.6)	71.8 (–11.6)	67.5 (5.1)
2012.10	96.0 (318.6)	74.6 (4.0)	73.6 (9.0)
2012.11	102.7 (21.0)	75.5 (1.2)	75.1 (2.0)
2012.12	98.4 (155.6)	81.2 (7.6)	80.1 (6.6)
2013.01	92.8 (–33.4)	87.5 (7.8)	76.2 (–4.8)

	적자액 (전년동월대비증가율)	6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증가율)	12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증가율)
2013.02	−44.8 (30.5)	69.6 (−20.5)	75.4 (−1.1)
2013.03	85.0 (−33.9)	71.7 (3.0)	71.7 (−4.8)
2013.04	35.5 (−55.0)	61.6 (−14.1)	68.1 (−5.0)
2013.05	48.9 (−49.9)	52.6 (−14.6)	64.0 (−6.0)
2013.06	11.0 (−82.7)	38.1 (−27.7)	59.6 (−6.9)
2013.07	−6.3 (−111.4)	21.6 (−43.4)	54.6 (−8.5)
2013.08	173.2 (174.4)	57.9 (168.5)	63.7 (16.8)
2013.09	111.1 (53.6)	62.3 (7.5)	67.0 (5.1)
2013.10	52.6 (−45.1)	65.1 (4.6)	63.4 (−5.4)
2013.11	64.9 (−36.8)	67.8 (4.1)	60.2 (−5.0)
2013.12	97.5 (−0.9)	82.2 (21.3)	60.1 (−0.1)
2014.01	100.8 (8.7)	100.0 (21.7)	60.8 (1.1)
2014.02	−57.1 (27.6)	61.6 (−38.4)	59.8 (−1.7)
2014.03	18.9 (−77.7)	46.3 (−24.9)	54.3 (−9.2)
2014.04	75.2 (111.7)	50.0 (8.1)	57.6 (6.1)
2014.05	68.9 (40.9)	50.7 (1.3)	59.2 (2.9)
2014.06	64.9 (489.4)	45.3 (−10.7)	63.7 (7.6)
2014.07	55.1 (−981.2)	37.7 (−16.8)	68.8 (8.0)
2014.08	54.5 (−68.6)	56.3 (49.4)	58.9 (−14.4)
2014.09	32.9 (−70.4)	58.6 (4.1)	52.4 (−11.1)
2014.10	80.1 (52.2)	59.4 (1.4)	54.7 (4.4)
2014.11	70.2 (8.2)	59.6 (0.4)	55.2 (0.8)
2014.12	116.6 (19.6)	68.2 (14.5)	56.8 (2.9)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5. 1. 5.

[그림 2-5] 대중국 무역적자 추이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5. 1. 27.

2014년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2013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전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하여 북한의 주 수출품인 석탄(HS2701) 및 철광(HS2601) 수출이 상당히 줄었으며, 이는 의류제품(HS62) 및 수산물(HS03) 수출액이 큰 폭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 첫 대중수출 하락으로 이어졌다.

〈표 2-6〉 북한의 대중국 수출 상위 5개 품목(HS 4단위 기준)

(단위: 백만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석탄	108.3	석탄	96.7	석탄	162.6	석탄	201.3	석탄	208.6
철광	66.5	철광	76.6	철광	80.0	철광	172.3	철광	48.5
연체동물	51.1	연체동물	38.2	아연광	47.7	연체동물	36.1	선철	20.6
철의 웨이스트	34.9	여성재킷	19.2	연체동물	25.8	선철	35.0	연체동물	19.3
냉장어류	23.3	남성재킷	19.1	선철	22.2	페로얼로이	31.0	남성재킷	18.1

2010		2011		2012		2013		2014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석탄	390.4	석탄	1,140.9	석탄	1,198.5	석탄	1379.8	석탄	1,135.7
철광	194.3	철광	324.5	철광	248.6	철광	298.7	철광	221.9
선철	64.4	남성재킷	111.4	남성재킷	95.2	남성코트	126.7	남성코트	157.3
연체동물	53.2	선철	105.8	연체동물	91.4	남성재킷	122.2	남성재킷	152.9
아연의 괴	47.7	남성코트	85.3	남성코트	88.8	여성코트	116.5	여성코트	137.1

주: 중국 해관은 2009년 8월부터 11월 사이 북한과의 무역통계를 제공하지 않아 2009년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5. 1. 27.

2014년 북중무역 통계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의 대중 원유수입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매년 북한의 대중국 수입 품목 1위를 기록하던 원유(HS2709)는 기록이 되지 않았던 달이 종종 있었지만 한 해에 걸쳐 기록이 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원유를 대체한 2014년 북한의 대중국 수입 품목은 석유제품(HS2710)이었다. 북한의 의류가공품 수출 증가로 인해 직물(HS5407) 수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전화기(HS8517), 대두유(HS1507), 화물자동차(HS8704)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품목의 수입 상승세는 원유 수입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북한의 대중국 수입 수치가 3.0%밖에 하락하지 않은 원동력이 되었다.[1)]

〈표 2-7〉 북한의 대중국 수입 상위 5개 품목(HS 4단위 기준)

(단위: 백만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원유	197.7	원유	246.9	원유	282.0	원유	414.3	원유	164.2
돼지고기	95.6	돼지고기	108.6	석유제품	95.4	석유제품	120.1	석유제품	46.4
석유제품	73.6	석유제품	78.2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47.5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52.4	화물자동차	41.8
옥수수	36.1	필라멘트램프	36.8	돼지고기	39.2	대두유	45.1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33.2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26.2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36.1	밀가루	35.2	석탄	44.4	대두유	26.1

2010		2011		2012		2013		2014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원유	325.8	원유	518.4	원유	577.9	원유	598.1	석유제품	154.8
석유제품	104.9	석유제품	192.4	석유제품	161.9	화물자동차	143.3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152.8
화물자동차	88.3	화물자동차	146.2	화물자동차	141.2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136.8	전화기	112.3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71.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99.3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120.0	석유제품	104.5	대두유	112.2
전화기	62.8	질소비료	94.2	전화기	93.2	대두유	85.0	화물자동차	108.7

주: 중국 해관은 2009년 8월부터 11월 사이 북한과의 무역통계를 제공하지 않아 2009년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4. 1. 27.

1) 만약 북한이 예년과 같이 원유를 수입했다면(5~6억달러) 2014년 북한의 대중국 수입은 2013년에 비해 증가했을 것이다.

〈표 2-8〉 북한의 주요 대중국 수출 상품 1: 무연탄(HS코드 270111)

(단위: 천달러, 천톤, 달러/톤, %)

	수출액	(증가율)	물량	(증가율)	단가	(증가율)
2012.01	69,605	(56.0)	690.79	(42.2)	100.76	(9.7)
2012.02	112,974	(260.8)	1,094.03	(228.9)	103.26	(9.7)
2012.03	135,595	(73.5)	1,283.79	(60.0)	105.62	(8.5)
2012.04	145,622	(31.8)	1,379.56	(21.8)	105.56	(8.2)
2012.05	142,968	(24.7)	1,357.89	(22.3)	105.29	(1.9)
2012.06	130,037	(13.5)	1,220.12	(11.4)	106.58	(1.9)
2012.07	105,093	(−11.7)	1,010.79	(−11.5)	103.97	(−0.2)
2012.08	71,625	(−23.5)	712.39	(−19.4)	100.54	(−5.2)
2012.09	62,979	(−49.5)	679.98	(−43.8)	92.62	(−10.2)
2012.10	60,971	(−39.1)	674.27	(−29.6)	90.42	(−13.5)
2012.11	76,835	(−17.2)	859.47	(−2.4)	89.40	(−15.1)
2012.12	75,492	(−26.5)	843.99	(−16.8)	89.45	(−11.7)
2013.01	83,729	(20.3)	929.44	(34.5)	90.09	(−10.6)
2013.02	90,423	(−20.0)	965.10	(−11.8)	93.69	(−9.3)
2013.03	130,191	(−4.0)	1,368.01	(6.6)	95.17	(−9.9)
2013.04	158,669	(9.0)	1,718.77	(24.6)	92.32	(−12.5)
2013.05	150,562	(5.3)	1,720.90	(26.7)	87.49	(−16.9)
2013.06	130,084	(0.0)	1,598.22	(31.0)	81.39	(−23.6)
2013.07	131,671	(25.3)	1,679.22	(66.1)	78.41	(−24.6)
2013.08	64,372	(−10.1)	862.29	(21.0)	74.65	(−25.8)
2013.09	91,658	(45.5)	1,230.80	(81.0)	74.47	(−19.6)
2013.10	102,846	(68.7)	1,348.37	(100.0)	76.27	(−15.6)
2013.11	121,454	(58.1)	1,581.21	(84.0)	76.81	(−14.1)
2013.12	118,055	(56.4)	1,492.15	(76.8)	79.12	(−11.5)
2014.01	101,551	(21.3)	1,245.11	(34.0)	81.56	(−9.5)
2014.02	72,112	(−20.3)	921.65	(−4.5)	78.24	(−16.5)
2014.03	98,763	(−24.1)	1,291.04	(−5.6)	76.50	(−19.6)
2014.04	95,238	(−40.0)	1272.25	(−26.0)	74.86	(−18.9)
2014.05	100,449	(−33.3)	1,311.86	(−23.8)	76.57	(−12.5)
2014.06	103,109	(−20.7)	1,398.86	(−12.5)	73.71	(−9.4)
2014.07	97,585	(−25.9)	1,312.40	(−21.8)	74.36	(−5.2)
2014.08	93,381	(45.1)	1,285.17	(49.0)	72.66	(−2.7)
2014.09	98,556	(7.5)	1,394.15	(13.3)	70.69	(−5.1)
2014.10	88,434	(−14.0)	1,268.13	(−6.0)	69.74	(−8.6)
2014.11	79,598	(−34.5)	1,169.70	(−26.0)	68.05	(−11.4)
2014.12	103,406	(−12.4)	1,562.01	(4.7)	66.20	(−16.3)

주: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증가율을 뜻함.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5. 1. 27.

[그림 2-6] 무연탄 수출

주: 점선은 수출액과 물량의 12개월 이동평균 수치를 의미함.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5. 1. 27.

[그림 2-7] 무연탄 수출단가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5. 1. 27.

〈표 2-9〉 북한의 주요 대중국 수출 상품 2: 철광석(HS코드 260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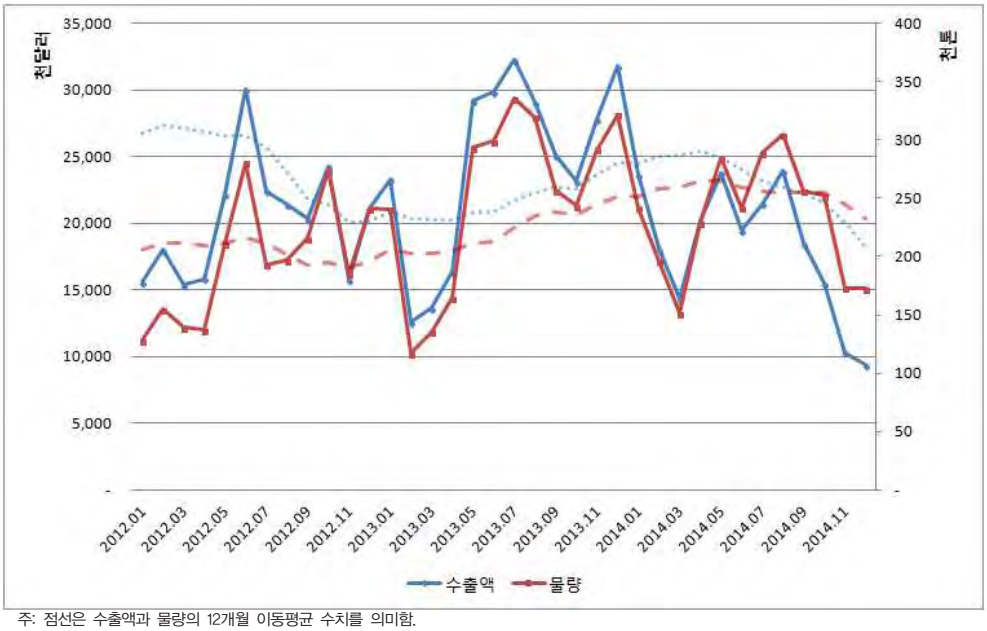
(단위: 천달러, 천톤, 달러/톤, %)

	수출액	(증가율)	물량	(증가율)	단가	(증가율)
2012.01	15,602	(37.9)	128.30	(27.3)	121.60	(8.3)
2012.02	18,032	(70.5)	154.95	(64.7)	116.38	(3.5)
2012.03	15,386	(−13.2)	139.34	(2.3)	110.42	(−15.2)
2012.04	15,838	(−21.5)	136.93	(−18.3)	115.67	(−3.9)
2012.05	22,216	(−10.4)	211.46	(16.4)	105.06	(−23.0)
2012.06	30,034	(−0.1)	280.66	(25.0)	107.01	(−20.1)
2012.07	22,441	(−33.8)	193.28	(−23.7)	116.11	(−13.3)
2012.08	21,383	(−50.1)	197.16	(−37.0)	108.46	(−20.7)
2012.09	20,351	(−54.9)	215.78	(−34.8)	94.31	(−30.8)
2012.10	24,279	(−17.2)	273.59	(14.6)	88.74	(−27.7)
2012.11	15,771	(−50.4)	185.31	(−23.4)	85.11	(−35.3)
2012.12	21,161	(10.5)	241.19	(43.3)	87.73	(−22.9)
2013.01	23,303	(49.4)	240.95	(87.8)	96.71	(−20.5)
2013.02	12,596	(−30.1)	117.51	(−24.2)	107.19	(−7.9)
2013.03	13,618	(−11.5)	135.62	(−2.7)	100.41	(−9.1)
2013.04	16,361	(3.3)	164.78	(20.3)	99.29	(−14.2)
2013.05	29,207	(31.5)	293.31	(38.7)	99.58	(−5.2)
2013.06	29,861	(−0.6)	298.83	(6.5)	99.92	(−6.6)
2013.07	32,313	(44.0)	335.45	(73.6)	96.33	(−17.0)
2013.08	29,084	(36.0)	319.48	(62.0)	91.04	(−16.1)
2013.09	25,079	(23.2)	256.78	(19.0)	97.67	(3.6)
2013.10	23,168	(−4.6)	243.58	(−11.0)	95.11	(7.2)
2013.11	27,822	(76.4)	291.74	(57.4)	95.37	(12.1)
2013.12	31,780	(50.2)	321.72	(33.4)	98.78	(12.6)
2014.01	23,646	(1.5)	242.05	(0.5)	97.69	(1.0)
2014.02	18,150	(44.1)	196.47	(67.2)	92.38	(−13.8)
2014.03	14,314	(5.1)	151.31	(11.6)	94.60	(−5.8)
2014.04	20,188	(23.4)	229.22	(39.1)	88.07	(−11.3)
2014.05	23,796	(−18.5)	284.56	(−3.0)	83.62	(−16.0)
2014.06	19,452	(−34.9)	241.91	(−19.0)	80.41	(−19.5)
2014.07	21,466	(−33.6)	289.42	(−13.7)	74.17	(−23.0)
2014.08	23,915	(−17.8)	304.78	(−4.6)	78.47	(−13.8)
2014.09	18,474	(−26.3)	256.32	(−0.2)	72.07	(−26.2)
2014.10	15,502	(−33.1)	252.28	(3.6)	61.45	(−35.4)
2014.11	10,307	(−63.0)	173.26	(−40.6)	59.49	(−37.6)
2014.12	9,373	(−70.5)	172.25	(−46.5)	54.42	(−44.9)

주: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증가율을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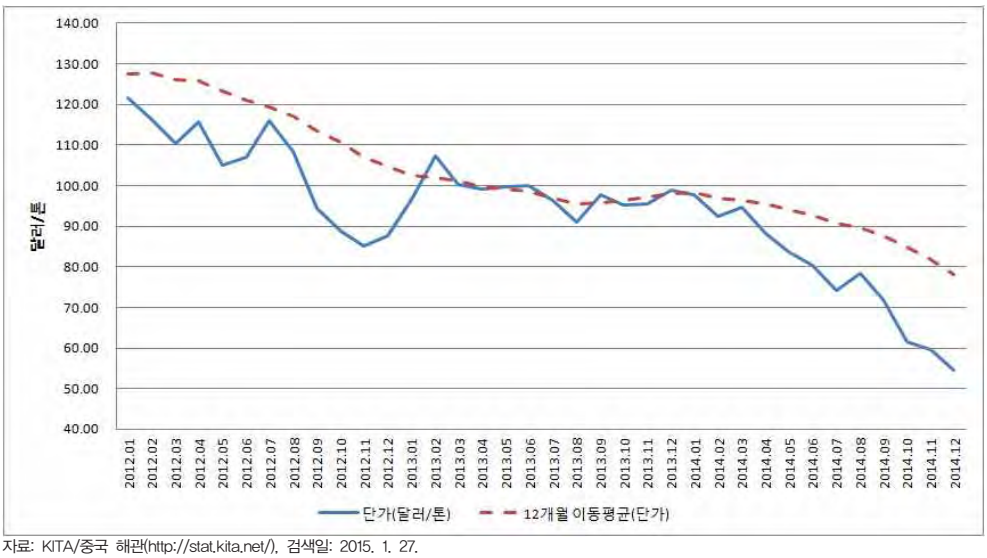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5. 1. 27.

[그림 2-8] 철광석 수출



주: 점선은 수출액과 물량의 12개월 이동평균 수치를 의미함.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5. 1. 27.

[그림 2-9] 철광석 수출단가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5. 1. 27.

〈표 2-10〉 북한의 주요 대중국 수입 상품 1: 석유(HS코드 270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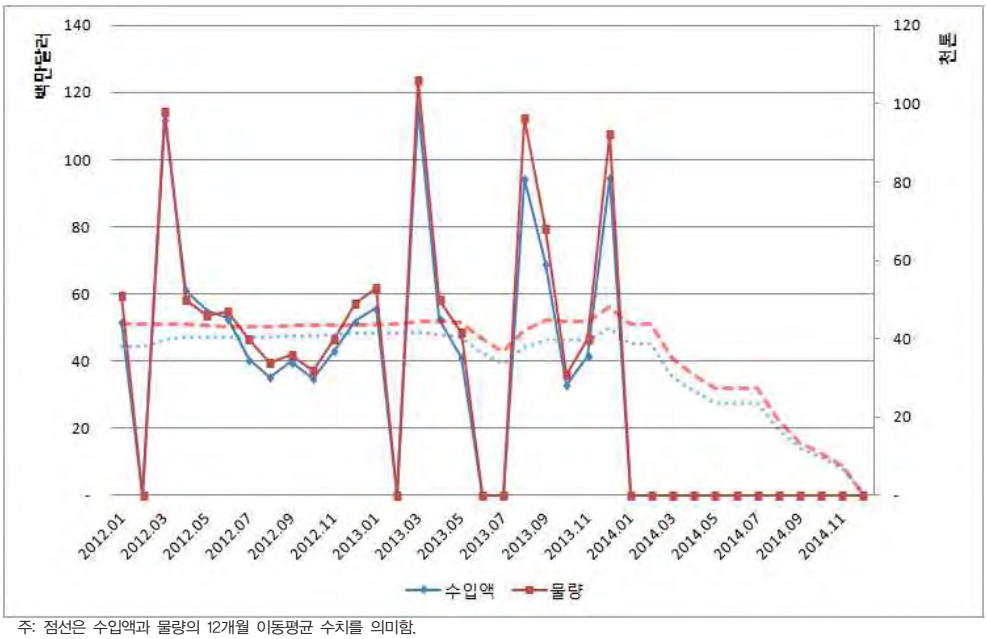
(단위: 천달러, 천톤, 달러/톤, %)

	수입액	(증가율)	물량	(증가율)	단가	(증가율)
2012.01	51,672	(38.4)	51.04	(-2.3)	1,012.28	(41.6)
2012.02	-	(0.0)	-	(0.0)	-	(0.0)
2012.03	112,221	(24.0)	98.00	(0.0)	1,145.12	(24.0)
2012.04	61,001	(19.7)	50.00	(0.0)	1,220.02	(19.7)
2012.05	55,001	(1.7)	46.00	(-6.0)	1,195.67	(8.3)
2012.06	52,633	(0.9)	47.00	(-6.0)	1,119.86	(7.3)
2012.07	40,512	(-1.8)	40.00	(0.0)	1,012.81	(-1.8)
2012.08	35,342	(-2.2)	34.00	(0.0)	1,039.49	(-2.2)
2012.09	39,792	(14.3)	36.00	(5.9)	1,105.35	(7.9)
2012.10	34,791	(10.6)	32.00	(3.2)	1,087.25	(7.2)
2012.11	43,066	(7.6)	40.00	(0.0)	1,076.66	(7.6)
2012.12	51,866	(4.4)	49.00	(2.1)	1,058.49	(2.3)
2013.01	55,840	(8.1)	53.00	(3.8)	1,053.54	(4.1)
2013.02	-	(0.0)	-	(0.0)	-	(0.0)
2013.03	115,977	(3.4)	106.00	(8.2)	1,094.13	(-4.5)
2013.04	52,466	(-14.0)	50.00	(0.0)	1,049.31	(-14.0)
2013.05	41,114	(-25.2)	41.62	(-9.5)	987.75	(-17.4)
2013.06	-	(-100.0)	-	(-100.0)	-	(-100.0)
2013.07	-	(-100.0)	-	(-100.0)	-	(-100.0)
2013.08	94,282	(166.8)	96.38	(183.5)	978.27	(-5.9)
2013.09	69,196	(73.9)	68.00	(88.9)	1,017.59	(-7.9)
2013.10	32,956	(-5.3)	30.77	(-3.8)	1,070.94	(-1.5)
2013.11	41,552	(-3.5)	40.00	(0.0)	1,038.72	(-3.5)
2013.12	94,751	(82.7)	92.22	(88.2)	1,027.41	(-2.9)
2014.01	-	(-100.0)	-	(-100.0)	-	(-100.0)
2014.02	-	(0.0)	-	(0.0)	-	(0.0)
2014.03	-	(-100.0)	-	(-100.0)	-	(-100.0)
2014.04	-	(-100.0)	-	(-100.0)	-	(-100.0)
2014.05	-	(-100.0)	-	(-100.0)	-	(-100.0)
2014.06	-	(0.0)	-	(0.0)	-	(0.0)
2014.07	-	(0.0)	-	(0.0)	-	(0.0)
2014.08	-	(-100.0)	-	(-100.0)	-	(-100.0)
2014.09	-	(-100.0)	-	(-100.0)	-	(-100.0)
2014.10	-	(-100.0)	-	(-100.0)	-	(-100.0)
2014.11	-	(-100.0)	-	(-100.0)	-	(-100.0)
2014.12	-	(-100.0)	-	(-100.0)	-	(-100.0)

주: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증가율을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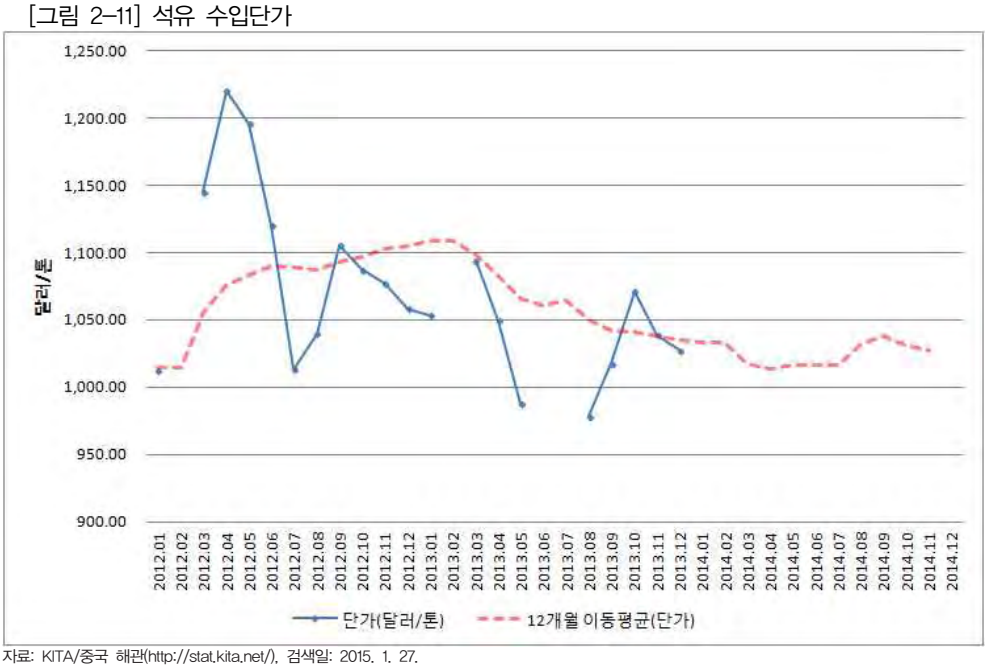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5. 1. 5

[그림 2-10] 석유 수입



주: 점선은 수입액과 물량의 12개월 이동평균 수치를 의미함.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5. 1. 27.

[그림 2-11] 석유 수입단가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5. 1. 27.

〈표 2-11〉 북한의 주요 대중국 수입 상품 2: 식량(쌀・옥수수)(HS코드 쌀: 100630, 옥수수: 100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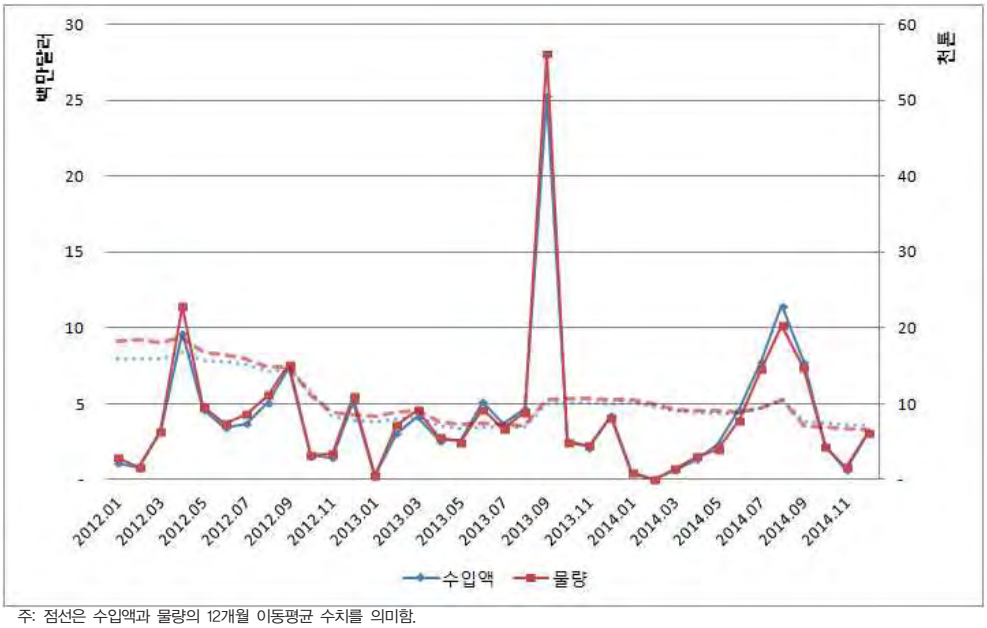
(단위: 천달러, 천톤, 달러/톤, %)

	수입액	(증가율)	물량	(증가율)	단가	(증가율)
2012.01	1,090	(-83.1)	2.92	(-74.4)	372.72	(-34.1)
2012.02	771	(173.3)	1.64	(110.0)	469.29	(30.2)
2012.03	3,142	(-3.7)	6.40	(-37.1)	491.13	(53.1)
2012.04	9,695	(95.4)	22.91	(67.6)	423.14	(16.6)
2012.05	4,652	(-58.2)	9.64	(-70.7)	482.74	(42.8)
2012.06	3,450	(-26.5)	7.35	(-44.1)	469.48	(31.4)
2012.07	3,685	(-33.3)	8.65	(-41.2)	425.97	(13.5)
2012.08	5,081	(-49.7)	11.13	(-53.1)	456.68	(7.2)
2012.09	7,339	(14.0)	15.24	(0.4)	481.62	(13.6)
2012.10	1,599	(-91.2)	3.22	(-93.0)	496.95	(26.5)
2012.11	1,453	(-93.3)	3.39	(-89.3)	428.72	(-37.6)
2012.12	5,126	(-36.5)	10.93	(-24.0)	468.88	(-16.4)
2013.01	227	(-79.2)	0.54	(-81.5)	420.00	(12.7)
2013.02	3,078	(299.5)	7.20	(338.8)	427.28	(-9.0)
2013.03	4,165	(32.6)	9.20	(43.9)	452.55	(-7.9)
2013.04	2,592	(-73.3)	5.66	(-75.3)	457.92	(8.2)
2013.05	2,565	(-44.9)	4.94	(-48.7)	518.76	(7.5)
2013.06	5,149	(49.2)	9.27	(26.1)	555.51	(18.3)
2013.07	3,685	(0.0)	6.71	(-22.5)	549.51	(29.0)
2013.08	4,719	(-7.1)	8.91	(-19.9)	529.75	(16.0)
2013.09	25,276	(244.4)	56.10	(268.1)	450.60	(-6.4)
2013.10	2,586	(61.7)	4.83	(49.9)	535.87	(7.8)
2013.11	2,148	(47.8)	4.55	(34.2)	472.32	(10.2)
2013.12	4,221	(-17.7)	8.19	(-25.1)	515.13	(9.9)
2014.01	527	(132.2)	0.93	(72.6)	565.00	(34.5)
2014.02	-	(-100.0)	-	(-100.0)	-	(-100.0)
2014.03	622	(-85.1)	1.50	(-83.7)	414.54	(-8.4)
2014.04	1,380	(46.7)	3.07	(-45.7)	449.43	(-1.9)
2014.05	2,374	(-7.4)	3.91	(-20.9)	607.03	(17.0)
2014.06	4,641	(-9.9)	7.84	(-15.5)	592.26	(6.6)
2014.07	7,819	(112.2)	14.54	(116.8)	537.72	(-2.1)
2014.08	11,504	(143.8)	20.29	(127.8)	566.91	(7.0)
2014.09	7,784	(-69.2)	14.74	(-73.7)	528.12	(17.2)
2014.10	2,204	(-14.8)	4.31	(-10.7)	511.56	(-4.5)
2014.11	669	(-68.9)	1.59	(-65.0)	420.23	(-11.0)
2014.12	3,068	(-26.8)	6.07	(-25.9)	508.96	(-1.2)

주: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증가율을 뜻함.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5. 1. 27.

[그림 2-12] 쌀·옥수수 수입



주: 점선은 수입액과 물량의 12개월 이동평균 수치를 의미함.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4. 1. 27.

[그림 2-13] 쌀·옥수수 수입단가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5. 1. 27.

Ⅲ. 환율과 시장가격

2014년 북한의 시장환율은 2013년에 비해서는 변동폭이 조금 컸지만 그래도 7천~8천원대 안에서만 움직이며 안정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도 큰 차이는 없었으나 평양 〉 신의주 〉 혜산 순으로 북한원의 화폐 거래가치가 높았다.

〈표 3-1〉 환율

(단위: 북한원/달러)

	데일리NK 월간 전환치 환율			
	평양	신의주	혜산	관찰일수
2012.01	4,400	4,300	4,200	7
2012.02	3,692	3,728	3,687	12
2012.03	3,750	3,780	3,640	2
2012.04	4,150	3,900	3,630	7
2012.05	4,370	4,400	4,500	2
2012.06	4,417	4,441	4,523	12
2012.07	5,400	5,190	5,280	8
2012.08	5,885	5,820	5,890	0*
2012.09	6,370	6,450	6,500	4
2012.10	6,300	6,700	6,460	8
2012.11	7,050	7,350	7,455	0*
2012.12	7,800	8,000	8,450	8
2013.01	8,989	8,844	8,706	9
2013.02	8,300	8,250	8,397	9
2013.03	8,730	8,780	8,510	8
2013.04	8,567	8,657	8,510	9
2013.05	8,470	8,580	8,500	1
2013.06	8,150	8,120	7,860	7
2013.07	8,190	8,180	8,110	5
2013.08	8,190	8,180	8,110	2
2013.09	8,020	8,090	8,140	7
2013.10	8,060	8,120	8,160	0*
2013.11	8,100	8,150	8,180	7
2013.12	8,400	8,260	8,300	7
2014.01	8,400	8,280	8,350	0*
2014.02	8,400	8,300	8,400	7
2014.03	7,300	7,500	7,550	7
2014.04	7,650	7,700	8,000	7
2014.05	7,800	8,140	8,260	7
2014.06	7,300	7,690	8,100	7
2014.07	7,100	7,350	7,500	7
2014.08	7,940	8,120	8,310	7
2014.09	8,100	8,230	8,470	7

	데일리NK 월간 전환치 환율			
	평양	신의주	혜산	관찰일수
2014.10	8,125	8,231	8,460	8
2014.11	8,316	8,450	8,670	13
2014.12	8,000	8,000	8,300	7

주: 1) 관찰일수가 0인 달은 임의로 바로 전 달과 다음 달 환율의 평균을 구함.
2) 데일리NK 환율은 관측기간과 일수가 매우 불규칙한 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자료에서는 이를 월간 단위 환율로 환산하고, 이에 사용된 자료의 관측일수를 별도로 표시함.
자료: 데일리NK(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 검색일: 2015. 1. 5.

[그림 3-1] 북한의 시장환율 추이

(단위: 북한원/달러)

주: 〈표 3-1〉에서 월간 단위로 전환된 환율을 사용함.
자료: 데일리NK(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 검색일: 2015. 1. 5.

쌀가격의 경우 환율과 다르게 변동폭이 컸다. 2014년 7월까지는 2013년부터 이어져 왔던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며 2012년 6월 이후 처음으로 kg당 3천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8월부터 10월 사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6천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 다시 4천원대로 하락한 상황이다.

〈표 3-2〉 시장가격 – 쌀

(단위: kg/북한원)

	데일리NK 월간 전환치 쌀 가격			
	평양	신의주	혜산	관찰일수
2012.01	3,200	3,300	3,300	7
2012.02	2,917	2,933	2,975	12
2012.03	2,800	2,700	2,800	2
2012.04	2,600	2,600	2,800	7
2012.05	3,000	3,100	3,800	2
2012.06	3,117	3,275	3,858	12
2012.07	5,300	4,300	5,000	8
2012.08	6,050	5,400	5,650	0*
2012.09	6,800	6,500	6,300	4
2012.10	6,000	6,100	6,200	8
2012.11	6,200	6,450	6,350	0*
2012.12	6,400	6,800	6,500	8
2013.01	6,578	6,833	6,589	9
2013.02	5,933	5,900	6,533	9
2013.03	6,775	6,850	6,725	8
2013.04	6,050	6,133	6,483	9
2013.05	5,600	5,700	6,300	1
2013.06	5,000	5,400	5,500	7
2013.07	5,400	5,550	5,600	5
2013.08	5,400	5,550	5,600	2
2013.09	4,800	5,100	6,000	7
2013.10	4,950	5,250	5,900	0*
2013.11	5,100	5,400	5,800	7
2013.12	4,000	4,900	4,600	7
2014.01	4,100	4,700	4,550	0*
2014.02	4,200	4,500	4,500	7
2014.03	3,900	4,100	4,550	7
2014.04	3,800	3,900	4,000	7
2014.05	4,200	4,700	4,900	7
2014.06	4,300	4,500	5,050	7
2014.07	4,250	4,380	4,800	7
2014.08	5,800	5,850	6,000	7
2014.09	6,100	6,300	6,750	7
2014.10	6,550	6,288	6,388	8
2014.11	4,746	4,800	5,062	13
2014.12	4,500	4,800	5,500	7

주: 1) 관찰일수가 0인 달은 임의로 바로 전 달과 다음 달 쌀값의 평균을 구함.
2) 데일리NK 쌀값은 관측기간과 일수가 매우 불규칙한 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자료에서는 이를 월간 단위 쌀값으로 환산하고, 이에 사용된 자료의 관측일수를 별도로 표시함.

자료: 데일리NK(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 검색일: 2015. 1. 5.

[그림 3-2] 북한의 시장 쌀 가격 추이

(단위: kg/북한원)

주: 〈표 3-2〉에서 월간 단위로 전환된 쌀 가격을 사용함.
자료: 데일리NK(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 검색일: 2015. 1. 5.

〈표 3-3〉 달러 표시 쌀 가격

(단위: 달러/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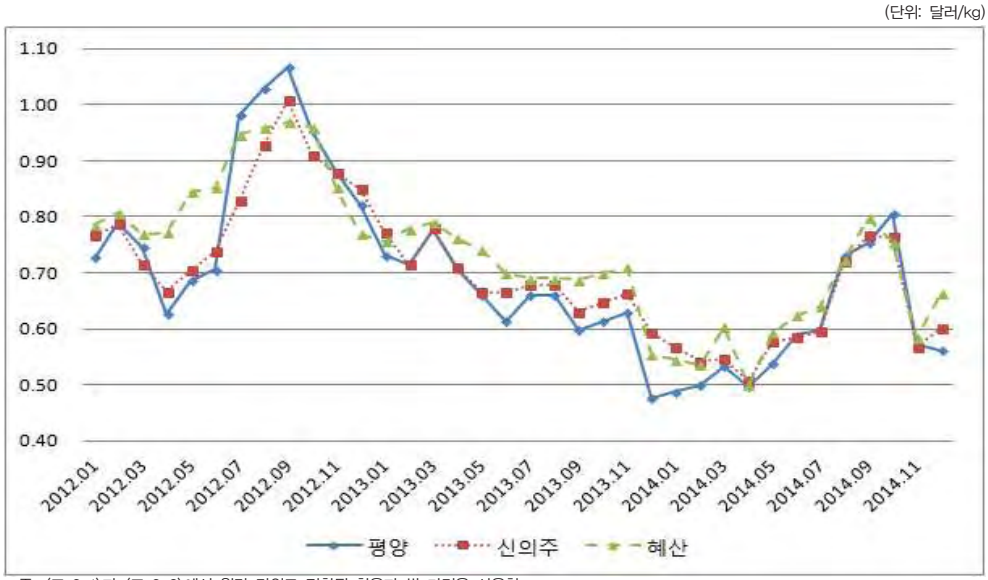
	달러 표시 쌀 가격		
	평양	신의주	혜산
2012.01	0.7273	0.7674	0.7857
2012.02	0.7901	0.7869	0.8070
2012.03	0.7467	0.7143	0.7692
2012.04	0.6265	0.6667	0.7713
2012.05	0.6865	0.7045	0.8444
2012.06	0.7057	0.7375	0.8530
2012.07	0.9815	0.8285	0.9470
2012.08	1.0280	0.9278	0.9593
2012.09	1.0675	1.0078	0.9692
2012.10	0.9524	0.9104	0.9598
2012.11	0.8794	0.8776	0.8518
2012.12	0.8205	0.8500	0.7692
2013.01	0.7318	0.7726	0.7569
2013.02	0.7149	0.7152	0.7781
2013.03	0.7761	0.7802	0.7902
2013.04	0.7062	0.7085	0.7618

	달러 표시 쌀 가격		
	평양	신의주	혜산
2013.05	0.6612	0.6643	0.7412
2013.06	0.6135	0.6650	0.6997
2013.07	0.6593	0.6785	0.6905
2013.08	0.6593	0.6785	0.6905
2013.09	0.5985	0.6304	0.6880
2013.10	0.6141	0.6466	0.6985
2013.11	0.6296	0.6626	0.7090
2013.12	0.4762	0.5932	0.5542
2014.01	0.4881	0.5676	0.5449
2014.02	0.5000	0.5422	0.5357
2014.03	0.5342	0.5467	0.6026
2014.04	0.4967	0.5065	0.5000
2014.05	0.5385	0.5774	0.5932
2014.06	0.5890	0.5852	0.6235
2014.07	0.5986	0.5959	0.6400
2014.08	0.7305	0.7204	0.7220
2014.09	0.7531	0.7655	0.7969
2014.10	0.8062	0.7639	0.7551
2014.11	0.5707	0.5680	0.5839
2014.12	0.5625	0.6000	0.6627

주: 달러 표시 쌀 가격(kg 당 쌀 가격) = 쌀 가격 / 환율
자료: 데일리NK(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 검색일: 2015. 1. 5.

[그림 3-3] 북한의 달러 표시 쌀 가격 추이

(단위: 달러/kg)



주: 〈표 3-1〉과 〈표 3-2〉에서 월간 단위로 전환된 환율과 쌀 가격을 사용함.
자료: 데일리NK(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 검색일: 2015. 1. 5.

Ⅳ. 식량

1. 생산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FAO와 통계청에 따르면 세부수치의 차이가 있지만 2013년에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FAO에서는 북한이 2013년에 쌀은 290만톤, 옥수수는 196만톤 가량 생산한 것으로 나왔으며, 통계청에서는 쌀은 210만톤, 옥수수는 176만톤 가량 생산한 것으로 나왔다. 다만 FAO의 2012년 및 2013년 수치는 비공식 수치임을 표기해 두었으며, 통계청의 경우 2010년 및 2011년 쌀과 옥수수 생산량 수치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사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표 4-1〉 생산

(단위: 천M/T)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FAO	쌀	1,690	2,060	2,186	2,244	2,370	2,583	2,479	1,870	2,862	2,336	2,426	2,479	2,681*	2,901*
	옥수수	1,041	1,483	1,651	1,725	1,727	1,630	1,750	1,587	1,411	1,705	1,683	1,857	2,000*	1,960*
	계	2,731	3,543	3,837	3,969	4,097	4,213	4,229	3,457	4,273	4,041	4,109	4,336	4,681	4,861
통계청	쌀	1,424	1,680	1,734	1,720	1,795	2,024	1,895	1,527	1,858	1,910	–	–	2,037	2,101
	옥수수	1,440	1,588	1,636	1,710	1,674	1,630	1,751	1,587	1,544	1,301	–	–	1,732	1,762
	계	2,864	3,268	3,370	3,430	3,469	3,654	3,646	3,114	3,402	3,211	–	–	3,769	3,863

주: *는 비공식 수치를 의미함.
자료: FAO(http://faostat.fao.org/), 통계청(http://kosis.kr/bukhan/), 검색일: 2015. 1. 5.

2. 원조

FAO에 의하면 국제기구의 북한에 대한 곡물원조는 2014년에 11천톤 정도만 이루어졌으며, 이 수치는 2006년 이후 최저이다.

〈표 4-2〉 원조

(단위: 천M/T)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곡 물 (Cereals)	1,136	1,426	1,033	892	824	1,037	1.6	710	339	274	76	75	332	30	11

자료: FAO(http://faostat.fao.org/), 검색일: 2015. 1. 5.

V. 북한의 중국 방문자 수 추이

중국 국가여유국(国家旅游局)에 의하면 2014년 3분기까지 북한의 방중 인원수는 약 14만명 정도로 2013년 같은 기간에 비해 6%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방중 인원은 2010년 이후 매년 10~30% 늘어나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 왔는데, 2014년에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거에 비해 여행이나 친지 및 지인 방문 목적보다는 출장이나 파견근무 목적으로 중국에 가는 비중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표 5-1〉 방중인원

(단위: 만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9
총방문자수		12.58	11.01	11.37	10.18	10.39	11.64	15.23	18.06	20.66	13.98
증가율(%)		(12.27)	(-12.48)	(3.25)	(-10.42)	(2.02)	(12.04)	(30.86)	(18.56)	(14.42)	(-6.47)
입국 방식	선 박	2.79	2.82	3.98	3.69	3.58	4.51	6.22	6.81	7.90	5.65
	비 행	1.98	2.51	2.90	2.76	2.78	3.00	3.39	3.81	3.32	2.54
	기 차	1.96	1.65	2.35	1.92	2.19	1.68	1.91	1.85	3.70	2.84
	자동차	5.39	3.57	1.67	1.43	1.46	1.98	3.18	5.03	4.94	2.51
	도 보	0.47	0.45	0.47	0.38	0.38	0.47	0.52	0.56	0.79	0.44
나 이	14세 미만	0.11	0.11	0.09	0.07	0.09	0.08	0.13	0.13	0.15	0.13
	15~24세	0.56	0.61	0.77	0.63	0.59	0.73	1.12	1.89	2.38	1.24
	25~44세	7.08	5.61	5.33	4.52	4.65	4.91	6.48	7.63	8.85	5.51
	45~64세	4.59	4.47	4.97	4.79	4.86	5.70	7.29	8.17	9.06	6.94
	65세 이상	0.22	0.20	0.21	0.17	0.19	0.22	0.21	0.24	0.23	0.17
성	남 성	11.39	9.71	10.01	8.93	9.18	10.20	13.05	14.12	15.75	11.32
	여 성	1.19	1.29	1.36	1.26	1.21	1.44	2.18	3.94	4.91	2.66
목 적	출 장	2.92	2.69	2.06	1.83	1.94	2.53	3.90	5.52	5.51	2.67
	여 행	0.40	0.54	0.79	0.49	0.41	0.43	0.46	0.45	0.29	0.11
	친지 / 지인방문	0.21	0.15	0.03	0.07	0.03	0.04	0.01	0.02	0.03	0.01
	파견근무	6.48	5.08	5.42	4.68	5.21	5.39	7.53	7.96	9.33	6.59
	기 타	2.58	2.55	3.07	3.12	2.80	3.24	3.33	4.11	5.50	4.60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China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http://www.cnta.gov.cn/), 검색일: 2015. 1. 5.

신년사 경제부문 비교(2010~15년) 및 국내외 분석자료

김 옥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 kimok@kdi.re.kr

1월 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3년에 이어 올해 3번째 육성 신년사를 발표했다. 신년사에서는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 및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는 가운데, 특히 대남 분야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 자세히 언급했다. 경제부문은 과학기술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과 대외경제 발전을 언급한 점이 예년과 다른 점이며 이외 경제부문별 과업은 예년과 대동소이하다.

본 자료에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의 신년공동사설・신년사의 구호, 전년도 경제부문 성과, 올해 경제부문 목표, 경제건설부문의 주요과업을 정리했다. 또한 신년사에 나타난 정책적 변화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공개된 주요 분석자료와 언론보도도 정리하여 제공한다.

Ⅰ. 신년사(2010~15년) 경제부문 비교

1. 구호

연도	구호
2015	▪ 모두다 백두의 혁명 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2014	▪ 승리의 신심 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2013	▪ 우주를 정복한 정신과 기백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2012	▪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 훈련도 전투다! ▪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자! ▪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
2011	▪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 ▪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2010	▪ 당 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 ▪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첨단을 돌파하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자! ▪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 인민을 돕자! ▪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2. 전년도 경제성과

연도	전년도 경제성과
2015	▪ 당의 영도밑에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최후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떨친 빛나는 승리의 해 ▪ 군민협동작전으로 사회주의 경제강국과 문명국 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룸 – 어려운 환경과 불리한 조건에서도 지난해 농업과 수산, 과학, 석탄전선을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생산적 앙양이 일어나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음 – 건설부분에서는 조선속도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위성과학자주책지구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소, 10월 8일공장을 비롯하여 주체건축의 기준과 표준으로 되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움 – 부강조국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 장병들은 결사관철의 정신과 일당백 기상으로 생산과 건설, 현대화 실현에서 돌파구를 열고 훌륭한 전형단위들을 창조
2014	▪ 지난해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이 제시한 새로운 병진노선을 받들고 총공격전을 벌여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자랑찬 해 ▪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 단위들에서 생산적 앙양이 일어나고 자립적 경제의 토대가 더 튼튼히 다져졌으며 특히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어려운 조건과 불리한 자연기후 속에서도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

연도	전년도 경제성과
	▪ 마식령속도를 창조할 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떨쳐나선 인민군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불타는 애국의 열정과 헌신적인 투쟁으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많은 대상들을 짧은 기간에 노동당시대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움 ▪ 세포등판 건설을 비롯한 대건설 전투에 떨쳐나선 건설자들은 부닥치는 난관을 이겨내며 자연을 길들여 당의 원대한 구상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 놓음 ▪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준비가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과학기술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으며 현대적인 의료시설들이 갖추어져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가 개선됨
2013	▪ 지난해에 복잡하고 첨예한 정세와 련이어 들이닥친 혹심한 자연재해속에서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견인불발의 의지와 백절불굴의 투쟁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함 – 희천발전소와 단천항을 완공한것을 비롯하여 주체화, 현대화가 실현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일떠세우고 기간공업부문의 중요생산기지들을 개건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다짐 ▪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앙양된 애국적 열의에 떠받들려 평양시에 창전거리와 릉라인민유원지를 비롯한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일떠서고 전국도처에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시설들이 수많이 꾸려짐
2012	▪ 김정일의 정신적 영도로 강성국가건설에서 대혁신·대비약이 일어난 승리의 해 – 희천발전소를 비롯하여 2012년 축전을 기념할 기념비적 건축물들 건설 – 경공업공장 개건 완비, 현대화된 축산, 양어, 대규모 과일생산기지들 마련 ▪ 평양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꾸리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 룡림과 대흥, 회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선경마을 건설
2011	▪ 강성번영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난 거창한 변혁의 해 ▪ 민족사에 특기할 정치적 대경사들을 통하여 우리 당과 혁명의 양양한 전도와 불패성이 과시 ▪ 강성대국의 리상을 전면적으로 꽃피울수 있는 토대가 축성 – 경공업과 화학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련관된 공업부문들에서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를 대량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휘황한 전망이 열려짐 – 정보기술, 핵기술과 같은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혁혁한 성과들이 이룸
2010	▪ 조국청사에 특기할 변이 난 해, 인민의 모든 리상이 실현되는 희한한 시대가 펼쳐진 극적인 전환의 해 ▪ 지난해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놀라운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남 –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성과적으로 발사, 제2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 – 성강에서 주체철생산체계 완성, CNC기술이 세계의 첨단을 확고히 돌파 – 태양절과 5.1절, 10월의 명절에 펼쳐진 축포야회 –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 생산이 획기적으로 장성하고 전반적인 공업부문 활성화 –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가 창조 – 녕원발전소와 원산청년발전소, 미루벌물길, 만수대거리 살림집과 같은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 건설 – 남흥가스화대상공사가 완공되고 중요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 추진 –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에서 비약적인 성과 달성 및 협동농장들이 강성대국 리상촌으로 변화 – 방직공업과 식료가공공업을 비롯한 경공업부문의 생산토대와 잠재력이 훨씬 강화

3. 경제목표

연도	경제목표
2015	▪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회주의 경제강국, 문명국 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함 ▪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함 ▪ 인민경제의 기본 동력인 전력문제 해결에 큰 힘을 넣으며 선행부문과 주요공업 부문들을 추켜 세우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함 ▪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금속, 화학공업을 부문을 비롯한 기간공업 부문들을 발전시키고 철도운수를 추켜 세워 모든 경제부문들이 활기를 띠고 원활하게 전진하도록 해야 함 ▪ 대외경제 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들을 비롯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함 ▪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함
2014	▪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 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 ▪ 올해에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과학기술부문의 앞장에서 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나가며 그 봉화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여야 함 ▪ 올해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타격 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함 ▪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 잠재력과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는 것과 함께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함
2013	▪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전투적 구호를 높이 받들고 생산적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함 ▪ 경제사업의 핵심 추진목표로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음 – 첫째,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 강화와 적극적인 활용 – 둘째, '인민생활'의 안정과 향상 ▪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 석탄, 전력, 금속, 철도운수부문을 확고히 앞세우고 경제강국건설의 도약대를 튼튼히 다져야 함
2012	▪ 우리 당의 웅대한 강성부흥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함 –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에 다진 맹세를 지켜 장군님의 강성부흥구상을 실현하는 투쟁에 모든 힘과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야 함
2011	▪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함 – 인민생활향상을 최대의 중대사로, 최고의 투쟁목표로 틀어쥐고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투철한 입장임
2010	▪ 우리는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여야 함 – 혁명적대고조의 불길 드높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일대 공세를 벌리는 것, 이것이 올해의 총적인 투쟁방향임

4. 경제건설의 주요 과업 및 방침

연도	경제건설의 주요 과업 및 방침
2015	▪ '과학기술의 힘'을 통한 경제발전 및 인민생활 향상 강조 ▪ 농업·축산·수산 3대 축으로 먹는 문제 해결 ▪ 경제개발구(원산·금강산 등)사업 등 대외경제 다각적 발전 시도 ▪ 경공업 생산 정상화로 소비품 공급 보장 ▪ 석탄공업 부문과 화력발전소 혁신 등을 통하여 전력문제 해결 ▪ 산림복구 및 수림화·원림화·과수원화 ▪ 공장·기업소 원료·자재·설비 국산화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확립 및 기업체의 주동성·창발성, 당적 지원 강조
2014	▪ 농업 주타격 방향, 건설의 번영기,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구호 강조 ▪ 금속, 화학공업은 경제강국의 쌍기둥 ▪ 전력 및 석탄 증산·철도운수 개선 ▪ 경공업 CNC화, 국산화, 지방공업 발전 ▪ 고깃배·어구 현대화, 바닷가 양식 ▪ 지하·산림·해양자원 보호, 나무심기 ▪ 전사회적으로 절약투쟁 강화 ▪ 경제사업 지도·관리 관련,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기업체의 책임성·창발성 강조
2013	▪ 생산적 앙양을 위한 총돌격전·사회주의 증산경쟁 강조 ▪ 농업과 경공업은 여전히 올해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알곡생산목표 달성, 원자재 보장) ▪ 석탄, 금속공업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여야 함 ▪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와 관리를 개선
2012	▪ 함남의 불길은 2012년의 위대한 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의 기치 새로운 전환의 기치 ▪ 강성국가 건설의 주공전선은 경공업 – 식량문제 해결이 강성국가 건설의 초미의 문제 ▪ 4대 선행부문 및 기초공업부문의 생산력 강화 – 새로운 100년 대진군을 다그치기 위한 돌파구 ▪ 새 세기 산업혁명은 우리 식의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
2011	▪ 경공업은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임 ▪ 4대 선행부문 및 화학공업기지의 생산 정상화 – 석탄공업부문, 전력공업부문, 금속공업부문, 철도부문은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밑불이 되어야 함 – 경공업혁명은 곧 화학혁명 ▪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관건적고리로 틀어쥐고 나가야 함 ▪ 과학기술수준을 최단기간내에 뛰여넘어 지식경제시대의 전렬에 서야 함 ▪ 자력갱생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야 함 ▪ 경제관리를 개선해야 함 ▪ 국방공업은 선군조선의 강대성의 원천이며 인민생활향상의 믿음직한 담보
2010	▪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농업혁명방침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이미 다져진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갈때 인민생활에서는 일대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임 –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여야 함

5. 경제부문별 과제

연도	경제부문별 과제
2015	▪ 경공업부문 – 인민들 앞에 지닌 책임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자체로 일떠 세우기 위한 책략을 세우며 중앙과 지방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 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 우리 인민들과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질 좋은 소비품들과 학용품, 어린이 식료품들을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함 ▪ 과학기술부문 –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회주의 경제강국, 문명국 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함 – 최첨단 돌파전을 힘있게 벌여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아야 함 –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통해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함 ▪ 농업부문 –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 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함 – 농업부문에서 물 절약형 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 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전국 도처에 마련해 놓은 축산기지와 양어기지, 온실과 버섯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함 ▪ 화학공업부문 – (석탄공업 및 전력공업) 석탄과 전력생산을 늘이며 전기를 극력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 전력수요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현실성 있게 세워나가야 함 –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금속, 화학공업을 부문을 기간공업 부문들을 발전시키고 철도운수를 추켜 세워 모든 경제부문들이 활기를 띠고 원활하게 전진하도록 하여야 함 ▪ 대외경제 – 대외경제 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들을 비롯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함 ▪ 건설부문 – 조선속도 창조의 열풍을 고조시켜 발전소와 공장, 교육문화 시설과 살림집들을 노동당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로 일떠 세워야 함 ▪ 기타 – 우리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함 – 인민경제의 기본 동력인 전력문제 해결에 큰 힘을 넣으며 선행부문과 주요공업 부문들을 추켜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함 –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함 – 각급 당조직들에서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는 사업이 당의 의도에 맞게 진행되도록 당적으로 강하게 밀어주어야 함.
2014	▪ 농업부문 –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이고 농업생산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여 사회주의 농촌체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여야 함 – 과학적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함 – 축산을 적극 발전시키고 온실남새와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고기와 남새, 버섯이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하여야 함 ▪ 건설부문 –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고산과수농장건설, 간석지건설, 황해남도 물길공사를 비롯한 주요 대상 건설을 다그쳐 제 기일에 완공하도록 하여야 함 – 살림집 건설과 합숙건설,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며 문화봉사기지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일떠세워야 함 ▪ 전력부문 – 살림집 건설과 합숙건설,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며 문화봉사기지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일떠세워야 함 ▪ 화학공업부문

연도	경제부문별 과제
	–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적극 늘이고 철도운수를 비롯한 교통운수 문제를 결정적으로 풀며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에서 연대적 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해 나가야 함 ▪ 경공업부문 – 경공업공장들에서 현대화, CNC화를 적극 다그치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여 생산을 정상화하며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여러 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함 ▪ 수산부문 – 수산부문에서는 최고사령관 명령을 결사 관철하여 물고기 대풍을 마련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고깃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물고기잡이 전투를 힘있게 벌여 포구마다에 만선의 뱃고동 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며 바닷가양식도 대대적으로 하여야 함 ▪ 기타 –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함
2013	▪ 석탄·금속공업부문 – 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전반적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해야 함 ▪ 농업부문 – 농업과 경공업은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이며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여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며 경공업공장들에 대한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질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함 ▪ 축산과 수산, 과수부문 – 결정적으로 추켜세워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더욱 풍족하게 하여야 함 ▪ 과학기술부문 –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우리의 자원과 기술로 생산을 늘이며 나아가서 설비와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함
2012	▪ 경공업부문 –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며 이미 있는 발전소들의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여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 4대선행부문 및 화학공업부문 – (석탄공업) 화력발전소와 화학공장금속공장들에 필요한 석탄을 보장하는데 힘을 집중하며 새 탄밭들을 적극 개발하여야 함 – (금속공업부문) 주체철생산능력을 더 높이고 우리의 연료에 의한 고온공기연소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압연 ▪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쳐야 함. – (철도부문) 나라의 철길을 일신시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철도수송능력을 높이고 철도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함. – (화학공업부문) 주체비료생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그 생산능력을 부쩍 높이고 비날론을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섬유 합성수지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하여야 함 ▪ 기타 – 최신식 CNC공작기계생산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련하의 개척정신 련하의 창조기풍으로 전반적 기술장비 수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워야 함 – 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핵심 기초기술과 중요부문 기술공학 발전에 더 큰 힘을 넣으며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 수 있는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함
2011	▪ 경공업부문 – 경공업의 해인 올해에 경공업부문을 우선시하고 여기에 총력을 집중하는 일대 선풍이 온 나라에 휘몰아치게 하여야 함 –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함 – 1차소비품을 비롯하여 인민생활에 널리 쓰이는 필수품생산에 힘을 집중하면서 전반적 소비품생산을 확대강화해 나가야 함 – 소비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여나가야 함 – 인민소비품생산의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함 –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며 자체의 원료원천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지방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야 함. – 8월3일 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가능한 모든 단위들에서 생활필수품생산을 부쩍 늘여야 함 – 상품공급사업과 급양봉사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여야 함

연도	경제부문별 과제
	▪ 4대선행부문 및 화학공업부문 – (석탄공업) 채굴조건이 좋은 탄광들에 힘을 집중하고 새 탄밭들을 개발하여 석탄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함 – (전력공업) 전설비들의 만부하, 만가동을 보장하고 송배전체계를 개선완비하는데 힘을 넣어야 함. – (금속공업) 철강재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함 – (철도) 전반적수송수요를 원만히 풀어야 함 – (화학)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섬유와 수지, 각종 기초화학제품들, 비료와 농약을 더 많이 보장해 주어야 함 ▪ 농업부문 –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유기농법을 비롯한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여야 함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농사에 필요한 물자들을 영농공정에 앞세워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함 ▪ 기타 – 기계공업뿐 아니라 전반적 공업부문에서, 중앙공업뿐 아니라 지방공업에서도 첨단돌파의 열풍이 세차게 몰아치게 하여야 함 – 풍부한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 필요한 원료도 해결하고 자금도 확보해나가야 함 – 국방공업부문은 앞으로도 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 경제전반을 이끌어나가는 기관차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함
2010	▪ 경공업부문 –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함 – 지방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가능한 모든 단위들에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선풍을 일으켜야 함 – 인민생활과 관련된 부문들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이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공업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들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야 함 ▪ 농업부문 –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콩농사 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함 – 주체농법의 요구를 지키며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받아들여야 함 – 주체적인 육종체계가 서고 실리주의원칙이 구현된 현대적인 축산, 양어, 과일생산기지들이 현실에서 커다란 은이 나타나게 하여야 함 ▪ 금속공업부문 – 우리의 원료, 연료에 의거한 주체철생산능력을 늘이고 당이 제시한 선철과 강철, 압연강재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함 ▪ 전력공업부문 – 화력발전소들의 만부하를 보장하는데 힘을 집중하면서 희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한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 석탄공업부문 – 화력발전소들과 화학공장들을 비롯한 중요대상들에 필요한 석탄을 무조건 생산보장하고 현대화를 다그쳐 생산능력을 부단히 높여야 함 ▪ 철도운수부문 – 군대와 같은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우고 새로운 기관차와 화차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철도의 현대화, 철길의 중량화를 실현하여야 함 ▪ 기계공업부문 –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CNC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공구혁명을 일으켜 성능높은 첨단기계 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함 ▪ 기타 –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들을 철저히 구현하여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 혜택의 참다운 향유자로 되게 하여야 함 – 평양시의 10만 세대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내밀며 도시와 농촌들에 21세기의 사회주의 선경거리, 선경마을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함 – 상품류통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인민봉사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함 –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며 자체의 기술개발능력, 제품개발능력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 현대화, 과학화를 전망성 있게 진행하여야 함

II. 신년사 분석 소개

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대내외 전망[1)]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 2015년 신년사의 주요 특징은 대내외 정세에 대한 북한 정권의 위구심을 반영한 것과 대남관계에 대해 비교적 많은 분량을 할애한 점
- 경제정책 제시에 앞서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의 3가지에 대해 비교적 많은 분량으로 서술한 점으로 보아 대내외 정세에 대한 북한의 위구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대남 및 대외 부문에 대해 이례적으로 많은 분량 할애함
- 이처럼 남북관계를 장황히 언급한 이유는 첫째, 기본입장을 고수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탐색하겠다는 것. 둘째, 통일준비위원회의 발족에 따라 통일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대내외에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셋째,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이 공동행사 개최 등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내외 압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북한이 선제적으로 자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음

■ 2015년에는 격한 동원성 구호가 등장하지 않는 대신에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정상화하고 최대한 활용한다'는 식의 정책을 내세워 물가와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

■ 경제분야 과업은 예년과 대동소이하며 경제정책 노선에서 큰 변화가 없음

■ "국방공업 부문에서는 당의 병진노선을 관철하여 군수생산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우리식의 위력한 최첨단 무장장비들을 적극 개발하고 더욱 완성해나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정책은 내부의 각종 자원 분배에서 여전히 국방부문이 최우선시 될 것임을 예고함

■ 이번 신년사에서 경제정책이 비교적 온건하게 설정되어 있지만 노동당 창건 70돌을 기념하기 위해 중도에 경제정책을 급진적 동원정책으로 바꿀 가능성도 존재

1)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대내외 전망」, 2015. 1. 1.

2. 2015년 김정은의 신년사와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전망[2)]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북한 신년공동 사설과 신년사를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해보면 2012년에는 군중시를 의미하는 '선군(先軍)'이, 2013년과 2014년에는 '강성국가(또는 강성대국)'가, 그리고 2015년에는 남북관계를 의미하는 '북남'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언급됨

■ 이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올해 북한이 남북 대화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까지 타진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됨

■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전망과 예상 의제

- 김정은 제1비서가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향을 밝힌 것도 남한과의 관계 개선 없이는 중국 및 미국과의 관계 개선도 어렵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한국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민간교류 확대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작업 구체화, 대북 개발협력, 나진-하산 사업과 같은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 대북전단 살포와 한미연합군사 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대남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문제 등이 주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2) 정성장, 「2015 김정은의 신년사와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전망」, 『세종논평』, 2015. 1. 5.

Ⅲ. 북한 신년사 관련 국내외 보도

1. 국내보도

〈북한 신년사, 희망 가질 객관적 근거 없다〉

북한 신년사는 상투적인 내용과 어법이 거의 전부를 차지만 그럼에도 신년사를 주목해야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최고지도자'의 이름으로 올해 북한정권이 나아갈 방향을 천명하는 것인 만큼 새로운 내용이 들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하기 때문.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남북대화를 제의하였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이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 실제로 2015년 북한의 신년사에는 남북대화에 대한 언급이 꽤 있고, 한국 언론들이 이 점을 비중 있게 다룰 것임은 명백함. 필자는 김정은 정권의 개과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이유나 객관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구조적으로 그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신년사에 언급된 남북대화에 대한 긍정적 반응 역시 회의적으로 보고 있음. Daily NK, 1.1

〈신년사 20%가 남북관계 … 자신감 넘친 김정은〉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며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안하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모습은 2013년 처음 카메라 앞에서 신년사를 할 때의 불안한 모습과는 딴판. 이번 신년사는 과거 신년사에 비해 대남 메시지에서 '통일'이란 단어를 18번 사용했고, 분량도 전체 1만504자 중 2007자로 5분의 1을 남북문제에 할애함. 북한 내부를 향한 메시지도 다소 변화가 있음. 북한은 최근 몇 년간 신년사 맨 앞에 경제정책을 밝혔지만 올해는 '정치사상강국' 건설을 앞세워 "당의 위력한 무기인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자"고 강조함. 경제분야에선 농·축·수산을 3대 축으로 삼아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을 목표로 삼고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들을 비롯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해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주요 대남 요구사항이 될 것임을 시사함. 중앙일보, 1.2

〈美-中전문가가 본 김정은 신년사〉

1일 대외관계 발전을 강조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에 대해 미중 전문가들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와 "아직 북한의 변화 시그널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함. 미국의 북한 전문가 대니얼 핑크스턴 국제위기기구(ICG) 동북아부국장은 1일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 "새로운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않은 채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평가함. 최근 미국 행정부 및 유엔 관계자들을 연쇄 접촉한 핑크스턴 국장은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한 한국과 달리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감성적 책무(emotional commitment)가 없다"며 "북-미 관계는 올 한 해 남북 관계보다 더디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중국의 외교전문가 스인훙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김정은의 신년사 내용에 대해 "김정은은 작정하고 중국을 따돌리려는 것 같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까지 가는 길 역시 멀고도 험하다…."고 평가함. 이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 최고위급 대화를 언급한 것은 결국 러시아와 일본에 이어 미국, 한국과도 스킨십을 늘리겠다는 의미"라고 진단함. 그러나 스 교수는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이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이 이뤄지는 즉시 남북 관계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김정은의 유화적 수사가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함. 단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 경제개발 등을 언급한 것에 주목함. 동아일보, 1.2

〈북한 "남북관계 개선 협의 준비…고위급접촉도 가능"〉

북한은 20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문제를 '대범하게' 풀어나갈 준비가 돼 있다며 고위급접촉 재개 가능성을 내비침. 북한 정부・정당・단체들은 이날 오후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정은 신년사 관철' 연합회의를 열고 "공화국(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대범하게 풀어나갈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이어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온다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하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회의에서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에 대해 "더 이상 남조선 당국을 동족대결로 부추기지 말아야 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연합뉴스, 1.20

〈북한 '신년사 관철' 호소문, 청와대 · 국회 등에 발송〉

북한이 '정부 · 정당 · 단체 연합회의'에서 채택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21일 판문점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 등에 보내옴. 통일부는 이날 "북한은 금일 오후 4시경 판문점 채널을 통해 어제 북한이 정부 · 정당 · 단체 연합회의에서 채택한 '호소문'을 연합회의 명의 서한으로 청와대 · 국회의장 · 새누리당 · 새정치민주연합 · 대한적십자사 등 5개 기관 앞으로 보내왔다"며 "정부는 동 서한을 각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힘. 북한은 전날 '김정은 신년사 관철'을 위한 정부 · 정당 · 단체 연합회의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며 우리측에 '무모한 체제통일론' 포기와 대북전단 살포 저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채택함. 아시아투데이, 1.21

2. 해외보도

〈김정은 신년사, 지난 3년간 어떻게 변했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함. 김 제1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앞으로 대화와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김 제1위원장은 앞서 2013년과 2014년 신년사에서도 남북 대결상태 해소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마련을 촉구했음. 하지만 당시 구체적인 남북관계 진전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평가됨.

경제 분야에서는 농산과 축산, 수산업이 강조됨. 앞서 김 제1위원장은 2013년에는 경제 분야에서 농업과 경공업을 주력 분야로 제시했고, 지난해에는 농업을 핵심적인 사업으로 제시했음. 김 제1위원장은 또 올해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밝혀,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음. 반면, 경제관리 분야에서는 올해도 여전히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강조됐을 뿐, 새로운 정책방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올해 신년사에서는 이른바 '백두의 혁명정신'도 강조되어 지난 2013년과 2014년 신년사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백두'란 표현을 올해는 무려 11 차례 사용함. Voice of America, 1.1

〈한국 내 탈북자들이 본 북한 신년사 "북한 기대하면 안 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가 한국에서 연일 화제. 남북간 최고위급 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경제 부문과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했는데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신년사를 하는 김정은의 눈길과 동작이 지난해보다 더 어색해 보였다", "김일성은 연설할 때 세련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김정은은 마치 토론준비 없이 연단에 나선 학생을 보는 것 같았다", "새해 신년사 원문이 너무 길어서 어떻게 외워야 할 지 걱정부터 앞선다" 등 반응을 보임.

한국에 온 탈북자들이 신년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북한 고위 간부 출신 탈북자 이모 씨는 또 다시 북한 집권층이 주민들에게 고통의 동참을 호소했다고 지적함. 이 씨는 또 남북 간 최고위급 회담과 관련해 조건부적으로 말했으므로 분위기나 환경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한국 정부나 언론이 앞서 가서는 곤란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함. 탈북자 북송 반대운동을 하는 또 다른 탈북자 김모 씨는 북한이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함. 김 씨는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모방해서 할아버지처럼 폭넓은 정치를 열어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거라고 말함. 결국 북한 주민들을 유일사상체계에 묶어 두고서는 북 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어렵다고 지적한 김 씨는 북한의 집권층이 아닌 주민들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Voice of America, 1.2

〈북한, 자주적 외교 시작하지만 상황개선 여전히 어려워〉

외신보도에 의하면 올해 북한은 외교 부문에서 다소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심지어 박근혜 한국 대통령까지 북한과의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밝힘. 미국『워싱턴포스트』1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북한전문가 존 델루리 교수는 "김정은이 2015년을 시작으로 각국의 정상과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함. 일본 아베신조 총리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갖고 현재 진행 중인 일본인납치문제에 대해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위해 북한과 대화 하겠다고 밝힘. 분석전문가에 따르면, 북한과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김정은의 북한 내부 사정과 발전을 위한 그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음.

영국『Daily Telegraph』1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미 러시아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겠다고 밝힘. 해당 보도에서는 북한이 항상 적국을 위협하기 때문에 여타 국가의 정상들은 북한과의 접촉을 원치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은 상황. 보도에서는 북한이 2013년 2월부터 제3차 핵실험 계기로 북・중 관계가 소원해졌고, 국제적 압박을 받을 위기에 처했지만 이후 몇 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단행하고 UN제재의 해제를 요구함.

싱가포르『연합조간(联合早报)』에 따르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한국에 올리브가지(평화)를 내민 것은 한국과 조건없이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 이로부터 김정은은 국내적으로 안정을 찾고 건강이 회복되어 올해부터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됨. 그러나 외교활동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실질적 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또한 올해 북한과 한국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회담은 미국의 대북 제재에 방해요소가 되지 않으며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양측의 여론에 영향력이 매우 클 것. 参考消息网(신화통신사 주관 포털사이트), 1.16

〈북, 미국과 한국에 외교 공세〉

18~19일 북한의 6자회담 대표인 이용호 외무성 부상이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전직 관리와 만날 예정. 북한은 연초 한국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시한 데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과 직접 대화해 과거와 다른 외교행보를 보이고 있음. 김정은은 신년사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 남북관계를 언급했고, 북남 사이에는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해야 한다고 말해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언급함.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임. 북남 양측에는 전제조건에 있어서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대화가능성이 보인다는 데에서 희망이 있어 보임. 북남 정상회담에서 양측의 관계 개선의 핵심은 미국임. 최근 미국 소니사 해킹 문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발표한 반면, 북한은 이에 대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미국과의 대화가능성도 시사함. 미국은 이에 대해 군사훈련과 핵실험은 별개의 문제라며 거절함.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 한반도의 평화을 위해 대화와 협상이 유일한 해법이며 관계개선을 위해 미국은 북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볼 필요가 있음. 新华网(신화망), 1.15

〈남북관계 진전을 언급한 김정은 신년사, 말이 아닌 행동이 중요〉

인천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남북이 합의한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후 남북관계는 2015년까지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한국은 북한의 신년사에 앞서 남북 대화를 제의해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주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김정은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함. 한국이 남북대화를 제의한 후 북한은『노동신문』에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통일준비위원회를 비난했지만 신년사에서는 정상회담을 가능성을 언급함. 2015년의 출발은 희망적이지만 남은 한 해는 말이 아닌 행동이 결정할 것임.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1.1

〈신년사를 통해 예측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북한 지도자〉

소니해킹 사건으로 미국은 북한에 명시되지 않은 보복을 하겠다고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정은은 또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 화해를 언급하고 남북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촉구함.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과 같이 한국과 미국으로 하여금 계속 궁금하게 하는 특징이 있음. 최근 알 수 없는 것은 중국의 역할인데, 중국의 지원 없이 북한은 붕괴할 것이며, 중국은 김정은 정권을 지켜주고 있는 것임. 북한의 행동은 중국을 당황스럽게 만들지만 중국은 용인하고 있는 실정.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행동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가 의문. 중국이 북한을 다그친다면 김정은은 매우 다르게 행동할 것임. The Independent, 1.1

〈北 김정은 신년사, 가정의 행복 강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 주목을 받은 동시 '가정의 행복'을 강조한 것이 흥미로움. 신년사 서두에서 "온 나라 가정들에 따뜻한 정이 넘치고 귀여운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라고 호소, 연설의 마지막을 "온 나라 가정들에 행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라는 말로 끝맺어 과거 "싸워나가자" 등 굳은 말로 끝날 때가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임. 김 제1위원장은 올해의 활동을 '평양육아원·애육원' 방문부터 시작했는데 신년사와 이러한 활동을 보면 '아이'와 '가정'에 중점을 두어 '인민의 행복을 중시하는 지도자'라는 연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핵무기를 개발하고 선군 노선만을 계속해서는 '가정의 행복'은 오지 않으며 김 제1위원장이 '선군'에서 민생과 민족, 민주를 우선시하는 '선민'으로 전환하기를 바람. 교도통신, 1.15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